

第144回國會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會議錄 第20號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2月14日(水)
 場 所(1) 特別委員會(516號室)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145號室)

議事日程

1. 聽聞會日程變更의件
2. 日海財團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를위한聽聞會

審査된案件

1. 聽聞會日程變更의件..... 1面
2. 日海財團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查를위한聽聞會..... 3面

(9時46分 閉議)

○委員長 李基澤 아침 일찍 이렇게 出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次 本 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1. 聽聞會日程變更의件

○委員長 李基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聽聞會日程變更의件을 上程하겠읍니다.

여러 委員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特委에서는 全斗煥씨를 12月10日 聽聞會에 出席토록 證人出席要求書를 百潭寺로 보낸 바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接受했다는 確認書도 우리 本 特委에서 接受했읍니다.

그러나 12月10日 全斗煥證人은 本 委員會의 聽聞會에 出席하지 않음으로써 當日 第7次 聽聞會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流會되고 말았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2月12日 4黨幹事會議를 열어서 협의한 바 다음과 같이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12月10日의 聽聞會에 出席하지 아니한 全斗煥證人의 聽聞會 出席日時를 12月22日 上午 10時로 결정하여 當日 聽聞會를 開會하기로 하고 出席要求書는 12月12日 어제 그에게 發送했읍니다.

그리고 오늘 9時30分 全體特委를 열어서 全斗煥證人의 證人 出席日時決定 및 聽聞會日

程變更에 관한 幹事會議 合意事項을 追認해서 議決하도록 그렇게 4黨 幹事會議에서 합의본 바 있습니다.

여러 委員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幹事會議 合意事項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議事日程 第1項이 議決이 되면 바로 場所를 옮겨서 오늘은 鄭周永證人에 대한 個別訊問 聽聞會와 午後에 鄭周永 張世東 梁正模 세 證人에 대한 對質訊問을 갖고자 합니다.

별 異義없읍니까?

○洗熙杓委員 가만 있어요! 委員長에게 하나 물어 봅시다.

12月9日에 訊問한 것에 대해서 鄭周永證人에게 無所屬의 割當時間을 뺐는데 만약에 내가 사실 오늘 지금 書類를 가져 왔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물론 無所屬委員이 의복게 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國會안에 交涉團體에 登錄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本人도 認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國會議員에 대한 禮遇에 있어서 당해 國會에 交涉團體에 登錄이 됐다 해서 質疑가 초과되고 登錄되지 아니한 無所屬委員이라 해서 質疑가 초과됐다 해서 時間을 빼는 그러한 문제는 是正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本委員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시간을 전부 제가 作成을 했읍니다. 또한 各 黨別로도 제가 分析을 다해 놓았읍니다. 이러한 이것이 人權의

蹂躪이요 國會議員의 發言을 말이지 交涉團體에 登錄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임의로 이름을 지워 버리고 이러한 자체의 人權을 伸張하지 못하면서 무슨 人權伸張을 하겠다고 우리가 非理를 들춰내는 이러한 운영은 是正되어야 된다……

또한 여기에 보니까 "12月9日 證人 訊問하였음" 이런 정도면 事前에 그러한 사유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協議가 됐으니 無所屬委員으로서 협조하는 의미의 양해를 求하는 사실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油印物에다가 이렇게 한 사람밖에 없는 無所屬委員의 人權을 짓밟는 이러한 4黨幹事會議…… 委員長의 指針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解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오늘 이 委員會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면 證言을 듣는 그 시간에 議事進行發言과 더불어 會議進行을 내 나뉠대로 어떠한 法律에서 제재를 하든 해나갈 것이요. 이러한 따위의 얘기를 한 사람밖에 없다고 少數意見을 짓밟는 이러한 委員長과 4黨幹事會議는 어느 國會에서 어느 몇 代國會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조잡하게 會議進行書類를 만들어서 돌리는 비록 내가 여기의 한 사람이지만 事前에 이러이러한 時間配定으로 인해서 無所屬委員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난번에 發言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라면 어떠한 일이든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내 비록 혼자지만은 상대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엉터리같은 議事進行에 대한 書類를 만들어서 사람의 人身을 「코너」에 모는 그러한 행위는 委員長 스스로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해명이 있기를 바라고 이 해명에 따라서 다시 發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우선 지적인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해명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議事進行發言을 아주 길게 하셨는데 요약을 하자면 두서너가지로 첫째 하나는 洪委員에 대한 發言時間問題를 鄭周永證人의 個

人訊問에 대해서는 왜 빼버렸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난번 會議때도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發言者名單에서 빼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人權蹂躪의 차원에서까지 問題提起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洪委員께서 각 委員들이나 政黨別 發言時間을 統計를 내셨다니까 다행한 일인긴 합니다마는 첫째 鄭周永證人 個別訊問에 대한 割當時間은 鄭周永證人에 대한 오늘 個別訊問은 지난번 訊問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會議進行計劃에서도 宣誓조차도 지금 생략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4黨幹事會議에서 한 證人에 대한 訊問은 지금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난 聽聞會에서 訊問을 했던 委員들은 전부 다 數字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지금 洪委員 質問도 있지만은 平民黨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訊問에 참여하지 않은 同僚委員들이 많이 지금 本 特委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平民黨이 지난번에 두사람했기 때문에 두사람 數字는 제외하고 나머지 委員들로 하여금 訊問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오늘 鄭周永證人의 個別訊問에는 洪委員의 訊問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例를 들자면 統一民主黨 新民主共和黨의 세 證人 對質訊問 割當時間도 보면 사실 15분이 너무 적으면 물론 더 초과할 수도 있지요. 우리 慣例上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數字놀음을 가지고 따지면 사실 개인에게 割當되는 時間을 洪委員時間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 지금 洪委員이 우리 聽聞會에서 訊問을 할 수 있는 기회나 時間을 委員長으로서 더구나 幹事會議에서 無所屬이라고 해가지고 조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해명한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좀 이해 좀 합시다. 오늘 이것보다 더 큰 聽聞會도 있고 하니까요.

○洪熙杓委員 적은 일을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한다고 그래요!

○委員長 李基澤 그리고 우리 洪委員이 지적인 문제는 指摘事項으로 해서 다시한번 4黨

幹事會議에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洪熙杓委員 내가 꼭 鄭周永證人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油印物이 나오기 전에 國會의 職員을 통해서라도 나한테 사실에 대해서 양해를 이해를 구하고 먼저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委員長 李基澤 누가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洪熙杓委員 無所屬은 누가 관리합니까? 委員長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요? 國會에서도 議長이 모든 것을 通告를 해요.

알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全斗煥證人の 聽聞會 出席日時를 12月22日 10時로 결정할 것을 可決키로 합니다.

별 異議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오늘 議事日程 第2項은 日海財團關聯非理 調査聽聞會이므로 聽聞會 會議場인 1層 145號 室에서 聽聞會를 10時에 開議하기로 하고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9時58分 會議中止)

(10時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委員會를 續開하겠읍니다.

2 日海財團의設立背景및資金造成關聯非理調査를위한聽聞會

○委員長 李基澤 지금부터 議事日程 第2項 日海財團의資金造成關聯非理調査를 위한 第7次 聽聞會를 開會하겠읍니다.

오늘 聽聞會는 우리 委員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1月9日 第5次 本 聽聞會에서 鄭周永證人에 대한 訊問을 子正까지 계속하였으나 다 마치지 못한 바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鄭周永證人の 同意를 받아가지고 會議次數를 변경해서라도 證人訊問을 끝내 고자 했으나 그날 밤 鄭證人께서는 健康上 이유로 더 계속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할 수 없이 다시 出席要求하여 訊問을 마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再出席要求日을 지난 12月8日과 9日의 聽聞會에서 鄭周永證人은 海外出張中이라는 이유로 出席하지 못했다가 오늘에서야 鄭證人에 대한 訊問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特委의 원활한 調査活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調査해야 할 事案들이 너무나 많읍니다.

특히 日海財團關聯非理調査를 조속히 매듭짓고자 했으나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지체되어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鄭證人께서는 지난 번 聽聞會에서 日海財團의 設立背景과 基金의 強制募金에 관해서 部分的으로나마 많은 사실을 밝혀 주셨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쉬움도 많이 남겨 주셨읍니다. 특히 國民 누구나 알고 있고 時代的으로 이미 규정받고 있는 政經憲章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때문에 日海財團非理의 좀 더 根本的인 문제를 밝혀 내는데 우리 本 委員會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吐露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날 權力の 시퍼런 칼날이 날뛰던 5共和國治下에서 우리나라 企業이라면 누구라도 權力の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權力者가 政治資金이든 財團의 基金이든 돈을 요구할 때 그 누구라서 감히 어느 企業이 그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겠읍니까?

鄭周永證人께서 지난번 聽聞會에서 쓴 웃음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신 바처럼 시달리지 않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라도 權力에 빌붙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 企業들의 부끄러운 과거였읍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한 결과지만 權力은 少數財團만을 위한 經濟政策을 펴왔고 勤勞者를 비롯한 庶民大衆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貧富差가 이렇게 극심하고 勤勞者들이 모두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연유때문이 아닌가 本人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本 聽聞會의 주된 목적은 과거의 잘못을 밝혀서 내일을 바로 잡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鄭周永證人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를 통해서 어두웠던 지난 시대에 이

나라의 企業인들이 權力과 밀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사정과 실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낱말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經濟界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았던 政經癒着의 끔찍한 족쇄를 經濟界 스스로 끊어버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最大財閥의 總帥답게 鄭周永證人부터 새시대 맞는 새로운 企業인의 모습을 스스로 제시함으로써 모든 國民들의 공감속에 이나라 經濟界가 열심히 새롭게 그리고 활발하게 새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면 鄭周永證人에 대한 訊問과 證言聽取가 있겠습니까.

(「委員長!」하는 이 있음)

조금 제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鄭周永證人은 日海財團의 發起人이고 또 현재 日海財團에서 명칭이 바뀐 世宗研究所理事長이며 現代「그들」 명예회장 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鄭證人の 證言과 다음 22日 全斗煥證人の 證言을 끝으로 해서 日海財團의 -非理調査를 위한 聽聞會는 아마도 끝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第5次 聽聞會에서 鄭周永證人이 했던 宣誓가 오늘도 그대로 유효함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鄭證人の 宣誓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證人訊問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金令培委員 무슨 말씀입니까?

○金令培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議事進行發言하시렵니까?
하세요.

○金令培委員 金令培委員입니다.

鄭周永證人の 證人訊問에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鄭周永證人이 지난 8日 9日 本 聽聞會에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8日 個別訊問에 鄭周永證人이 나오지 아니해서 訊問을 못했습니다. 더욱이 9日是 張世東 鄭周永 梁正樸 이 세 證人에 대한 對質訊問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가는 鄭周永證

人께서 출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聽聞會 자체가 流産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후나마 鄭周永證人이 本 特委의 委員長 幹事에게 解明書翰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聽聞會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해명이 있지 아니하고는 國民이 도저히 이해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鄭周永證人께서는 이 점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먼저 있는 다음에 證人訊問에 들어가야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議事進行發言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좋은 指摘事項입니다.

의당 鄭周永證人께서는 證人席에 나와서 앉으시고 委員님들이 訊問을 하시면 서두에 그러한 사과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本 委員長도 믿고 있었습니다.

우선 會議節次上 鄭周永證人께서 이 證人席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議事進行發言이 있었습니다가는 訊問에 들어가기 전에 鄭周永證人께서 지난 8·9日 經濟活動의 일환으로 海外出張中이어서 사실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 聽聞會가 연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국하셔서 즉시 4黨幹事들과 本 委員長에게 그 公文의 解明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각 黨幹事들이 所屬委員들에게 다 말씀으로 전달을 했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막중한 지난 聽聞會에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訊問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證人 鄭周永 지난 8日 9日 貴 聽聞會에 本人이 우리 企業의 사정으로 聽聞會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필수 있으면 貴 聽聞會에 나와서 모든 것을 하고 나가려고 생각했고 또 나가더라도 나가는 이유를 와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가는 新聞에서 좀 비친 것은 「시베리아」開發이다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그것은 둘째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企業이 蘇聯이 열망하는 「시베리아」開發하는 것은 큰

利害得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蘇聯은 우리나라와 國交가 없는데 그 열망하는 그 부분을 우리 韓國企業이 公信力을 높이면서 성실하게 보이면서 政治 外交 經濟의 통로를 만드는데 韓國 건실한 企業人들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蘇聯하고 國交가 없고 여러 가지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情報가 어둡고 또는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큰 손실과 상대방에게 信用을 추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情報와 또 그 쪽과 國交가 있고 모든 그쪽 일을 많이 하는 日本 美國의 모든 經濟人들을 만나서 서로 동참할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蘇聯問題는 오늘 못 하면 내일 할 수도 있고 금년 못 하면 내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절실히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現代나 韓國企業이 이해를 절고 절실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보다는 貴 委員會에 公文의 解明書를 냈읍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읍니다.

東京灣에 100億弗工事が 나왔읍니다.

이것은 今世紀에 있어서 뿐 아니라 世界 歷史上 가장 초대형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1次工事の 說明會가 12月5日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韓國業者들이 1次工事は 가장 특히 우리 現代는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約 6萬,000t의 그 철강 「자켓」을 만들어 기지고 人工섬을 만들어서 그 횡단 지하「터널」에 공기통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에 우리가 資格을 얻고 入札기회를 못얻으면 영구히 日本의 大型工事に 참가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資格을 얻는 것도 힘들고 또 資格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콘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그 적절한 業者끼리 「콘소시엄」을 형성하지 않으면 入札할 기회를 또 안줍니다. 이런 시급한 관계로다 또 물론 우리 會社에 社長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日本의 모든 70代 그 元老들 하고 얘기해야 하고 우리 會社 젊은 社長들은 또 日本말이 안되

고 첫번 만나서는 얘기도 되지 않고 제가 數十年 熟面이 있기 때문에 日本의 業者와 美國의 「백텔」을 위시해서 모든 業者들 하고 혼자서 안되더라도 그 사람들 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同參의 기회를 만들려고 떠나가서 아주 부지런히 서둘러서 될 수 있으면 8日과 9日에 대어 오려고 서둘렀지만 상대방 日程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맞춰서 돌아 왔읍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해명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의 訊問이 있겠읍니다.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입니다.

鄭周永證人은 現代「그룹」의 名譽會長이시고 또 그 당시의 全經聯會長이시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本委員의 證人訊問은 확실한 증거와 또 지난번에 證人이 本 聽聞會에서 주로 偽證을 하거나 事實認定에 있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하겠읍니다.

서로 時間節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 하고 간단하게 答辯주시기를 먼저 부탁 드립니다.

먼저 日海財團寄附金造成에 관한 사항을 訊問하겠읍니다.

證人은 全斗煥大統領과 同行하여 여러 명의 經濟人을 데리고 83年10月9日 「버마 아웅산」에서 우리나라 外交使節 17名이 慘死를 당하는 「버마에 갔을 때 그 당시에 證人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올릴까요?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83年10月24日 齊瓦瓦에 전달한 23億원에 대한 入出金이 日海財團 經理帳簿에 記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遺族에게 慰勞金을 준다고 모으라고 그래서 모으는데 협력을 했지 記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證人이 初代發起人이고 理事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證人 鄭周永 發起人 理事되기 전에 그 돈

이 모아졌고 그 돈이 쓰여졌기 때문에……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그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日海財團의 發起도 하기 전에 23億원은 企業人으로부터 찬조를 받아가지고 이미 遺族에게 支給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이 돈 23億은 누가 主導를 해서 누구에게 遺族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것 혹시 證人이 아십니까?

혹시 안받았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證人 鄭周永 제 생각은 그렇게 모아서 하자 이렇게 그 돈을 얼마 쫓 모으자 하는 것도 역시 大統領께서 갔다 오셔서 그 상황을 잘 아시니까 大統領 뜻을 받들어서 靑瓦臺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모아가지고 정확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東周委員 정확히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靑瓦臺에서 누가 이것을 직접 모았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 모을 때 누가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證人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證人 鄭周永 얼마 모았는데 좋겠다고 와서 그냥 實務者가 靑瓦臺에 갔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물론 警護室이겠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지요.

○金東周委員 張世東室長이겠지요?

○證人 鄭周永 어쨌든 警護室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전달이 된 것은 證人이 생각할 때 전달이 된 양으로 알고 있지만 遺族에게 정확하게…… 왜냐 하면 領收證이 하나도 없어요. 領收證이 없고 帳簿에도 記載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證人 鄭周永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領收證節次는 서로 관심이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張世東證人은 日海財團에 寄附金을 23億은 모으려 하니까 75%의 稅金이 나가기 때문에 이 財團을 설립해서 75%의 稅金을 免除해 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여기에서 證言을 했는데 午後에 對質하겠지만은 지금 證人말에 의하면 사전에 다만 돈을 받아서 遺族에게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日海財團은 設立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게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日海財團의 設立者代表 日海財團의 總裁라는 規定이 定款에 있습니다.

이 總裁를 選任할 때 理事會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자기가 總裁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證人 鄭周永 理事會에서 總裁選出한 기억이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總裁選出한 기억은 없다.

○證人 鄭周永 예. 어떻게 되어서 總裁가 되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나중에 質問에 나오겠지만은 證人은 臨時理事會에 한번 빠지고는 상당히 勞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總裁는 理事會에서 選任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總裁가 되었구만요.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選任을 했는지 스스로 되었는지 그것은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證人은 84年 4月末頃 「프라자 호텔」과 「롯데호텔」에서 日海財團 寄附金募金과 관련하여 당시 崔順達理事長 趙成熙大領 그 다음에 證人과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이 모여서 29個 業體에 137億을 할당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鄭壽昌證人의 말에 의하면 證人과 鄭壽昌會長 두 사람이 企業體에 할당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鄭周永 그때 제가 全經聯會長입니다.

鄭壽昌會長은 大韓商議의 會長입니다.

大韓商議會長은 누가 그 序列을 그렇게 만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經濟團體 序列의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鄭壽昌會長이 저한테 募金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테니까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해서 내가 全經聯會長이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것보다 우리 副會長들이 될 수 있으면 시간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유력한 사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副會長들을 몇을 나오라고 제가 연락을 해서 「프라자 호텔」에 모인 일이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예. 두번 모이셨는데 그 당시에……

○證人 鄭周永 첫번 모인 얘기입니다.

○金東周委員 첫번…… 예. 그래 거기에서 29個 業種 選定은 누가 했습니까?

○證人 鄭周永 거기에서 여럿이 의논을 했습니다.

○金東周委員 여럿이래 봐야 누구누구입니까?

○證人 鄭周永 거기는 물론 崔順達理事長이 나왔고 鄭壽昌會長이 나왔고 저 나왔고 우리 副會長이 몇 사람 나왔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副會長 기억나십니까?

○證人 鄭周永 기억은 하는데 日海聽聞會에 자기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였습니다.

○金東周委員 안 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證人 鄭周永 왜 그런지 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擧論되는 것에 대해서……

○金東周委員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139億원을 할당했습니까?

○證人 鄭周永 거기에서…… 제 기억입니다.

83年11月25日 創立總會 理事會라는 것을 내 기억으로는 靑瓦臺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崔順達理事長이 뭐라고 설명하고 하니 84년에 돈이 4億8,000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잊어버렸는데 자세히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 職員시켜서…… 이것은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

○金東周委員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證人 鄭周永 이것은 자세히 얘기해야 다른

사람 또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84년에 4億8,000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85年度도 9億6,000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金東周委員 그것이 事業計劃書입니다.

○證人 鄭周永 이렇게 얘기를 崔順達理事長이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記錄을 뒤져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늠해서 제가 기억한 것은 日海財團을 만들어가지고 그 遺族의 생계를 보장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꿈을 살리는 데는 이것을 보더라도 100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가 100億을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없고요. 기억이 다른 사람들은 얘기들이 모두 각자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50億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나는 분명히 기억한 것은 그것 왜 商工會議所會長도 나왔지만 주로 돈 많이 낼 사람들은 全經聯 會員들입니다.

다 商工會議所 會員도 되지만 그 분들이 전부 全經聯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모두 모인 것입니다.

○金東周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證人 鄭周永 그래서 내가 割當한 것은 100億… 100億에서 조금 넘는… 내 기억으로는 어쨌든 110億이 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했고 거기서는 그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金東周委員 그것이 靑瓦臺에서입니까?

○證人 鄭周永 아닙니다.

○金東周委員 「롯데 호텔」에서?

○證人 鄭周永 「프라자 호텔」에서……

○金東周委員 「프라자호텔」에서…… 그런데 證人 말이 거기 崔順達씨가 한 4億8,000萬원만 있으면… 事業計劃書가 나와 있습니다.

○證人 鄭周永 84年度가 그렇고 85年度 얘기까지도 그때 했습니다.

○金東周委員 예. 다 알고 있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때 나온 것은 9億6,000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실제로는 4億8,000萬원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137億을 가지고 金利를 가지고 運營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證人은 생각했단 말씀이지요?

○證人 鄭周永 100億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割當한 것은 안내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고 도 형편으로 못내는 사람이 있을는지…… 約100億 약간 넘게……

○金東周委員 그러면 證人이 割當한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鄭周永 내가 거기서 議論을 여러 사람하고 했지만 내가 주동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100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心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公益法人의 財團에 대한 經理는 그 法人이 管理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全斗煥大統領과 張世東警護室長이 日海財團의 寄附金 全額을 직접 管理하는데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은……

○證人 鄭周永 저는 그것은 몰랐는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볼 적에는 그때는 日海財團事務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管理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金東周委員 安家에 있었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安家가 거기가 거기지요 뭐……

○金東周委員 아! 거기가 거기다……

○證人 鄭周永 예.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게 다 靑瓦臺아닙니까?

○金東周委員 그러면 알고는 있었구만요? 거기서 管理하는 것을 默認해 주었구만요?

○證人 鄭周永 그게 무슨 默認이고 뭐고 그런 관념이 없지요. 거기서 管理하니까……

○金東周委員 돈만 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證人 鄭周永 돈 내고 잘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金東周委員 믿었다……

○證人 鄭周永 예.

○金東周委員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理事인 證人은 한번도 왜 이 資金管理를 그 당시에 이제 몇 100億이 되었던 말입니다 1次年度 2次年度… 84年 85年하니까… 몇 100億이 되었는데도……

○證人 鄭周永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그해 年度를 얘기하고……

○金東周委員 아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돈이 數 100億이 되는데도 理事會에서 한번도 이 資金管理를 財團에 옮기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저 21萬坪 크게 짓고 난 이후에도 88年3月까지입니다.

이 때까지도 張世東씨나 全斗煥씨가 직접 管理하고 있는 이 資金管理에 대해서 어떻게 理事長으로서 또 理事長으로 就任하시고 난 이후에도 資金에 대한 引受引繼를 받았습니까?

○證人 鄭周永 理事長으로 就任을 하니까… 돈이 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管理를 무슨 308億이니 하지 않았겠어요?

○金東周委員 예. 308億입니다.

○證人 鄭周永 내가 就任을 해가지고 그 財團을 世宗研究所로 고쳤을 때는 그 資金이 다 나왔습니다.

○金東周委員 아나 그 때가 언제입니까?

通帳을 직접 보았습니까 말만 들었습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그렇게 事務的인 것은 아니고요.

○金東周委員 말만 들으셨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게 報告를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일을……

○金東周委員 그 때도 通帳이 靑瓦臺에서 張世東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證人 鄭周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金東周委員 정확하게 모르셨지요 報告만 들으셨지요?

○證人 鄭周永 그런데 定款內容이 내가 理事長을 就任해서도 나는 定款內容이 모든 權限이 研究所長으로 되어 있지 理事長한테는 權限이 하나도 없고 겁데기로 만들어 놓은지 몰랐어요……

○金東周委員 알았습니다.

예.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랬기 때문에 채근할 權限이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金東周委員 알겠습니다

時間이 없으니까……

○證人 鄭周永 그렇게 상세히……

○金東周委員 지난 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證人이……

○證人 鄭周永 예. 大統領을 모셔다 일을 하니까 우리 民間人이 되니까 그렇게 상세히 할 義務도 느끼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 또 굳이 그것을 또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읍니다.

○金東周委員 알았읍니다. 그런데 鄭壽昌 前大韓商工會議所 會長은 지난번 聽聞會에서 證言하기를 처음부터 500億을 募金하기로 計劃을 하고 분명히 자기와... 그러니까 鄭壽昌會長과 全經聯會長인 證人이 분명히 500億을 募金하기로 計劃했다는데 證人은 지금 100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누가 僞證을 합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僞證...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문제가 거북해지는데...

○金東周委員 크지요... 왜냐? 100億하고 500億하고는 큼니다.

○證人 鄭周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金東周委員 아니 그런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鄭壽昌會長은 그 분은 돈 거두는 사람들 하고 議論하는 입장에서 많이 모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착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돈을 내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100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割當하는데 많은 主導役割을 했기 때문에 아주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金東周委員 그럼 이렇게 整理합시다.

○證人 鄭周永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金東周委員 證人! 아니 그럴 시간이 없어요.

○證人 鄭周永 아니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의심을 품어서... 여러번 重複된 證言이 없읍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金東周委員 시간이...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좀 答辯하세요.

○證人 鄭周永 그 사람들이 죽 보니까요. 나는 분명히 100億을 割當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해에 거둔 것을 보니까... 잠깐 좀 보세요.

○金東周委員 아니 그게 다 뒤에 나오는데요. 지난 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아니 조금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서로

물어보시는 委員님들께서 누구얘기가 차질이 있느냐 하기 때문에 완전히 心證이 가도록 제가 설명을 해야겠읍니다.

○金東周委員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찾을 동안 다른 것하세요. 證人! 내가 더 質問하겠읍니다.

요 전에 前任大統領이 國民에게 謝過하는 「텔레비」를 보셨습니까?

○證人 鄭周永 봤읍니다.

○金東周委員 그때 자기가 日海財團의 強制性 募金에 대해서 國民에게 謝過했지요 보셨지요?

○證人 鄭周永 예. 들었읍니다.

○金東周委員 本委員이 整理하기로 全斗煥 前大統領 長世東警視室長 崔順連理事長 趙成熙保安司大領 등이 長期執權을 陰謀하기 위한 수단으로 日海財團을 設立하기로 계획하여 그 資金造成에 있어서 그 당시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인 鄭壽昌씨와 그 당시 全經聯會長인 證人을 앞세워서 企業人 56名으로부터 수백億의 돈을 強制 寄附行爲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大統領도 진심으로 謝過를 했으니까 證人도 거기에 同意해야 되겠지요?

○證人 鄭周永 저는 100億이면 日海財團이 된다고 생각해서 100億을 모을 적에는 내가 우리 全經聯 副會長 등을 데리고 내려가서 主導役割을 했읍니다. 그 후는 나는 알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았읍니다.

○金東周委員 그래서 그 뒤에 지난번에 편히 살고 싶고 -時流에 따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每年 170·80億씩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과는 전연 맞지 않는 方向으로...

○金東周委員 아니 그런데 證人은 137億에 대해서는 證人이 割當을 했지만...

○證人 鄭周永 137億 割當 안했어요. 그때...

○金東周委員 100億만 했다...

○證人 鄭周永 아마 105·6億했을 겁니다.

○金東周委員 105·6億만 證人이 割當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本委員의 質問은 證人도 지난번에 時流에 따라서 그렇고 또 편히 살고 싶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럴때 대부분의 企業人들도 다 強制性 아니겠읍니까?

大統領도... 돈 거둔 사람도 是認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同意하시지요?

○證人 鄭周永 제가 그 經緯를 다 얘기들...

○金東周委員 그 經緯는 지난번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이진 왜냐 하면요. 이거 봐요. 전부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뭐 누구하고 證言이 틀렸다 어찌구 뭐 對質한다 이것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자세히 듣고 여러 委員님들이 心證을 굳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東周委員 아! 좋습니다 아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本委員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證人 鄭周永 물으시면 자세히 들으셔야지...

○金東周委員 아니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부부는 證人도 삼가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다음에 土地部分에 대해서 訊問을 하겠습니까. 張世東警護室長과 日海財團의 敷地를 物色하러 다니신 적이 있지요?

○證人 鄭周永 한번 불러서...

○金東周委員 育瓦臺에 불러서...

○證人 鄭周永 예. 불러서 자기 車에 타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간 일이 있지요? 예. 좋습니다.

證人이 지난 聽聞會에서 證人所有의 敷地 지금 현재 日海財團이 建立이 되어 있는 敷地 15萬餘坪을 84年10月14日 日海財團에 登記移轉해 준 사실이 있다고 證言을 하셨지요?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張世東證人은 敷地代金 6億5,000萬원을 證人에게 手票를 주니까 證人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證言했는데 證人은 이 말을 是認합니까?

○證人 鄭周永 주겠다고...

○金東周委員 말만 했지 手票는 내놓지 않았습니까?

○證人 鄭周永 代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代金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事前에 돈을 안받기로 했고 주지도 않은 사실을 張世東씨는 돈을 주니까 안 받아서 도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

를 했습니다. 그런데 證人이 그러면 돈을 張世東警護室長이 주지도 않고 證人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日海財團의 帳簿에는 實買契約書가 作成이 되어 있고 6億5,000萬원에 대한 領收證이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實買契約書作成해 가지고 내가 가서 도장 찍어주었습니다.

○金東周委員 證人이 직접 찍어주었습니까?

○證人 鄭周永 우리 實務陣이 전부 實買契約書作成해서 도장 찍어주고 領收證도 우리. 實務陣이 만들어서 내가 갖다 주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日海財團의 經理帳簿에는 6億5,000萬원이 나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證人名義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現代建設로 되어 있는데 이 共有敷地는 이영기 김호일 김성학 김정호 운주익 등 7名의 名義로 偽裝登記되어 있다 이 말이오. 이렇게 되면은 또 이 분들이 돈을 받아간 양으로 봤다면 이것은 분명히 不動產轉賣行爲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때 그게 農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가서 農事 안 짓는 사람들의 名義로 登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대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金東周委員 아니예요. 農地가 아닙니다. 農地라는 것은...

○證人 鄭周永 農地도 있고...

○金東周委員 아니 그 당시에 거기에 居住하면서 農事를 짓는 사람에게 그 당시 法으로 써는 했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城南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領收證이 7名 名義로 되어 있는데 證人이 봐 보세요. 이게 證人이 찍어준 도장이 맞는가.

○證人 鄭周永 다 맞습니다. 볼 것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6億5,000萬원 받아간 것 아닙니까? 6億5,000萬원을 지금 누가 이 돈을 가져갔습니까?

○證人 鄭周永 도장 찍어주고 돈은 안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金東周委員 그런데 日海財團에서 우리 全體會議가 나갔을때는 이 돈을 支拂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公金을 누가 이 돈을 착복했네요?

○證人 鄭周永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金東周委員 아니 지금 理事長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화 내실 것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화 내는게 아니라 화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證人 鄭周永 돈 안 받은 것은 안받았다고 證言을 하지 왜...

○金東周委員 그러면 이 文書는 어떻게 作成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내가 만들어서 썼어요 契約書 그리고 아주 領收證까지 다 써서주고 돈 안 받았다고 했어요.

○金東周委員 그런데 法律上 이 땅은 그러면 現代 게 아니고 證人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김호일이나 김성학씨 所有입니까?

○證人 鄭周永 그 돈은 다 내가 냈기 때문에 便宜上 그 사람들 이름으로... 農地 土地가 거기 居住하지 않는 사람은 登記가 안나기 때문에 便宜上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 다음에 梁正模씨 解任과 國際「그룹」倒産에 대한 訊問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證人은 85年8月21日 열린 第4次 臨時理事會에서 證人과 같이 日海財團의 發起人이고 理事고 더구나 오랫동안같은 企業人으로서 梁正模理事가 解任書도 내지 않았는데 會議錄에 보면 解任書를 내서 解任한 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證人の 도장도 理事會決議書에 같이 붙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證人은 그 당시에 梁正模理事가 解任되는데 贊成했습니까 反對했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 會議를 한 기억이 없어요.

○金東周委員 그런데 도장은 찍혀 있습니다. 會議錄에...

○證人 鄭周永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또 여기 나오게 돼서 다 모른다 모른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요 書類를 봤는데 거기 찍힌 도장이 우리 도장을 취급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내 도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證人の 도장이 아니고 이것은 찍혀 있더라 좋습니다.

○證人 鄭周永 나는 그 會議한 기억도 없고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어서 내 기억이 몰라서 그런가 해서 내가 實務者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찍은 書類를 寫本을 찾아보고 우리가 日海財團에서 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도장하고 대조해 보니까 우리 도장은 아니더라 이것을 내가 알고 나왔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자기들이 파서 했구만요 그 다음에 證人은 그 당시에 梁正模씨가 지난 번 證言에서 國際「그룹」이 倒産된 것은 企業家の 道理로써는 잘못된 것이다. 企業整理節次에 있어서는 競賣節次를 밟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不渡가 나거나 이래서... 한데 그 말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同意를 합니다. 證人 말에... 그런데 그 당시에 證人은 大韓民國의 全經聯會長입니다. 全經聯會長이고 같은 財團의 理事인데 國際「그룹」이 解散되고 梁正模씨가 저렇게 倒産 당할때 證人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救命運動을 해주었습니까?

○證人 鄭周永 제가 全經聯會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梁正模會長 會社가 그렇게 이주 일시에 그렇게 된데 대해서 많은 음미를 해봤습니다. 음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음미를 해봤는데 梁正模會長도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企業이고 잘못될 적에는 그 企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일시에 倒産시키는 것은 經濟政策原則에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金東周委員 아니 혹시 救命運動... 張世東씨나 全斗煥씨를 만나 갖고 이것 좀 살려주라 이야기는 안해 봤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때 분위기가 살려줘라 해서 말이 먹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議論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으니까 그만 두자고 그렇게 結論이 나고 말았습니다.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證人이 지난 번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時流論에 관한 訊問을 잠깐 하겠습니다. 證人은 지난 聽聞會에서 첫번째 100億원을 日海財團에 寄附金을 納付한 것은 自意에 따라서 한 것이고

내고 싶어서 낸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時流에 따라서 순응하는 의미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金東周委員 그런데 지난 번 聽聞會도 그렇고 오늘 聽聞會도 時流에 따라서 나온 것이지요?

○證人 鄭周永 사실인데 그것을 쫓아 자꾸 물어보니까? 백번 물어봐도 그것은 한가지입니다.

○金東周委員 그럼 내일이라도 政治的인 狀況에 變更이 온다면은 또 時流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겠지요?

○證人 鄭周永 그것은 말씀이지요. 千年가도 그것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큰 權力 앞에서 우리 事業家가 무슨 만용을 부릅니까? 적절하게... 그것이 우리 企業家들의 모든 생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전부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證人은 당시 全經聯會長이고 國內에서 최고의 賣出額을 올리고 있는 現代「그룹」의 總帥였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이 獨裁 權力하고 合流하지 않고 오히려 멋있게 企業의 元老로서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鄭周永 멋있게 살았지 잘못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멋있게 살았다... 좋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지요. 거기다 돈 낸 것이 멋멋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돈을 안 내고 어떤 경을 쳐서 우리가 破産하는 것이 멋멋한 겁니까? 아직도 멋멋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證人은 그렇게 멋멋한 사람이 지금 현재 中小企業家들이나 대다수 國民들이나 젊은 世代들에게 지금 많은 사람 國民들로부터 證人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내가 살아온 길이 國民한테 존경까지는 모르지만 미움이나 증오는 받지 않고 산다 이렇게 자부하고 살고 있음

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證人이 지난번 本聽聞會에서 政經審 査으로 인한 特惠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本委員인 證人이나 證人「그룹」이 特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質問을 해야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同僚委員이 質問을 하니가 서울 高等學校 땅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서울 高等學校 이 敷地를 98億에 서울市 教育委員會로부터 샀습니다. 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全斗煥大統領의 말 한마디로써 이것이 鑑定價格 490億을 策定해서 서울市가 公園用地로 引受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本委員이 國會本會議場에서도 이것을 폭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여기에서 利益金이 400億이 발생을 합니다 하고 이 400億이 발생하는 돈을 支拂하면은 讓渡所得稅와 防衛稅가 約 300億이 나올 겁니다. 約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市는 證人이 지난 번에 이야기한 쓰레기場 하나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쓰레기場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서울에서는 가장 훌륭한 現代「아파트」를 지어 놓은 그 場所입니다. 서울市 營費地와 交換을 하게 되었어요? 이 交換을 하는데 그 앞에 隣近에 있는 서울市가 公賣한 땅값은 190萬원에서 210萬원입니다. 이 땅을 約 5萬坪을 坪當 100萬원씩 해 갖고 交換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讓渡稅 防衛稅 取得稅 등등을 다 빼고라도 約 900億이라는 이런 엄청난 利益이 발생했는데도 이것이 證人은 特惠가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金東周委員님 지난 번에 어느 委員이 묻고 오늘 다시 묻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남득이 가도록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高等學校 땅은 現代가 먼저 사게된 動機부터 얘기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산 것만 얘기하세요.

動機는 필요치 않습니다.

○證人 鄭周永 서울市가 江南으로 모든 人口를 安保上 移動하는 政策을 세웠습니다. 北에서 別안간 쳐들어오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人口를 江南으로 옮긴다는 政策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移住하는 서울市民이 적으니가 一流高等學校를 먼저 江南에 옮긴다고 해서 맹렬한 政策을 폈습니다. 그래서 現代에다가 그것을 팔고 그리고 江南에다가 서울高等學校명 2萬坪 空地를 사고 그 學校를 석 잘 짓고 옮겨주고 그 땅을 갖는데...

○金東周委員 지난 번에 說明했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래도 이해가 안가서 또 물으니가 자세히 說明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물으니가 다시는 이 문제는 묻지 않도록...

○金東周委員 本委員이 얘기한 것중에 어느것이 特惠가 아니다 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證人 鄭周永 特惠 전연 아닙니다. 저희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說明을 들으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金東周委員 證人이 한 얘기를 또 하지 말고...

○證人 鄭周永 이거 보세요 자세히 물어야지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피해를 봤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物價는 經濟라고 하는 것은 時差가 생김으로써 差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市가 시키는 대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것이 3萬餘坪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 땅을 쓸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자진해서 찾아다니면서 산 것이 아니라 서울市가 권유해서 샀습니다. 샀는데 別안간 또 그것은 文化財라 해가지고 못쓴다 그렇게 딱 묶어 놓고 팔 때도 경회궁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자기네들이 묶어놓을 때도 경회궁자리니까 그것은 變換이 없고 우리를 골탕을 먹이려고...

○金東周委員 公園敷地를 조성했지 않았습니까?

公園告示했잖아요?

○證人 鄭周永 골탕을 먹이려고 묶어놓고 그래서 팔아라 해서 파는 것보다 그와 적격한 空地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나 土地讓渡稅 물고나면 다 없어져버려서 적격한 땅으로 바꾸어달라 이렇게 하니가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똑같은 坪數로 우리는 汝矣島에 있는...

○金東周委員 시간이 없으니가...

○證人 鄭周永 거기에 대한 說明입니다. 거

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金東周委員 종결 지어보세요.

○證人 鄭周永 종결짓겠습니다. 그것과 바꾸자해서 그것을 안했는데 그것을 해라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市가 주는 땅은 法에서 鑑定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회궁땅의 鑑定을 30%를 낮추어서 하고 또 그것은 鑑定을 30% 높여서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特惠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金委員이 얘기한 대로 시간이 가면 金額이 크고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봐요?

○金東周委員 누구보고 이거봐요 합니까. 내가 당신 職員이요?

○證人 鄭周永 야단하실 것 없어요 禮言하는 데 왜 야단하십니까?

○金東周委員 이거봐요 하면 됩니까?

○證人 鄭周永 우리가 다룰 것이 없어요.

○委員長 李基澤 鄭周永證人 그리고 金東周委員 우리 訊問者가 한두 委員도 아니고 이 會議라는 것은 會議計劃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시간 얘기를 하기 싫어서 안합니다마는 지금 거의다 되었으니가 訊問 마무리를 해주시고 또 鄭周永證人께서는 옛날 서울高等學校敷地問題에 대해서는 사실 國民들로부터도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金東周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解明部分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本特委에 答辯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證人 鄭周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리고 고속도로상에 금강휴게소 있지요? 지금 證人 소유이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15年 동안에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道路公社法에 의하면 賣出金額의 17.29%를 내 놓아야 됩니다. 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朴正熙大統領시절부터 지금 39個의 휴게소중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道路公社法에 보편은 거기에는 道路公社에서 인변에 장사하는 건물은 道路公

社에 國家에 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 證人은 지금까지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賣出額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168億입니다. 1年... 이랬을때 9,340萬원이 1년에 됩니다 이래서 15年間 계산을 하니가 168億이 지금 道路公社側에 納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내고 있던데 그것 특혜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金委員님! 金委員님은 本證人을 國民의 의혹을 사도록 質問을 하기 때문에 저는 國民의 의혹을 받도록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대답이 질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으시면 항상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지 우리가 平衡의 原理에 맞는 것이지 말씀을 하고 시간이 없다고 막 닦아치고 야단하시면 안됩니다.

○金東周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委員長이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書面으로 합시다.

○證人 鄭周永 저는 이렇게 합니다.

○金東周委員 지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金委員님이 더 잘 아시지만요 國民은 그것을 시행할때 法律에 의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道路公社法은 그 당시 것은 아니고 國家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金東周委員 國家가 마음대로 法을 만들었다...

○證人 鄭周永 그런 것은 우리가 따를게 있고 안 따라도 괜찮을게 있기 때문에 안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특혜가 아니고 5共時代에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아니 5共에서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日海財團의 體系에 관한 문제를 잠깐 이야기 하고 終結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證言에 釜斗煥 前 大統領이 임명한 理事는 물러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 누구 입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나중에 書類로 내 드리겠습니다.

○金東周委員 書類로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釜斗煥씨가 日海財團의 出捐者로서 아직까지 무슨 주장이나 자기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制度上 전연 없지요. 전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周委員 日海財團은 理事會 決意로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定款上...

○證人 鄭周永 예.

○金東周委員 그러면은... 日海財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國民 그 다음에 우리 社會에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本委員이 이야기 하다시피 이것은 獨裁權力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設立했다 이렇게도 지금 묻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인식하는 國民도 많고 또 사실이 입증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日海財團의 현재 理事長으로서 이 財團을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 出捐者가 3分の 2 그렇지 않으면 社會 著名人士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구성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은요 많은 國民들에게 轉화를 받습니다. 또 연락도 받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 財團은 기부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淸송하지만 理事會 決議로써 公賣處分해서 이것을 國民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理事長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낸 사람들이 무슨 강제성으로 냈든 어쨌든 간에 돈을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돈을 낸 사람들이 자기가 낸 돈이 아주 앞으로 이 나라나 이 社會에 유효하도록 효력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出捐한 사람들하고 충분한 議論을 한 후에 國家에 이익이 되도록 처리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東周委員 아니 證人!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日海財團에 기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당한 특혜를 받았읍니다.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金東周委員 그 말씀에 同意를 하지 않습니다.

○金東周委員 안해도 좋습니다. 저의 本委員 생각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寄附金을 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寄附金을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

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때 이 日海財團은 아마 數千億이 됩니다. 處分을 하면... 이것을 處分해서 우리 國民에게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社會의 좋은 目的에 사용해야지 지난번에도 분명히 證人이 이야기 했지만 21萬坪의 敷地의 그 엄청난 研究所가 뭐 필요합니까? 나는 그것을 證人에게 묻습니다. 證人! 答辯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證人 鄭周永 좋은 물으심인데 그 년 사람들이 現職 大統領이 그것을 전부 쪽 했기 때문에 할 말 아무 것도 못했기 때문에 그 財産을 어떻게 한다 할 적에는 년 사람들의 意見을 듣고 참고 되고 좋을만 하면 충분히 察察해서 處理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東周委員 處理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證人 鄭周永 예.

○金東周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訊問은 新民主共和黨 金 炫委員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 炫委員 新民主共和黨 金 炫입니다.

지금 저희 聽聞會에서 밝혀야 될 것은 사실상 日海財團의 基金의 強制性과 또 日海財團이 事後에 어떻게 運營될 것이냐? 全斗煥씨가 와서 섭정을 하기 위한 장소로 하기 위한 것이냐 사실은 두가지 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한때 앞에 제신 證人께서 전번에 대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아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사실상 전번에 質問을 하다가 12時가 넘어가는 바람에 質問이 끊겨서 그때 質問과 잠깐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男子의 잠자리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男子가 잠자리를 골라 자는데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 女子 問題를 조심해야 되고 또 둘째 時流에 조심을 해야 된다. 李朝時代 刺客들을 보내서 밤에 하도 殺害를 하기 때문에 그 잠자리를 조심해서 자야 된다 또 세번째는 그래도 가난했던 옛날 아침밥이라도 얻어 먹고 나가야 된다 해서 그런 자리를 좀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당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첫번째는 더이상 얘기할 것 없고 두번째에서 내가 앞에 제신 證人께서 時流에 따라서... 첫째 첫번째에 돈을 낼때는 자진해서 냈고 두번째는 안낼 수 없어서 냈고 세번째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냈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두번째에 해당되는 후 共和國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와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한가지 더 정확하게 質問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證人은 3共和國에서 現代가 成長을 많이 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3共和國 시절에...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예. 분명하지요? 그때에 3共和國이 무너져서 4共和國이라는 이상한 共和國이 들어서고 바로 5共和國으로 들어 왔습니다 5共和國 初期에 朴正熙大統領이 간섭을 심하게 했고 經濟人에게 탄압을 많이 했다고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證人 鄭周永 朴正熙大統領께서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예?

○金 炫委員 예. 5共和國 初期에...

○證人 鄭周永 經濟人을 탄압했다고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金 炫委員 國家 主導로 해서 經濟를 했기 때문에 經濟人에게 自律性을 주지 않고 하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證人 鄭周永 朴正熙大統領 시절에 했다는 얘기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金 炫委員 없으십니까? 그리고 全斗煥씨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래서 時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5共和國을 비난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럼 냉정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6·29宣言이 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6·29宣言이 되면서 모든 國民은 자기 意思表示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聽聞會 나와서 그 년 것이 強制性 時流 그것을 여기서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6·29宣言이 되고 그 직후에 記者들 質問하실 적에 모든 國民은 6·29宣言후에 못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 내 심중에 있는 얘기를 한 것이지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全斗煥大統領께서 어디로 갔다고 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6·29宣言이 나쁜이 아니고 모든 各界各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것입니다.

○**俞 炫委員** 本委員이 質問을 하는 이유는 日海財團의 募金 및 다른 「올림픽」등등의 募金 등등을 하는데 證人이 앞장서서 했다. 證人이 配分을 하는 대로 했더라는 그런 他 證人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現代「그릇」이라는 것은 가장 큰 「그릇」으로서 가장 큰 사람의 100億과 작은 사람의 1億은 엄청난 차이의 負擔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무시된 채로다가 一方的으로 어느 정도 配定을 한 결과가 왔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에는...

그렇다면 企業인들이 돈을 낼 적에는 그 많은 利得과 特惠를 보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結果적으로 그것이 企業의 論理를 망쳤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 생각 전혀 안하고 제가 100億을 配定한 것은 現代「그릇」 鄭周永의 權限으로 한 것이 아니고 全經聯會長 權限으로 副會長들 같이 데리고 나가서 의논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순수하게 日海財團의 基本精神이 遺族을 살리고 죽은 사람의 꿈을 살린다는 그 一息으로다가 100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 후에 얘기들이 많이 무슨 300億을 목표로 했느니 500億을 얘기 했지만 그런 기억은 전혀 없고 분명히 討論한 일도 없고 그렇게 議決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記錄을 外務部에 報告했지만 어느 記錄에도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으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생각은 각자가 자기들끼리 얘기했거나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討論했거나 決議했거나 그런 것 아무 記錄에도 없습니다. 그런 일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우리 經濟界에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俞 炫委員** 제가 訊問을... 이유는 세속에서 얘기가 또 證人의 말따라나 時流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당시 6共和國에 들어와서 그 전 것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냐 하니 그 證言을 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후 여기 오시기 전에 聽聞會에 오시기 전에 6共和國의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現政府의 사람들.....

○**證人 鄭周永** 한 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俞 炫委員**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全斗煥大統領이 謝過文을 쓰는데도 前職 大統領이었던 사람이 謝過文을 쓰는데도 靑瓦臺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일주일 열흘 미루고 또 燦彈宣言을 한다는 엄청난 宣言도 해보고 여러가지들 하다 하다 안 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靑瓦臺와 상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企業人 아까 贊勇을 부릴 수 없는 企業人이 현재 6共和國에 들어오면서 6共和國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이만큼 자신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證人 鄭周永** 聽聞會問題를 얘기하자고 그래 가지고 6共和國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俞 炫委員**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證人 鄭周永** 제가 사실대로 여기 나와서 證言하는데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의논을 합니까?

○**俞 炫委員**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對國民에게 사과하는 謝過文도 으런진대 아까 證人이 말씀하시기를 企業人이 어떻게 하느냐 贊勇을 부리다 파산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時流에 따라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또 세째번 아까 얘기했을때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아침밥을 얻어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는 가야지 해서 아까 잠자리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한데 그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전번 證人에게 제가 訊問을 했을 적에 證人의 年歲는 일흔넷이라고 하셨고 저는 30代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世代의 변화가 왔고

大韓民國도 엄청난 企業人의 노력에 의해 政府의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발전을 했습니다. 證人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까지는 40年代 50年代 까지는 밥만 먹여줘도 참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大韓民國이...

하나 지금 젊은 世代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精神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전번에 왜 하필이면 勞組問題와 이런 것이 「텔레비전」에 現代것만 많이 비쳐지느냐 하고 한번 여쭙봤습니다.

現代 것이 강하게 많이 비쳐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現代가 크고 한군데 集團으로... 蔚山이면 蔚山에 7萬名씩 모여있는 다른 企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企業들은 人員數가 散在해 있지만 우리는 17萬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蔚山 한군데에 約 7萬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거의 90%가 男子勞働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크게 일어나니까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 炫委員 예. 됐습니다.

제가 오늘 證人에게 訊問을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제가 쪽 들었기 때문에 證人의 마음이 본심으로 하는가 흔히 얘기들 하는 時流에 따르는가만 本委員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 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통 옛어른들이나... 저보다 잘 하실 테지만 士農工商이라고 보통 합니다. 결과적으로 企業이라는 것은 商이 크게 된 것이지요.

그랬다면 商에서 지금 그것보다 한칸 위인 勞働者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現代에서는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TV에 本委員의 눈에는 現代 것이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勞働者들은 단돈 몇萬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하면서 목숨을 잃어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번의 證人의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즐 것 웬만큼 주고 했다. 다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農業을 무시했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한칸 위인 農業 企業과 工業만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우리나라 干拓地를 막아서 農事를 직접 지울려고 하는 것은 現代 하나 뿐이다하고 전번에 몇몇히 말씀하셨습니다. 4,500萬坪 淺水灣干拓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現代化로 飛行機로 그것을 뿌리고 수확을 얻는다 했는데 모든 것은 앞에 계신 證人은 이번에도 外國을 나갔다 오시고 등등 하셨다시피 거의 專門性을 요구하는 것이 現代지요?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農事꾼들이 사실은 더 專門性입니다. 물론 經濟原則을 따진다면 飛行機로 뿌려서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農土가 적은 것으로 볼 적에 과연 이것을 農事꾼들에게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요?

○證人 鄭周永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 드리지요. 그 땅은 과거 5共和國 이전에 우리나라가 農土가 좁으니까 農耕地를 넓혀보자고 政府가 시도를 하고 여러번 했었으나 결국 거기에 모든 집도 짓고 設計도 다 했고 모든 것을 다 했으나 政府가 力不足으로 그것을 못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 생각이 우리가 오늘날 그땅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大型으로 만들어서 美國式으로 農事를 하면 美國쌀값과 한번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시도해 볼려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백년 후나 천년 후는 우리나라 건설한 農夫가 어느 農夫든지 그 좋은 땅에서 農事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땅을 나누어주어라 어쩌라 그렇게 조금하게 조르지 마세요. 일단 시도를 해서 美國的인 大型農事가 되겠느냐 이것을 먼저 시도를 하겠습니다.

○金 炫委員 제가 證人의 심정만을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現代는 저희들은 젊은 精神으로서 각자의 專門性을 찾아야 되고 證人도 日本을 할 수 없이 갔던 그것으로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盧武鉉委員의 質問중에 國會議員이 바지저고리다 해서 수정이 되었던 문제를 제가 그 당시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證人 鄭周永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國保委時節을 얘기한 것입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그것을 하나만 더 물어 볼 것은 日本을 얼마 전까지는 經濟大國이라고 해서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日本 젊은 사람들이 망쳐가고 있다 精神이 썩어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日本을 經濟動物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나쁜 점이 더 많다고 해서 좋은 점만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데 어느 나라고 어떠한 취약점을 잡으면 그런 문제는 다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日本 經濟를 우리는 따라야하고 社會의 취약점은 우리가 미리 막도록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 炫委員 저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日本을 經濟大國이라고 부러워했다가 한 세대도 지나지않아서 經濟의 動物이라고 칭하게 되었고 그것을 외국에서 全世界에서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대충 그러나 할 수 없이 높은 기술에 의해서 도입은 되고 있지만 최대로 배척을 한다는 사실은 앞에 계신 證人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證人 鄭周永 그런데 金委員님 그런 것은 미래를 위해서 염려를 하는 것은 좋지만 나는 그렇게 봅니다.

日本 經濟를 우리는 본받을 점은 더 많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美國이라든지 日本이라든지 產業의 近代化가 많은 취약점과 우리 인류에 어떤 불행올 가져올 문제가 胎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아야하고 그 취약점은 우리 各分野 모든 專門家들이 예방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큰

걸음걸이조차 그 적은 취약점 때문에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제가 지금 證人이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대개 위론 올라 갈수록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남의 얘기는 대개 무시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와 모든 것을 자꾸 따져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계신 證人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차이는 世代差異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옛날 분들은 하나라도 있으면 안에다 속에 다 좋은 옷을 입으셨고 金銀佩物을 안에다 뒀을 수 있으면 감췄고 저희 젊은세대는 집을 팔아서 자가용을 사는 세대로 변해 들어갔고 活動力 있게 일하는 것을 原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農土를 돌려 줄 생각이 없느냐 現代에 있는 勞動者들에게 이런 準租稅形式 보다는 證人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그것을 생각해 줄 수 없느냐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또 비록 國保委시절에 國會議員이었지만 國會議員이라는 것은 國民의 돈으로 뽑은 것을 바지저고리라고 칭하는 등 이런 것들을...

○證人 鄭周永 國保委 시절에 立法委員을 國民이 뽑았습니까? 國民이 안뽑았습니다.

○金 炫委員 아 그러면 취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지저고리라고 하는 등 이런 것은 企業人 商業으로서 너무 심했지 않느냐 해서 日本은 經濟大國이었다가 經濟動物로 됐고 現代도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자부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래서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본 사항이 있습니다 韓國에 가면 東洋의 經濟魔王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계신 證人을 칭해서 얘기했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면 經濟王이라고 하지 않고 經濟魔王이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 이해가 안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共和國이 바뀔 때마다 時流에 따라야 했고 등등 했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드리며 전번까지 委員들이 물어 본 것에 대해서 時流에 물론 다르셨겠지만 6共和國 사람들 만나지 않고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하셨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까지 대답하신 것이...

○證人 鄭周永 여태까지 대답한 것은 과거도 똑같고 앞으로 몇 십번을 물어봐도 다 똑같습니다.

○金 炫委員 감사합니다. 質問을 마치면서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30代의 젊은 이입니다 특히 經濟에서 최고의 總帥로 계신 우리 大韓民國에서 總帥로 계신 분을 한편으로 존경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차점을 많이 봐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좋은 점은 배우면서 나쁜 점은 저 혼자 마음에라도 새기면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淵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民主正義黨 徐廷華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廷華委員 民主正義黨 徐廷華委員입니다.

지난 11月9日 聽問會에서 本委員이 證人께 몇가지 疑問點을 가지고 質問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健康上의 이유 때문에 質問을 못하고 此日彼日 미루어 오다가 이제 한달 좀 지나가지고 지금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質問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 중요한 각 證人들의 證言의 相異點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해서 몇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募金의 強制性 여부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證人들이 證言한 바에 따르면 그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張世東 證人은 強制募金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證言을 했습니다. 梁正模 證人은 強制性이 없는데 基金을 낸 사람이 그런 經濟人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 마디로 잘라서 證言을 했고 鄭壽昌 證人은 일부 強制的인 요소가 있었으나 전부를 강제라 규정할 수 없으며 사실 自發적으로 낸 그러한 企業人이 더 많다 이렇게 證言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11月9日 安秉珪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證人께서는 부분적인 強制性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때 證言하신 것에 변함이 없습니까?

○證人 鄭周永 예. 지금 여러분들 證言하시는 분들과고 저하고 差異點이 있기 때문에 質問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差異點이 생길 수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위치가 전부 다릅니다. 張世東 室長은 張世東 室長의 입장에서 그런 觀角으로 볼 수 있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鄭壽昌 證人은 물론 商工會總所 會長이지만 그분은 자기 會社 돈을 내는 분이 아니고 돈을 지워두는 측에 주욱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觀角에서 보더라도 強制性도 있지만 대부분이 贊成이 더 많은 것 같다 그것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의 위치 觀角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梁正模 會長은 자기가 또 어려움까지 당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強制性을 강조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한 것이나 지금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첫번에 그때 얘기한 그대로 날아갈 듯이 냈고 그 다음은 遺族을 위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한 100億을 募金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첫째에 15億냈으니까 계속해 내라고 자꾸 이렇게 물고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냈다는 것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는 사람 觀角이 전부 다른데 돈을 애써서 벌어서 내본 사람만이 돈을 애써서 번 사람의 심리를 압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애써서 벌어서 낸 사람의 심리다 나는 이렇게 證言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國家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자진해서 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진해서 내는 그 사람들 낸 名單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國民이 災殃을 당했을 적에 水災를 당했을 적에 年末 불우이웃 돕기 또 顯忠日에 그 遺族을 위한 날 얼마나 돈을 냈나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내는 것이 진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여건이 強制性이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徐廷華委員 좋습니다. 證人께서는 이 점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質問을 해 가기 때문에 다음 質問에 포함될 부분도 있고 또 國民들 입장에서 보면 訊問하는 사람이 반복 訊問해도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또 證人께서 반복해서 또 강조를 너무 하셔도 또 마찬가지로 같이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또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土地代金 6億5,000萬 원에 대해서 金東周委員도 얘기를 했읍니다라는 여기에 현저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張世東 證人은 代金 6億5,000萬원을 支拂하려고 하나 證人께서는 賦金도 내고 工事도 지금 實費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證人께서 돈을 받기를 사양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證人께서는 돈을 받겠다고 물어 본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고 다시 준 일도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領收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만 領收證까지 첨부해가지고 다 주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없다 이게 현저하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각자 위치에 따라서 조금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저하게 틀린 부분입니다.

○證人 鄭周永 그 부분도 현저하게 틀린 게 없어요 현저하게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土地代金を 받으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土地代金を 안 받겠다.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받으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土地代金を 안 받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契約書도 우리가 다 만들어 주고 領收證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틀리다 이런 관점으로다가 해석을 해 보면 틀리는 것 같지만 내가 볼 적에는 주겠다고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 받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안 받았고요 또 받은 것으로 領收證을 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한 사람 語感이 좀 틀렸는지 듣는 사람의 감각과 先入見이 틀렸는지 그것은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볼 적에 大同小異하지 큰 차이 없다 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徐廷華委員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證人께서 말씀하신 會議錄에 보면 그때 주겠다고 했다 하는 말씀이 그 당시에 아마 생각은 하셨지만 표현을 안하셨습니다. 여하튼 會議錄을 한번 보시면 분명하게...

○證人 鄭周永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를 몇번 강조했는데요.

○徐廷華委員 그 당시 그 事項을 제가 會議錄을 몇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은 오후에도 또 質問時間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工事を 하셨지요?

○證人 鄭周永 했읍니다.

○徐廷華委員 대략 工事金額이 137億인가 얼마 정도 됩니까?

○證人 鄭周永 그만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廷華委員 그때 日海에 있는 建物全體가 다 포함했읍니까?

○證人 鄭周永 전체가 다 포함했읍니다

○徐廷華委員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建物이 한 建物도 빠지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지금이라도 證憑書類..... 거기 가서 內譯書를 뒤져 보면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內譯에 다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徐廷華委員 迎賓館建物도 들어 가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 사람들이 명칭은 第1迎賓館 第2迎賓館 했는데 그때는 그저 자기네 편의상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工事內譯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서 契約을 했읍니다

○徐廷華委員 그것도 포함해서 거기 들어가 있다...?

○證人 鄭周永 예. 그리고 그후에 第1迎賓館 第2迎賓館 어찌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工事契約할 적에 그런 명칭 기억이 없습니다.

○徐廷華委員 그런데 契約書하고 示方書 이런 데 보면 그게 확실하게 迎賓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찾아 보고 確證을 지으려면 工事內譯을 보는 것이 제일입니다 內譯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조사해 보시면 확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徐廷華委員 그 다음에 86년에는 사실 좀 마지 못해 따라갔다는 표현을 하신 거지요?

○證人 鄭周永 예.

○徐廷華委員 그런데 鄭壽昌 證人の 얘기에

의하면 86年1月 理事會에서 우리 鄭周永 證人이 1年만 더 노력해서 財團機能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말을 證人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과거를 잘 몰라서 外務部에다 財團事務局에서 報告書 낸 것도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몰랐는데 놀랍게 秘密로 녹음을 했네요. 우리한테 녹음한다는 양해를 求한 일도 없습니다. 녹음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녹음했던 기록도 내가 전부 가서 보았습니다. 전부가 나는 거기에 문장 하나하나 치밀히 보면 전부 質問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하나 하는 質問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따져 보면 아는데 外務部에 신청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秘密錄音 했다는 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녹음했다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록입니다. 녹음했다고 만들어 놓은 기록도 자기네가 유리하게 내가 올바른 얘기한 것은 지워 팽개치고 저희한테 유리한 기록만 만들었는데 그런 기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도 그것을 찬동한다거나 또 좋다고 내자고 그런 식의 취지로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녹음을 자세히 했다고 그 사람들 만든 것을 봐도 그런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徐廷華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해주십시오.

○徐廷華委員 그 다음에 募金中斷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設立者가 募金을 中斷하도록 하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證人 鄭周永 두번째를 내고 모두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참 당혹스럽게 設立者가 또 내라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좀 그만두자고 이렇게 해서 그만 두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徐廷華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내신거는 어떻게...

○證人 鄭周永 글썽 設立者가... 그런데 또 뭐 얘기가 들려 오는데 반민은 내는게 좋다

그건 아마 理事長을 중심으로 그 주위 사람들은 理事會의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 建議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반민 내다 하더니 또 모이라고 그러더니 이왕이면 다 내자 이렇게 얘기가 된거예요 그래서 다 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만두자고 한 것은 設立者가 표시한게 사실인 걸로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徐廷華委員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신 것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時流에 따른다는 그런 표현을...

○證人 鄭周永 예.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내게 사실입니다.

○徐廷華委員 그 다음에 지난번 沈完求委員 訊問에서 日海財團과 峨山財團을 구분해가지고 얘기하면서 證人께서는 日海財團은 著名人士들을 불러다가 광치는 團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광치는 團體라는 이 표현이 저속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실한 뜻이 어떤 겁니까?

○證人 鄭周永 예. 時間이 바쁘다고 빨리 답을 하라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한대로 그 표현은 확실히 저속한 표현인데 빨리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日海財團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무슨 外國 大統領지낸 사람 首相지낸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어찌구 저찌구 하기 위해서 호화스러운 것을 만들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빨리 표현하려니까 그것은 내가 불적에 日海財團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財團의 基本精神하고 잘못 된 것을 빨리 표현하니까 그렇게 표현한겁니다.

○徐廷華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證言을 하실때 나는 社會還元이나 還元이라는 얘기를 아주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만 寄附를 요청해서 寄附를 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社會還元이라는 것을 證人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證人 鄭周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企業이 일을 해서 利益이 많고 그 國家가 어려운 層을 도울려면 稅法을 만들어

서 稅金으로 많이 징수를 해가지고 國家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豫算을 많이 배분해야지 뭐 企業인들이 직접 번돈을 社會에 還元을 해라 내라 그러는 言論界 記事를 많이 봅니다 나는 그런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國民은 나라의 制度속에서 살고 制度에 의해서 稅金을 걷고 政府가 專門部處가 그런 일을 하는게 좋지 뭐 세상이 와와 떠든다고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그런식의 還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徐廷華委員 그런데 신문에도 많이 나고 國民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社會還元이란 이런 뜻은 원칙적으로 사실 資本主義國家에서 이 資本主義國家의 극치는 다 끌고루 잘사는 社會 아닙니까 너무 못사는 사람들이 현저한 貧富의 差異가 난다는 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大企業에서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이것을 稅金을 통해서 國家에 내는건 좋고 그거는 資源의 한계때문에 稅金이라는 어떤 法의 한계때문에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峨山財團이라든가 社會福祉機關을 만들어 가지고 社會에 還元하는 방법은 또 그 혜택이 끌고루 가지 않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이롭니다.

그렇기 때문에 大企業이 이제는 黑字經濟도 되고 좀 每年 돈이 남으면 그중의 일부를 大企業間에 全經聯같은 그런 機關이 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중의 일부를 發展의 혜택을 못입는 低所得層 都市零細民들 農漁民들 또는 勤勞者들을 위해서 어떻게 福祉惠澤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業은 영원히 불안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事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企業이 社會에 환원하는 것은 자기가 은퇴하고 事業을 그만 둘적에 그때에 남은 돈을 세금도 내고 모든 것을 다하고 남은 돈을 혼자 다 쓰지말고 그때에 지금 徐委員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쪽에 그렇게 하는 것이 事業을 하면서 社會에다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社會에다가 광을 치기위해서 무슨 財團 무슨 財團 무슨 財團만들게 하고 이제 안되겠으니까 政府에다가 지원을 해주시오 나

는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業은 영원히 불안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을 때 그 企業家가 성공했는지 성공못했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범양상선같은 것 그렇게 한때 누렸어도 비참하게 망해서 자살을 하지않았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企業家가 도중에 社會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않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事業에서 손을 떼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때 남으면 지금 徐委員님 말씀대로 다 社會에다가 모든 어려운 쪽에다가 환원하는 것이 좋지 도중에 하는 것을 나는 贊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될 수 있으면 政府가 稅金으로 모든 措置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資本主義國家든 社會主義國家든 목표는 똑같습니다. 社會를 균형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최종에 가서 우리가 해야지 도중에 하는 것은 위험스럽고 도중에 그렇게 하고 또 政府에 다다 會社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事業家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徐廷華委員 지금 證人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委員도 쏠의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會社나 企業이 망해가면서 社會還元이라든가 福祉惠澤이라든가 끌고루 잘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會社가 急成長해가고 있고 그리고 企業들의 상태가 좋을 때 企業의 每年 利益金의 일부를 社會에 다소 적은 돈이지만 社會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 환원을 하고 또는 福祉惠澤을 증용의가 없으시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하는 것이지 우리同胞가 어떤 水災災難을 만났다가 나 뉘를 만났다가나 그렇게 할 적에는 자기네가 企業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徐廷華委員 그러니까 본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言論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것이 全的으로 그르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徐廷華委員 그 다음에 中小企業問題를 지난 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中小企業과의 관

제가 90%정도 아주 완벽한 정도로 되어 있다. 상당히 잘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쁜 것처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納品을 하고 또는 大企業에 技術이나 資本이나 또는 信用이나 이런 것을 기대고 있는 中小企業들로 보서는 상당히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中小企業을 위해서 여러가지 立法活動도 하고 했읍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證人の 證言이후에 많은 中小企業인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또는 서신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선 固有業種 侵害입니다. 물론 現代는 다소 몇군데는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大企業들이 바로 固有業種을 침범해가지고 또 小企業이 가지고 있는 技術을 침범하고 그리고 代金支拂을 통해가지고 小企業을 흡수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상당히 大企業에 대한 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納品代金遲延이라든가 어음의 연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中小企業들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證人께서 現代그를 예는 상당히 理想的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中小企業인들이 이러한 고충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證人께서는 확실히 아시고 이들에 대한 固有業種侵害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大企業은 大企業이 갈 길로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鄭周永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中小企業하고 大企業 지금 말씀하신 대로 大企業이 代金を 제때에 안준다거나 여러가지로 大企業 입장에서 中小企業의 고충을 알아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中小企業하고 大企業하고 또 협조를 잘 해가지고 中小企業이 잘 성장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쪽을 항상 國會議員들께서는 도와주어야 하니까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韓國社會처럼 中小企業을 위해서

政策을 잘 하는 나라도 드롭니다 美國같은 나라 西獨같은 나라 日本같은 나라도 이것을 中小企業만 하지 大企業은 못한다 이렇게 갈라 놓는 나라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네 능력껏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것은 침범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늘 말하는데 우리나라 中小企業에 대한 行政처럼 世界에서 잘 하는 나라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日本 美國 英國이나 모든 先進國이 이것은 中小企業型이니까 大企業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야단하는 나라거나 行政規定을 짓는 나라는 우리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다보니까 침범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은 전부 漸進的으로 손을 떼고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 자신도 하고 大企業쪽에도 그렇게 調整을 하겠습니다.

○徐廷華委員 美國과 日本 다른 나라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는 원래 형성될 때부터 經濟體制가 완전히 自由經濟體制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60年代 70年代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선 나라가 부강하고 經濟發展을 하다 보니까 大企業중심으로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中小企業이 자꾸 살아나지 못하고 침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中小企業을 구분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中小企業을 위하고 貨出을 中小企業에 많이 해주어야 이렇게 國會에서 많이 떠들고 하는 나라도 아마 없으리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歷史的背景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時流를 자꾸 얘기를 해서 證人께서도 괴롭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時流에 따르고 앞으로도 그렇게 따라야된다.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보통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證人께서는 우리 企業의 元老이시고 가장 企業의 象徵의인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企業人에 앞서서 政治人의 한 사람으로서 政治人들이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責任感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통감하지마는 企業을 하시는 분들도 時流에 따른다 앞으로는 時流에 따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그냥 그저 아무 부담없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國民앞에서 또는 많은 觀聽者앞에서 時流에 따르는 것이 그저 바른 길이다 하는 표현이 이렇게 된다면 저도 政治人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責任感을 느끼고 우리 證人께서도 責任感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데 그 時流라는 단어를 갖다가 여러가지 음미를 하면 참 나쁘게 비칠 수도 있는데 또 좋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時代의 흐름을 우리는 時流라고 생각합니다 그 時代의 흐름이 상당히 좋으면 그 時流는 대단히 좋은 것이고 그 時代의 흐름이 나쁘면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할 탓인데 時流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時代를 왜냐하면 모든 분들은 다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時代의 흐름만 만들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時代의 흐름이 좋지 않을 적에는 몸을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면 요령껏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쁘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마는 그 時流는 우리가 그 社會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時代의 흐름을 잘만 형성하면 나쁠 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徐廷華委員 時流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時流라는 표현이 지금 證人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표현이고 그런 배경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國民도 납득을 하고 좋겠습니다마는 묘하게도 이 표현이 그렇지 않은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또는 그런 환경에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國民들이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否定的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글자 그대로 그 時代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時代의 흐름은 그 時代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흐름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徐廷華委員 마지막으로 現代「그룹」이 지금까지 커오면서 또는 財閥「그룹」들이 社會에 또는 이 나라 經濟發展을 위해서 대단히 공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企業들이 그렇듯이 상당히 銀行이나 기타 負債를 엄청나게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企業이 잘못된다면 企業人自體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책임은 그 부담은 國民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國民들 稅金이나 여러가지 措置를 통해서 결국은 一般國民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企業을 앞으로 우리 會長님께서 또는 證人께서 運營하시는데 國民의 企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인가 勤勞者들에게 또는 國民에게 돌아 간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國民들이 아주 싫어하는...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마는 不動產投機라든가 또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그마한 業體가 할 수 있는 固有業體를 침범한다든가 이런 事例를 통해가지고 國民들이 지탄을 한다든가 또는 미워한다든가 이런 현실이 있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大企業이 終局的으로는 國民에게 돌아 갈 것이고 勤勞者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證人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證人 鄭周永 예. 모든 企業은 그 企業家하고 거기에 일하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成長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과실은 給料를 통해서든지 賞與金을 통해서든지 다 골로루 배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企業體를 누구한테 환원한다 企業體는 영원히 經營者가 經營해야한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은 골로루 배분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徐廷華委員 企業을 經營하는데 專門經營人이 經營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企業의 企業主로서 親分關係나 또는 個人的인 관계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經營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극단적인 表現입니다마는...

○證人 鄭周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그 친척들이 經營하면 안

된다 딱 잘라서 이것은 專門經營人이 經營하면 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오늘날 世界 큰 企業의 盛衰의 光亡 그 흐름과 오늘날 진전하게 살아오는 모든 것을 불적에 계속 「포드」興 3세가 내려와도 世界 企業으로 屬傭이나 技術이나 國家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 「제너럴모터스」는 완전 專門經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會社가 다 오늘날 美國經濟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된다 이쪽은 안된다 나는 그렇게 斷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는 점진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 집안에서 우수한 經營者를 구하는 것보다 國家的으로 우수한 專門經營人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이것은 절대 안된다 나는 이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徐廷華委員 제가 극단적인 양 표현을 했읍니다마는 여하튼 企業을 大企業일수록 經營을 잘못 해가지고 倒産된다든가 또는 不渡가 나는 경우에는 결국은 國民들에게 被害가 돌아옵니다 그런 被害가 안 돌아 오도록 잘 經營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經營에도 책임이 있지만 國家政策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완전히 經營者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그것이 不實해지면 나라가 不實企業을 整理한다 이렇게 나오면 國民에게 결국은 그 負擔이 가는 것입니다 죽든 살든 刑務所에 가는 企業人이 책임지게 만 하면 國民에게 被害가 돌아가는 것은 극히 적어진다 나는 이렇게 믿고 事業을 하는 사람입니다.

○徐廷華委員 訊問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徐廷華委員 訊問이 끝났읍니다.

첫번째 訊問에 나섰던 金東周委員도 그러시고 또 徐廷華委員도 소위 鄭周永證人에 대한 時流論에 대해서 저희들도 경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난번 聽聞會때와 金東周委員訊問에서 이 時流論에 대해서 우리 鄭周永證人께서는 時流에 따라야함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座右銘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徐廷華委員 質疑에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時流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같아서 저희들한테 혼동이 왔읍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부에 이 사람이 지적한 우리 企業들이나 우리 政治들이나 우리 國民이 時流라는 것은 옳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 時代의 時流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옳은 主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많은 國民이 지켜 보고 있고 또 우리들 보다도 후세들이 이러한 얘기에 도취된다든가 이러한 思想에 커나오는 思想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司會者로서 외람된 指摘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鄭周永證人에게 제가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時流에 따라야만 되는 것인가? 나쁜 時流가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 전부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平和民主黨의 林春元委員이 訊問해주시기 바랍니다.

鄭周永證人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證人 鄭周永 감사합니다. 간단히 대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그 時代의 잘못된 時流는 안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편히 살기 위해서 時流를 따랐다 그것은 물론 어떤 限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時代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고 그것을 누가 따르든지 잘되면 좋는데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드는데 따랐다 하는 것은 따르 사람도 잘못이 있다 이것을 指摘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을 편안하기 위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좋다고 나는 장려를 하는 생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林春元委員 平和民主黨의 林春元委員입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 經濟界의 元老이신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國民들은 진실하고 성실한 經濟界 元老들이 健在하고 계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전 同僚委員의 質問에 證人은 國民들로부터 비난은 받고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本委員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現實은 꼭 그런 것만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가난을 이기고 오로지 남들이 잠잘때 자기 아니하고 남들이 好衣好食할때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財産에 우리 國民들이 讚辭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證人의 경우 근검절약해서 모은 財産은 限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經濟規模가 넘으면 그것은 내것이 아니고 우리 國民의 것이고 이 社會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證人은 이 點에 同意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적은 財産은 근검절약해서 모으고 그 다음에는 크게 되는 것은 그사람의 公信力으로 커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證人은 지난 聽聞會에서 日海財團의 基金募金經緯와 募金過程에서 強制性 與否 그리고 政經癒着등에 대해서 證言한 바 있습니다. 證人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要約해 드리면 아까 다른 委員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처음 100億대까지는 主導的으로 할당도 하고 노력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또 時流論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強制性에 대해서는 그 額數가 늘어남에 따라 힘겨웠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反對給付나 利權을 생각해 보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強制性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同意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예. 同意합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은 日海財團의 理事會 會議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證人에 관해서 중요한 事項을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證人은 寄附金出捐에서 1·2次때와는 달리 3次때 즉 86年度分은 내는 것이 편히 사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냈다고 그했습니다.

그런데 會議錄에 보면 86年1月15日 2次 定期理事會에서 86年度 事業計劃및 豫算에 대한 討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證人은 長期豫置한 基金을 찾아쓰면 향후에 財團運營에 곤란할때니까 財團運營을 위한 基金을 모으자고 提案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公式會議錄과

證人의 證言이 相反되는데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 것이 어느 會議錄에 있습니까? 그것은 녹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去頭戩尾하고 그 녹음한 그 기록을 한번 林春元委員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質問을 했습니다. 많은 質問을 했고 어쨌든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質問이 거기에다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林春元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證人 鄭周永 나는 그 녹음을 누가 뭐 保安司에 있는 사람이 녹음을 했는지 누가 녹음을 했는지...

○林春元委員 저희는 녹음은 모르지요. 日海側에서 내준...

○證人 鄭周永 녹음을 한 것을 報告書에 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林春元委員 報告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會議錄에...

○證人 鄭周永 그런데 外務部에 낸 報告書 그런 것 公設理事會에서 한 얘기가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證人 鄭周永 아니 거짓이다가 아니고...

○林春元委員 그런 말씀하신 일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證人 鄭周永 그 얘기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네가 그것을 풀어쓰면 돈이 없어지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려 묻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돈을 더 내자 나는 역경기때문에 그것을 돈을 내자고 찬성해서 發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한번 갖다 보았어요 녹음을 한 것을 뭐래요. 그 녹음이 어디서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녹음을 들어본 일도 없지만 내가 불적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찬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日海財團의 數地하고 關連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張世東씨와 같이 땅도 보시고 領收證도 써 주고 돈은 받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그 땅은 規制에 묶여있어서 電子圖地로 쓸려고 했지만 못 했다고 그런 말씀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日海財團이 1.2萬坪쓰고 나머지를 證人이 쓸려고 생각했다고 하셨던 말이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뭐 그것은 1.2萬坪쓰고 나머지는 남아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데지 이렇게 생각을 한거지 뭐 그때 무슨 순간적인 얘기가니까 그때 무슨 쓴다 안 쓴다 그런 具體的인 생각은 안했지요.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財團이 들어서면 반드시 規制가 풀릴 것이고 그때에 후 땅이 남으면 그런 工場도 지을 수 있을테니까 그정도 기부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鄭周永 그때는 電子는 그때 우리가 거기서 電子를 할려고 그래서 建設部에 여러가지로 신청을 하고 문의를 해보았지만 그것은 안된다. 그것은 綠地니까 사실은 20%는 建物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規定대로 하면... 그래서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체념을 했습니다. 체념을 하고 그것은 峨山財團에 綜合病院들이 많기 때문에 醫料大學을 짓기 위해서 峨山財團 常務理事 이듬으로 낸 것이고...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時間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林春元委員 지금 證人께서 지난번 證書에 21億3,000萬원 정도가 勞動者에게 3年동안 現代建設에서 돈을 주지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 점은...

○證人 鄭周永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이 물어보았는데 저희가 참 轉換期에 우리 勞動問題가 크게 報道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勞動部에서 염려를 해가지고 우리 現代를 勞動查察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해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證人 鄭周永 글썽. 저는 자세한 報告를 못 들었는데 해결이 되었으니까 조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昨年 KAL 機 爆破事件 犧牲勞動者들중에는 現代勞動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證人께서 道義的 誠意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한사람에게 얼마씩 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 기억은 없는데요 그 때...

○林春元委員 주신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鄭周永 그때 KAL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에 참 우리 같이 일하던 사람이 中東에 가서 돈벌어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후한 慰勞金을 주고 또 그리고 葬禮도 치르고 지난번에 또 2次 우리가 追悼會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제게 時間이 좀 모자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묻는 까닭은 證人은 海外建設業體中에서 現代가 産業災害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周永 예. 産業災害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林春元委員 길게 말씀하시면 제 時間이 없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證人 鄭周永 간단히 하겠습니다

産業災害는 그 時代 그 國家의 형편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現代가 人員에 비해서 한 일에 비해서 産業災害가...

○林春元委員 그 比例에 비하면 별게 아니냐...

○證人 鄭周永 比率은 제일 적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여쭙어 보겠습니다.

財團이 그 동안 우리나라 보편적인 많은 大企業들이 勞動者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賃金이나 手當을 제때에 주고 勞動者들의 희생을 감싸주고 보살펴준다면 國民들은 大企業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肯定的으로 納得하실 것입니다.

비로 어떠한 財團들이 그렇지 않은 財團

이... 저는 꼭 證人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財閥이 있기 때문에 權力指向的이라고 國民들이 批判하고 있는 財閥의 生理를 의심하고 있다고 보는데 證人は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지금 林春元委員님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企業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同僚委員 質問에 日海財團의 工事に 관계된 答辯을 하시는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에 觸及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管理棟과 研究棟... 지금 資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棟을 建設하는데 132億에 現代建設이 85年2月25日 契約을 했습니다. 그런데 85年2月19日 建築許可를 받았을 때는 研究施設 1棟 第1迎賓館이라고 불리는 研究所 本部 1棟만을 許可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85年11月18日 設計變更時에 第2迎賓館 管理棟 正門 溫室 體育館 이런 것들이 增加되었고 그 바트 한달만인 12月20日에 竣工檢査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한달만에 도저히 竣工檢査를 해낼...

그렇게 지어낼 수 있는 귀신이 아니면 그런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契約할 당시에서부터 工事を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現場에서 하는 일이 서로 이렇게 양해가 되어가지고 일은 進行을 하고 書類整理가 그렇게 늦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聽聞會에서 證人は 定款變更事實에 대해서 이렇게 證言하셨습니다.

理事會에 나가는 했는데 無關心했기 때문에 定款變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出發精神을 말살하고 遺族도 없는 條項을 그 사람들이 削除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定款을 보니까 그런 事項이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日海財團에서 本 特委에 提出한 理事會 會議錄에 보면 84年9月25日 열린 第2次 理事會에서 崔順達씨가 報告하기를 당시 推進中인 獎學事業外에 國家安全保障과 平和統一을 위한 外交戰略研究 및 國家發展을 위한 諸般事項을 研究하는 것을 主目的事業으로 한다라는 말을 提議하자 出席理事 全員이 찬성해서 可決되었다고 이렇게 써 있고 또 한가지 84年12月3日 3次 理事會에서는 主目的事業을 研究事業으로 變更할 때에도 崔順達씨가 설명하고 附議하자 理事 全員이 찬성하고 可決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證人は 研究所 基本事業計劃 중에 經濟分野研究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產業經濟開發을 위한 經濟政策研究도 重點研究로 했으면 좋겠다고 發言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는데 이 記錄만 본다면 證人께서 無關心해서 몰랐다는 말은 혹시 틀리신 말씀이 아니십니까?

○證人 鄭周永 늘 理事會 결의를 滿場一致로 이렇게 記錄이 되어 있는데 어떤 提議를 理事長側에서 할 적에 대부분 모든 會議가 아무도 아무 말도 안하고 反對하는 意思가 하나도 없으니까 滿場一致로 되었다 이렇게 會議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17名 죽은 사람들이 거의다가 經濟에 관련한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의 꿈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데 왜 經濟애기가 없느냐 하는 얘기 한마디 물어본 것 뿐입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國會에서 國政監査등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現代「그룹」에서는 日海財團에 51億5,000萬원 새마을에 74億 새세대育英會 새세대심장財團 平和의 「댐」등에 數百億의 寄附金을 賦金으로 낸 것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記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證人は 寄附金을 내라고 해서 낸 것 뿐이고 反對給付나 利權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밑에 쪽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아까 자세하게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時間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全斗煥씨는 在任期間동안 쓰고 남은 政治資金이 139億원이라고 떠나면서 밝힌 사실이 있는데 그 동안 거둬들인 政治資金 總

額이 어떤 사람은 數千億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兆도 된다고 그러고 市中에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國民들은 그런 政治資金 모아준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慣例로 봐서 혹시 全經聯이 主軸이 되어서 혹시 이런 事業하는 분들이 그런 政治資金을 마련해 준 것 아닌가 이런 疑懼心을 國民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일 財閥總帥로서 이 점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돈을 냈다든지 혹시 그런 것 낸 일 없다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鄭周永 政治資金에 대해서 國民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政治資金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해보고 여기 나와서 대답하려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資料에 의해서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5共和國동안 現代가 損費處理한 內譯을 資料로 공개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 많은 것을... 日海에서 뭐가 꼭 필요해서... 그 많은 것을 일을 하려면... 우리 現代가 賣上이 1년에 10兆가 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만들어 냅니까?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損費處理한 내용만은 주실 수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 損費處理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現代하면 近40個되는 會社의 損費處理를 그것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꼭 日海 聽聞會에 證據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지적해주는것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저희 國會에서 다른 次元으로 그것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證人께 또 다른 측면에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國民들은 모든 分野에서 5共和國을 청산하고 民主化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民主化가 진전되면 經濟發展에도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證人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民主化 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말씀한 대로 民主化가 되고 이를테면 統制한다거나 官이 간섭하는 것이 없어진다면 經濟는 아주 기가 막히게 發展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믿고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은 수많은 곡절을 겪으면서 富를 창출한 證人과 같은 분이 성공함으로써 지금 고생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도 언젠가는 財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希望과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도 성공하기를 성원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證人은 일부 政治軍人들을 어떻게 하다가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또 실망을 산 일도 있습니다.

5·16이후에 朴政權과 밀착해서 蓄財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10·26이후에는 5共和國 勢力들과 밀착해서 이 나라의 經濟가 어떻게 되든간에 現代만 살고보자는 식으로 政經癒着을 통해서 이 나라 經濟의 道德性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혹 證人께서 간단하게 지금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第1共和國 李承晚 博士時代부터 조그만 中小企業을 시작해서 어떤 政權時代라든지 現代는 한 번도 후퇴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을 적에는 每年 30% 40%씩 성장을 했고 아무리 張勉博士時代 혼란하다고 그럴 때도 역시 30·40% 성장을 했고 우리는 어느 時代든지 후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성장했지 어느 政權의 德으로 성장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밀착해서 그렇게 한 일이 없다...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全經聯의 會長團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財閥「그룹」의 會長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證人 鄭周永 예. 會員이 비교적 큰 企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80年代에 들어와서 우리

經濟는 證人과 같은 經營主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보다는 勞動者들이 땀흘려 일했기 때문에 크게 成長했다고 보는데 證人도 거기에 同意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産業 近代化를 시작해서 工場이 모두 近代化된 후 우리 共和黨 時節 25年 그리고 第5共和國 8年 이것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노력했지만은 모든 勤勞者들이 자기 일한 만큼 받지 않고 적게 받고 일했기 때문에 稅金도 많이 負擔하고 高金利도 負擔하고 勞動者들의 功이 제일 크다고 나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林春元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營主의 立場에서 또 全經聯의 立場에서 80年代에 들어와서 5共和國下에서 企業을 經營할 때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묻는 까닭은 經濟4團體에서 80年6月4日에 國家 非常事態와 企業人의 다짐이라는 聲名書를 東亞日報 紙上에 發表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資料입니다.

이것을 發表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發表하라고 그래서 했습니까?

證人이 자청해서 發表하셨습니까?

○證人 鄭周永 예. 거기에 꼭 각 經濟團體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저는 常勤會長이 아닙니다.

그런데 事務局에서 政府機關에서 여러 經濟團體가 連名을 해서 이렇게 發表해달라고 하는데 會長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럿이 하는대로 따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하라고 해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까닭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13護憲措置를 全斗煥씨가 發表할 때에 그때는 證人께서는 全經聯의 名譽會長으로 계셨던 것으로 보는데 全經聯에서 4·13措置의 支持聲名을 發表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그 때와 같은 그런 경위로 發表하셨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 때가 언제입니까?

○林春元委員 4月13日입니다.

○證人 鄭周永 어느 해입니까?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證人 鄭周永 그 措置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林春元委員 4·13 옛날 憲法을 支持하는 그런 것을 全經聯에서 發表한 것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證人 鄭周永 當局에서 요구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아마 내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林春元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現代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 經濟力集中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現代 總 興信이 5兆1,390億입니다.

이 돈을 예를 들어서 180萬農家로 보면 政府가 發表한 것이 239萬원인데 戶當 農家 負債가... 이것을 다 償還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또 작년도 年末에 보면 現代 總 賣出이 16兆8,868億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89年度 總 豫算의 19兆3,000億에 비하면 이것을 國防費 6兆원을 빼고 나면 現代의 賣出額이 우리나라 總 豫算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經濟力集中 현상이라고 느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물론 經濟力集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集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發展을 저해하면서 방해를 하면서 자기가 했을 때 그런 용어는 적합하지만은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좀 커지는데 어느 것이 더 커지고 덜 커지고 하는 差別을 가지고 經濟力集中이 나쁘다 나는 그렇게...

그것은 왜 自由資本主義 國家가 均衡되게 會社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것이 있고 대단히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經濟力 集中이 나쁘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反覆
資料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財閥들은
數千億이나 그 많은 企業들을 相續하면서 相
續稅를 많이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니다.

이것은 政治權力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當然性이 있다고 보는데 庶民들은 집
한 채를 자식에게 넘겨줘도 꼬박꼬박 相續稅
를 다 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衡平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신 일 없으십니까?

○證人 鄭周永 제 자신은 모든 相續稅를 완
벽하게 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기 때문
에...

○林春元委員 그것과 관여가 되지 않는다?

○證人 鄭周永 法을 여기면서 안 내게 되는
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주어 보겠습니다.

現代에서 「파루아누기니아」에 나갔던 現代
勤勞者 93名이 저희 平民黨에 와서 36日동안
농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에 그 몇 千萬원을 現代에 요구했는
데 그것을 現代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日海에는 이 많은 돈을 냈다 이렇
게 國民들이 볼 때 現代를 과연 그 道德性
이나 倫理性으로 미루어서 잘하는 일이다 이
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林春元委員님! 그것 하나만
보실 적에는 現代가 대단히 각박하다고 이렇
게 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큰 企業이나 國
家は 理致에 맞는 돈은 얼마 커도 내야 하
고 理致에 안맞는 돈은 안 내는 것이 國家
나 個人的 集團에서는 다 같은 理致라고 나
는 생각합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理致에 안 맞
아서 줄 수 없었다?

○證人 鄭周永 예.

○林春元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면서 보니까 蔚山에 重工業이 워
농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報道를 보았습니다.

證人께서는 現代의 그 家族들에게 從事員들

에게 지금보다 가능한 한 후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이 日海財閥같은데 돈 내는 것보다 혹
시 더 時勢에 타당한 일이라고 지금은 생각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重工業이 罷業을 어제서부터 오늘 하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重工業의
지금 罷業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본들이 여러가지 타협
을 하기 위해서 130 몇 件을 냈는데 다
해결하고 지금 뭐 2件인가 3件인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報告를 받았읍니다. 그것도 오
늘 聽聞會가 있으니가 聽聞會에 나가면 이것
을 가지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테니까 좀 報
道를 받으시오 그래서 내가 報告를 받았읍니
다.

○林春元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본들의 가장 지금 爭點은 우리가 今年에
賞典金을 500%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今
년에 100%를...

○林春元委員 證人께서는 現代重工業에 대해서
는 그러면 나중에 資料로 주시고...

○證人 鄭周永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히나
解明을 하겠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證人 鄭周永 우선 물었으니까 그것은 모두
안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證人 鄭周永 그래서 100%를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韓國의 造船
業을 보십시오. 어느 造船所는 破産을 하고
어느 造船所는 몇 千億을 내주게 만들고 이
난리고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500% 賞
典金을 주겠다고 하는데 100% 더 내라고...
또 그것 하나만 100% 더 주는 일 없읍니
다. 그것이 우리 모든 社會 全體의 罷業이
됩니다. 그렇게 밀쳐도 500%를 주는데 농성
을 한다고 더 줄 것이냐? 그러나 농성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證人께서 말씀이지요...

○證人 鄭周永 아닙니다. 제가 아주 대답을...

○林春元委員 가만히 계세요. 제게 지금 시

간이 안됩니다. 자꾸 길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證人 鄭周永 그 본들도 그 理致를 알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릅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지금부터 要點만 대답해 주세요.

○鄭周永委員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는 國民이 걱정하고 委員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얘기를 하는데 다 合理的으로 順理的으로 다 해결이 잘 됩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證人께서는 要點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는 지금 時流얘기도 많이 했습니 다마는 이제는 國民앞에 日海財團問題로 社會에 物議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證人께서는 이제 사과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同意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日海財團은 그것은 主催하고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林春元委員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物議가 되었던 것은...

○證人 鄭周永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 내라면 돈 냈는데 뭐 國民한테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런 의사 안가지고 계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 분이 日海財團은 그 遺族을 위해서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나치게 크게 해 가지고 社會에 物議를... 미안하다고 責任者가 사과했는데 내가 무슨 사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後輩經濟人들에게 國會證言臺에 나서서 日海財團과 같은 데 돈 냈다 뭐 했다 해 가지고 여러 얘기 나오는데 대해서 後輩經濟人들에게 대해서는 미안한 이런 것을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무슨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同意 안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무슨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그 때 돈을 내고 내가 全經聯會長이다 이래서 聽聞會 나가서 많은 困辱을 치루었으니까 참고로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어 보지요.

그러면 現代의 많은 職員들과 家族 그리고

關係人들에게는 다시는 現代의 家族들에게 이런 일로 國會의 證言臺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그런 약속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5共이 權力型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權力型이 다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주의를 줄 필요도 없고 그것 되풀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오늘 本委員의 訊問한 것이 이 林春元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國會議員이 訊問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생하시는 920萬이나 되는 勞動者의 訊問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많은 庶民들의 어려운 속에서 그런 訊問을 했다고 證人은 이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第1의 財團로서 첫째 손꼽히는 財團의 總帥로서 이제 우리 中小企業人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보다 책임있는 經營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이런 聽聞會를 짧게 짧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훗날에 다시 證人을 과연 우리 모든 國民들이 다 존경할 수 있는 先輩經濟人으로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周永 감사합니다.

○林春元委員 本人의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民主正義黨 黃炳禹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炳禹委員 民正黨의 黃炳禹입니다.

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人間은 그 이하도 이상도 없다고 우리는 늘 얘기해 왔습니다.

이 聽聞會에 證人으로 출석한 모두가 聽聞會法에 따라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證人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黃炳禹委員 지난 聽聞會때 어떤 證人들에게 대해서는 次數를 변경하면서까지 徹夜訊問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鄭周永證人에게는 많은 委員들이 訊問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本人의 健康上 이유로 더 이상 證言할 수 없다 하여 돌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證人 鄭周永 예. 그 때는 제가 8日間을

斷食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돌려 보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炳禹委員 예. 또한 지난번 聽聞會에서 韓國의 財閥그룹會長들이 證人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때 일부 委員들이 被告나 무슨 罪人 다루듯이 人格을 冒瀆하면서까지 그 때 訊問한 사실이 있습니다.

例를 들자면 訊問을 하고 答辯을 요구하고는 答辯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答辯이 필요 없다고 하고 때로는 訊問인지 政治演說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로 訊問해 놓고는 答辯하지마라 예나 아니나 그것만 答辯하라 이렇게 우박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유달리 鄭周永 證人에게는 일부 委員들이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證人님 "님"字 부르고 會長님 "님"字 부르고 「우리 會長님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필요 이상의 禮遇를 했는데 證人께서는 왜 그렇게 禮遇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證人 鄭周永 저 黃炳禹委員님! 우리는 서로 이렇게 피차에 묻고 이것은 이 特委가 필요해서 저희를 불러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罪人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國會議員님한테 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會長님 하고 "님"字 붙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黃炳禹委員 그러면 오늘은 왜 그렇게 정 반대로 무슨 이유인지 정 반대로 그때 만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오늘 아주 각듯이 예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黃炳禹委員 예. 알았습니다.

證人은 지난 번 聽聞會에서 世宗研究所가 前職 國家元首들이나 초청해서 광이나 친다고 證言했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黃炳禹委員 그랬는데 88年2月16日 理事會 會議錄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證人이 말했어요. 분명한 것은 日海研究所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美國 日本 등 모든 나라들을 經營하던 사람들 말하자면 大

統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經營한다는 것은 大統領이나 首相을 말하는데 초청하여 참 소중한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言論에서는 내용이 대단치 않은 「프레스센터」에서 와서 얘기하는 演士들만 크게 취급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가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證人이 지금 와서 日海財團을 外國元首나 불러서 광을 친다고 한 것은 證人의 價値觀마저도 時流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 證明되는데...

○證人 鄭周永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묻는 뜻이 目的이 어디있는 것인지 제가 파악할테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黃炳禹委員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고요.

그 때는 그렇게 會議錄에 적혀 있는데 證人이 말한 것이...

○證人 鄭周永 어느 會議錄에 적혀있습니까?

○黃炳禹委員 88年2月16日 理事會에서...

○證人 鄭周永 그 會議錄이 外務部에 提出된 것입니까? 그리고 참석한 理事會 會議錄이 제...

○黃炳禹委員 理事會 會議錄에 證人이 참석해서 한 얘깁니다.

○證人 鄭周永 제 도장이 찍혀 있고 그것이 서류가 公式化되어 있는 서류입니까?

○黃炳禹委員 그렇지요. 公式化되어 있는 것이지요.

○證人 鄭周永 아니면 녹음을 한 것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黃炳禹委員 그 資料에 나와 있어요. 會議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證人 鄭周永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나는 기억나는 것은 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 더듬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애매한 이야기 같습니다.

○黃炳禹委員 그러면 한번 더듬어 보세요.

또 證人은 지난 聽聞會때 企業人이 時代潮流에 편승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잘못된 時流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鄭周永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時流는 용기를 내서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나는 좋지 않은 時流를 따랐기 때문에 좋은 것이 못되

어서 장려할 바가 못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黃炳島委員 알았습니다. 그 時流에 따라 힘있는 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經濟的 支援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아닙니까?

時流를 따라간다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經濟的 支援을 해준다 또 힘있는 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證人 鄭周永 經濟的 支援을 해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강력한 政府下에서 손해를 어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했다 이것입니다. 어떤 經濟的 私益을 본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黃炳島委員 日海財團에 어떻게 기부한 것이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예.

○黃炳島委員 그것도 時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黃炳島委員 權力이 退潮하면 또 다음 時流에 따라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아무튼 그 말은 經濟憲着으로도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證人 鄭周永 經濟憲着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黃炳島委員 좀들어 보세요. 時流에 편승한다는 것이 企業人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것이 經濟憲着으로 非理의 온상이 된다고는 생각안합니까?

○證人 鄭周永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 의견은 제가 공감이 안합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聽聞會에 나와서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잘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黃炳島委員 그래요? 證人은 권력의 뜻에 따라 時流에 편승하여 日海財團에 가장 많은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自意든 他意든 時流에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日海財團에 대한 개념과 5共和國의 終末을 예고한 6·29宣言이후에 말하자면 6·29宣言은 말이죠 모든 5共和國의 체제를 否定하고 모든 非理를 단절하고 民主

化實踐이라는 위대한 歷史的 產出이었다고 생각하지요.

○證人 鄭周永 6·29宣言은 모든 國民이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黃炳島委員 그런데 證人은 6·29宣言前과 6·29宣言以後의 日海財團에 대한 개념과 시각의 차이를 가진 것이 어떠한 심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까? 차이가 있어요? 證人이...

○證人 鄭周永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黃炳島委員 證人이 말이지요. 6·29宣言前과 6·29宣言以後에 日海財團에 대한 證人이 가장 많이 出捐했고 또 證人이 主導的으로 역할을 한 日海財團에 대한 證人의 개념과 시각에 차이가 있어요? 6·29前과 6·29以後에...

○證人 鄭周永 개념과 시각의 차이는 없는데 그때는 말을 못한 것 뿐이라고 6·29宣言이후는 말을 한 그 차이 밖에는 없습니다.

○黃炳島委員 그것이 바로 時流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그러니까 사람은 말해서는 안될때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안할 때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黃炳島委員 글썽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말한 것처럼 6·29前에는 말을 못했고 6·29後에는 말할 수 있었다 企業人으로서 그것이 바로 時代潮流에 순응하는 企業倫理라고 證人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倫理까지 얘기 안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편하다고 내 기준으로 얘기했지 國民倫理까지 거창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黃炳島委員 그래요.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을 볼때 오늘날 우리나라 第1企業의 총수로 성장한 證人이 이 聽聞會에서 證人이 證言한 것에 상관없이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日海財團의 非理에 직접 간접으로 깊숙히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黃炳島委員 책임이 있지요?

○證人 鄭周永 관여해 있습니다.

책임을 무엇을 따지는지 모르기때문에 그 對答은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관여했다 이렇게 對答할 수가 있습니다.

○黃炳島委員 그렇다면 5共和國의 각종 非理

가 엄숙히 심판되어 歷史의 장에서 사라져 가는 이 시점에서 證人의 그러한 企業倫理觀이 성실히 정도를 절어가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農漁民 勤勞者 그리고 많은 國民들을 그러한 企業倫理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무슨 農漁民 勤勞者 그렇게 거창하게 複合的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뭐라고 對答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黃炳禹委員 農漁民 勤勞者가 왜 거창하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鄭周永 거창하지요. 그것은 政治하는 분들한테는 간단하지만 우리 企業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 목표의 의무만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거창하게 總括的으로는 생각을 안해 보고 삽니다.

○黃炳禹委員 오늘날 말이죠. 現代「그룹」이 그렇게 성장한 자체가 勤勞者의 피와 땀의 댓가로 성장했습니다.

○證人 鄭周永 땀으로 성장했고 피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黃炳禹委員 맨 마찬가지예요.

○證人 鄭周永 천만에요. 되하고 땀은 다릅니다.

○黃炳禹委員 그런데 지금 農漁民 勤勞者에 대해서 거창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企業倫理를 과연 國民들에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그런 企業倫理가 國民에게 납득하고 안 납득하고는 생각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黃炳禹委員 그래요?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黃炳禹委員 그러면 證人이 말하는 企業倫理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성실하게 자기의 노력으로 그 나라 모든 法律에 맞추어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고용을 증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 나라 稅源을 확대하고 그 나라 자기가 맡은 분야에 공헌하는 것이 企業倫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黃炳禹委員 마지막으로 證人에게 부탁입니다.

앞으로 이 現代「그룹」이 말이지요. 이 나라 屈指의 財閥인 現代「그룹」이 앞으로는 그 財閥이 國民을 위해서 좋은데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證人 鄭周永 예. 委員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12時 35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鄭周永證人에 대해서 訊問하실 예정된 委員이 지금 張慶宇委員 李東根委員 두분이 계십니다. 시간으로는 지금 35분부터 訊問을 하셔도 약 한 두委員이 30분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마치고 시장하시더라도 다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朴進球委員 約定된 시간대로 합시다.

○委員長 李基澤 約定된 시간은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洪熙杓委員 20分 소요되니까 끝내고 해요.

○委員長 李基澤 20분이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끝내고 해요」하는 이 있음)

끝내자고요. 그럼 平和民主黨 李東根委員

訊問 계속하여 주십시오.

○李東根委員 平民黨 李東根입니다.

조금 아까 앞선 委員들의 質疑에 대한 鄭證人의 答辯과 관련해서 우선 하나 묻습니다.

鄭證人께서는 同僚 徐廷華委員의 社會還元과 관련한 質問에 대해서 會社는 制度속에서 稅金등의 次元으로 社會衡平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同僚 金東周委員의 錦江휴게소와 관련한 特惠를 묻은 質問에는 政府가 주도해 만든 法이 부당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證人 鄭周永 아니요. 그것은 對答이 착각인지 그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錦江遊園地 만들적에는 모든 行政指示에 따라 만들었고...

○李東根委員 잠깐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조금 형태는 변경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말씀하신 요지가 會社는 制度 속에서 稅金 등의 次元으로 社會衡平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徐廷業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 말씀으로 하셨고 다음 金東周委員 말씀하신 가운데서는 政府가 만든 법이 부당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證人 鄭周永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좀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잠깐...

○李東根委員 그럼 이 얘기와 비슷하다고 하십시오. 핵심이

○證人 鄭周永 아닙니다. 얘기를 정확히 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鎭江遊園地는 지금 2·30年前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의 政府의 法規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쪽 그때그때의 규정대로 했고 政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한푼이라도 못 받았을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받았으면 받을 수 없는 고지서를 떼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서 國民은 그때그때의 법에 의해서 지키고 살지만 약에 법이나 규정이 있는데 못받아 갔을리도 없고 안내고 배겼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가 잘못된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根委員 그런데 그 말씀이나 제가 듣고서 이해하고 지적하는 것이나 오십보 백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지로 불적에 제가 이해한 요지로 불적에 證人께서는 한편으로는 制度를 강조하시고 또 한편으로 制度의 대표적 범주인 法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證言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듣는 분의 어떤 先入觀에 의해서 그렇게 듣지 않았나 저는 느낍니다.

○李東根委員 그런데 여기서 크게 일탈하지 않는 것인데요. 惡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 뜻 하나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주 관련이 없습니다.

○李東根委員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證人 鄭周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法을 안지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답하는 것인데 내 생각은...

○李東根委員 證人! 좋아요. 그런데 一般庶民들은 惡法이라도 지켜야 하고 과도한 徵稅를 저항만 한다면은 押留같은 이런 強硬措置가 발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鎭江휴게소의 경우는 왜 그런 強制的 措置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政府가 받을 고지서를 떼었는데 못 받았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企業이 내야 될 고지서를 안내고 배겼을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고지서가 잘 못되었거나 이랬지 어떻게 稅法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李東根委員 자 좋아요. 이 문제는 本委員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우선 鄭周永 證人에게 한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證人과 趙成熙 梁正模 崔順達 證인들이 證言 했듯이 日海財團創立總會는 靑瓦臺 警護室에서 열렸고 나머지 기타 사오차례 理事會는 전부 三淸洞 安家에서 열렸다고들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내 기억으로는 靑瓦臺 警護室에서 한 것밖에는 기억이 없고 三淸洞 安家에서 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간 사람들...

○李東根委員 靑瓦臺 警護室에서 열렸던 것은 맞지요? 創立總會가요?

○證人 鄭周永 예.

○李東根委員 좋아요.

○證人 鄭周永 理事會를 한 것은 그것뿐이지 뭐 安家에 가서는 누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李東根委員 그런데 證人! 오직 張世東 證人만이 모든 理事會가 전부 三淸洞 安家에서 열렸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證人 鄭周永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李東根委員 그가 僞證하는 있는 이유도 모르겠습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僞證하고... 그런 것 나

한테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李東根委員 보세요. 이 文書 日海財團의 會議錄입니다.

日海財團에서 國營에 제출해온 會議錄인데 거짓인 虛僞인 張世東證人의 말대로 첫장을 보면 그 場所를 보면 서울시 鍾路區 三清洞 145-18이라고 돼있습니다.

83年11月25日 創立總會하고 그 이후에 85年 까지 네차례의 理事會가 모두 三清洞 145-18 소위 三清洞 安家에서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日海財團에서 作成한 會議錄은 全斗煥씨 張世東씨등 靑瓦臺가 日海財團에 깊숙히 關여한 사실을 은폐키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張世東證人은 말이죠. 이 조작된 會議錄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 證言을 통해서 創立總會가 三清洞 安家에서 열렸노라고 證言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本委員은 張世東씨의 僞證도 문제지만 말이죠. 日海財團創立總會의 會議錄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83年이후의 日海財團 關聯帳簿書類등이 모든 것이 87年이후에 조작 작성되어졌다는 그간 우리 特別委員會의 심증이 바로 이 公文書의 僞造事實확인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 자리에서 진실로 판명되는 순간입니다.

○證人 鄭周永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는 왜 하십니까?

○李東根委員 한가지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지난번 證言을 鄭周永證人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鄭證人! 證人은 적어도 形式的으로는 日海財團의 城南市 始興洞일대 15萬餘坪의 땅을 6億5,000萬원에 日海財團에 賣買를 했고 그 代金을 日海財團에 寄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證人 鄭周永 예. 안받았습니다. 안받았으니까 結果的으로 寄附한 것이 됐죠.

○李東根委員 寄附를 했지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證人! 그 땅은 말이죠. 9萬餘坪은 現代建設會社땅이고 아까 지적된 대로 나머지 6萬坪은 이명박씨 이영기씨 윤주익씨 김정호

씨등 現代社員들 個人所有 땅입니다.

이것은 財閥의 땅投機를 위한 名義僞裝分畵의 典型的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本委員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땅投機를 하기 위해서 典型的으로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해 본 일이 없어요. 그 企業은 땅을 확보하는 그때 그때 어떤 제한이 있으면은 그 制限을 피해서 쓸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한 방도를 택한 것뿐이지 投機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李東根委員 알겠습니다. 당시 現代建設會長이시던 證人께서 個人名義의 所有土地를 日海財團에 賣買키 위해서 現代建設의 이명박씨등 個人名義의 土地를 買入해서 그 土地를 買入해서 日海財團에 파는 형식을 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證人 鄭周永 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실지로 편의상 그 사람들 名義를 쓰고 돈은 전부 내가 냈기 때문에 그 편의를 꼭 취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그 法律은 모르겠습니다.

○李東根委員 賣買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土地 買入代金은 現代建設會長인 證人께서 받으시고 個人名義者들은 所有權을 日海財團에 넘겨주었으니 結果的으로 이는 橫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證人 鄭周永 橫領에 해당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도 橫領했다고 고소하는 사람이 여지껏 없는 것을 보면 橫領안한 것이 분명합니다.

○李東根委員 賣買를 했다면 그런 形式을 취했다면 이명박씨등 現代建設職員은 讓渡稅를 내고 現代建設측은 取得稅 등을 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未登記 轉賣로써 다시 말씀 드리면 稅金逃脫에 해당한다고 本委員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登記되어 있는 그것은 다 稅金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根委員 그 稅金이 아니고 말씀을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네들 땅을 매입을 해서 日海財團에다가 파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양측이다 脫稅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鄭周永 脫稅한 것이 없구요.

왜냐하면요 寄附金 措置를 한데 대해서 稅 金을 낸 것이...

○李東根委員 다음은 또 15萬坪 가운데 現代 建設側 소유인 9萬餘坪 경우만 보더라도 證 人은 張世東씨로 부터 말이지요.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았건 안받았건 간에 土地賣 買代金を 즉석에서 寄附한 결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사전에 말이지요. 現代建設 9萬餘坪 땅 얘기입니다. 現代建設 財產을 經營人인 證人이 內部 理事會의 決議도 없이 말이지요. 寄附한 것으로 됩니다. 會社의 經營人이 말이지요 사전에 會社의 內部 決議도 없이 證人께서는 財產을 처리하였 으니 이것은 公金橫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전연 그렇게 해당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現代建設 이름을 鄭周永會長이 썼다 이거지 現代建設 돈이 나가고 안나가고 理事會나 그런데 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李東根委員 마땅히 賣買가 되어야 됩니다. 個人 명을 사들여 가지고 日海財團에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稅金을 물으시고요. 그렇게...

○證人 鄭周永 나는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외형상 書類措置 한 대로 稅務署에 稅金이 다 납부되었기 때 문에 무슨 횡령이니 뭐니 그렇게 어렵게 해 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李東根委員 證人! 결론적으로 말이지요. 이 점에 관해 결론적으로 조금 더 미진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 피차가 對質 때 연장하 기로 하고요 이 대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지요. 本 委員이 日海財團敷地의 買入過 程에서 말씀이지요. 鄭周永證人께서는 稅金逃 脫 혹은 公金橫領에 해당하는 脫法的 行위를 자행했다고 보고 있으며 말이지요. 그리고 財閥과 權力 사이에서는 말이지요. 일반 서 민들의 財產權 형성시하고는 달리 말이지요. 徵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非理를 극명 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또한 財閥의 토지 위장분산의 대표 적 實例라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李東根委員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 실은 그런 非理나 그런 생각은 계획한 일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고 실지 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李東根委員 잠깐요. 訊問中이에요. 議事進行으 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友黨 民主黨에서 시간이 오바해서 오 후 시간과 관련하여 委員長께 報告드린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지금 저에게 배당된 게 15분 이었는데 10分以內로 마쳐달라는 독촉 말씀 인데 오후 시간과 관련지어서 本委員이 15분 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基澤 지금 이런 시간 자체가 아 까운 시간의 낭비율시다마는 그것은 李東根委 員이 오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金東周委 員은 民主黨에 할애된 전체의 시간을 혼자서 다음 訊問者인 姜信玉委員의 양해를 얻어서 35분을 그대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政黨別 배정된 것이 고 전체 시간이 오바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 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根委員 그러면 한토막만 남았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전 時間은 제외해주시고요.

다음 證人께서는 지난번 本 聽聞會때 日海 財團 寄附金을 證人 個人돈에서 낸 것이 아 니고 現代그룹系列會社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 을 받으신 후에 損費處理하셨다고 밝히셨습니 다. 맞지요?

○證人 鄭周永 예. 맞습니다.

○李東根委員 또한 證人은 그 많은 돈을 勤 勞者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產業平和에 도움이 됐을텐데라는 同僚委員의 訊問에 寄附金이라는 것은 勤勞者의 몫을 침해 한 것이 아니라 株主들의 配當金에서 모아진 것이라고 答辯하 셧습니다. 맞지요? 株主들의 配當金에서 모 아진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지금 이렇게 봐야 돼 요.

株式會社라는 것은 그-經營陣이...

○李東根委員 좋아요. 지난번 것을 확인했으 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證人 鄭周永 아니 무엇을 내든 어쨌든 그 企業의 發展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적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李東根委員 물론 本委員은 말씀이지요. 그 寄附金은 勤勞者의 몫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는 證人의 말씀에 同意하지는 않습니다마는

寄附금이 株主들의 配當金에서 모아진 것이라
는 證人의 말이 옳다고 가강을 한번 해봅시
다. 그렇다면 寄附금이 株主들의 配當金에서
충당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입
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이렇게 생각...

○李東根委員 아니 지금 訊問입니다.

한 會社의 經營人으로서 證人께서는 株主들
에게 돌아갈 配當金을 그렇게 자의적 독단적
으로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證人은 日海財團 寄附金과 관련해서 株主總
會를 열거나 해가지고 株主들에게 동의를 구
한 바가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몇 가지 質問을 다 하려면
잊어버려서 答辯을 제대로 못 하니가 거기까
지 우선 答을 하고 또 물어 보시면 어때요?

○李東根委員 시간독촉해도 없는 것은 아니겠
읍니다마는...

○證人 鄭周永 제가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를 딱 불 적에는 일단 그만치
돈이 나가니까...

○李東根委員 그러면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
을 드릴게요.

寄附金の 성격이 證人께서 配當金에서 모아
진 것이라고 證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株主들에게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하는 말
을 答辯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나
갔으니까 그만치 그 해의 순익이 줄어드니까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불 적에 經營者의 모든 행
위는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손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불 적에 재난을 면하고 이익이
된다고 불 적에는 무슨 행동이든지 하고 株
主總會에서 報告를 하고 株主總會에서 株主가
공격을 하면 공격을 받고 납득을 시키려면
납득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한 權限은 經營
者가 있습니다.

○李東根委員 잠깐! 이 書類요. 現代建設株
式會社의 監査報告書입니다. 아시겠지요?

○證人 鄭周永 예.

○李東根委員 여기 보면 寄附金欄에 보면 營
業外費用欄에 그 가운데 寄附金에 보면 83年
度에 寄附金이 21億 82年度에 36億 그런데

日海財團이고 이해재단이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러니까 그것은 李東根委員님
이 잘 모르십니다.

現代建設에서만 내라는 법이 없습니다.

○李東根委員 예. 뒤에 나옵니다. 뒤에 말씀
드리겠어요.

○證人 鄭周永 내가 株主로 되어 있는 영향
력 있는 데서 가장 여유가 있는 데서 내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조사는 정확히 하셨습니다.

○李東根委員 그런데 證人! 現代가 證人 個人
의 會社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證人 鄭周永 예.

○李東根委員 물론 證人이나 一家親戚이 大株
主로 現代系列서 몫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말이지요. 現代「그룹」 會社에는 少額
株主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李東根委員 결국은 말이지요. 小株主들의
配當分을 그들로부터 강탈한 결과라고 본다면
어떻게 對答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基澤 李東根委員! 이것으로써 訊
問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周永 答辯하겠습니다.

전혀 1錢도 강탈한 것이 없구요. 우리 現
代는 그 해에 이익이 적었을 적에는 우리
大株主는 이룰테면 5% 配當만 받고 小株主
는 10% 配當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
리는 필요 이상으로 小株主를 잘 위하는 株
式會社라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李東根委員 좋습니다. 委員長님 말씀대로
미진한 것은 오후에 證人과 本委員 사이에
다시 보완하기로 하구요. 일단 本委員 訊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民主正義黨 張慶宇委員
끝으로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慶宇委員 民主正義黨의 張慶宇委員입니다.
끝까지 마지막으로 訊問을 하게 되어서 整理
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證人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정리를 겸한 答辯으로 생각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기에 우리 5共特委에서
日海財團에 대한 聽聞會를 하는 것은 그 設

立背景 및 資金造成經緯에 대한 것을 따지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이 財團의 設立者인 全 前大統領은 이 財團設立의 취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承認하고 또 사과하면서 그 募金過程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착오와 또는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의 감독소홀이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證人을 포함한 기타 證人에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은 이 募金過程에 있어서 募金의 推進計劃이 어떻게 되었느냐 推進計劃에 참여가 누가누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두번째 이 推進計劃을 함에 있어서 企業의 募金이 強制性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이 되고 또 관련해서 企業體와 직접 접촉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鄭周永證人께 드릴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次的으로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마는 이 財團의 設立目的을 당시에 어떻게 판단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 設立目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첫번째 設立趣旨는 찬성을 해서 이 募金은 제가 주동을 했습니다. 우리 大韓商工會議所會長님을 모시고 같이 우리가 經團聯의 副會長團하고 같이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次때 취지도 그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의 뜻을 이룰 테면 經濟「팀」이 많이 돌아가셨으면 經濟「팀」 外務部長官같은 外務部長官... 그렇게 슬프게 죽었지만 그 뜻을 좀 연구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자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고 취지가 대단히 좋아서 첫번째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大統領께서 總裁로 계시면서 募金을 해가면서 돈이 첫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끝끝내 했는지 그것은 개개인한테 물어보시면 알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募金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또 목표가 여러가지로 크게 國家를 위해서나 크게 이렇게 變形되어 나간다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찬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목표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되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오늘날 이 聽聞會까지 열고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물어보시는 張慶宇委員님 말씀대로 본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만 하고 말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하다가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본인이 結論을 다 냈습니다. 結論을 다 냈는데 뭐 여기서 길게 時間없애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견차이가 아마도... 주도한 장본인이 그렇게 다 사과를 하고 그것은 명령을 위로 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감독까지 못미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다 끝냈는데 무엇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는지 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張慶宇委員 알겠습니다. 똑같은 事案에 대해서 각자 아까 證人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의 입장과 위치와 觀角과 판단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特委에 있는 많은 委員들은 證人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結論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우리 委員들이나 또 많은 본들은 이 부분에 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概念의 定立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證人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證人께서는 強制性的의 與否에 관해서 本委員이 알고 있기에는 여러 委員들이 訊問을 했지만 1次나 2次나 3次나 어느 것은 時流에 따랐다.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本委員 생각으로는 총괄적으로 포괄해서 말씀드린다면 최초의 순수했던 목적이 權力者에 의해서 目的變更이 되어가지고 그 目的變更이 된 사항에 상당한 經濟人들이 그 時流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政經癒着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본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아져있는 얘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저는 日海財團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財界巨木이시고 또 많은 經綸을 가지신 분이기에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의 政治는 매우 民主化되고 또 定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財界巨木답게 또 과거의 經綸을 가진 입장에서 앞으로 이 政治가 政經癒着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政經總着에 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周永 張慶宇委員님 말씀 쪽 하는 것이 대부분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政經總着이라는 것을 日海財團에 돈을 낸 사람이라고 갖다 부치는 것은 저는 동의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日海財團은 첫번에 그분들의 생계와 그분들의 英靈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草創期 필연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慘死가 생기지 않았으면 되었을 리도 없구요.

그것이 커지면서 각자가 견해가 전부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몇 사람 證人을 불러가지고 전부가 強制性이나 아니냐 그것은 아무도 자기의 주리에 지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생각이지 누가 전체를 통괄해서 斷案을 누구든지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 國會議員들께서 제대로 그 일을 하시려면 專門家 事務局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나는 어렵지만 強制性은 아니고 냐다 나는 할 수 없이 냐다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다 몇 사람 證言을 받아가지고 종합을 해서 결론을 보려고 하니깐 이렇게 자꾸 묻는 얘기를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政經總着과는 그것은 전혀 관계없다.

왜 그 돈은 낼 적에 자기네가 내는 것이 여러가지로 會社가 해 나가는데 그때 大統領을 모시고 事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냐지 어떤 私益을 바라고 냐다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체를 그렇게 내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張慶宇委員 證人께서 지금 日海財團에 관련된 말씀만 하셨는데요 本委員이 드린 얘기중에는 하나 빠지신 것이 있습니다.

一般的인 政治에 관련한 鄭周永證人으로서의 政經總着에 관한 견해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예컨대 예를 들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마는 日本에 있어서의 政經總着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美國에 있어서의 政治資金의 公團化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證人께서 아까 徐廷華 同僚委員의 質

疑에 말씀하시면서 事業을 하시는 분의 소위 事業觀이라고 할까 經營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利益金の 社會還元에 대한 문제를 政府가 거두어 들이는 稅金에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나는 이런 나쁜대로의 經營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政經總着에 관련된 문제로 많은 지금 의혹이나 문제점 계기와 시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政經總着에 관련된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證人 鄭周永 예. 알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經濟社會에서는 「매스컴」이나 또는 政治家들이나 흔히 政經總着이라는 얘기를 내가지고 國民들이 모든 企業이 부당하게 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 시대의 爲政者가 經濟人들 하고 자기의 政策을 설득을 시켜서 經濟人의 호응을 못 얻으면 그 나라 經濟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經濟政策은 國民의 호응을 얻어야 하고 또 經濟人들의 호응을 얻어야지만 그 나라 經濟는 발전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經濟人하고 政權에 대해서 저것은 政經總着이다 이렇게 자르고 어디까지는 그것이 아니고 참 좋은 일이다 하는지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社會는 돈을 罪惡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財閥이란 말은 罪閥이란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財閥이 아니고 罪閥이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社會가 우리 儒敎가 500年동안 내려오면서 淸貴樂道를 즐겼기 때문에 近代社會 우리의 企業은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海外에 나가서 戰爭하는 것 이상으로 방불하게 諜報戰을 하고 모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企業人이 聖職者나 牧師 또는 大學의 教授처럼 해가지고 우리나라 企業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턱대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政經總着이다 이렇게 몰아 세우는 것은 이 나라 발전에 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國家는 經濟人의 호응을 얻어야
지 그 나라 經濟를 發展시킬 수 있고 또
그 經濟人은 아주 못된 政策이 아니면 그
經濟政策에 호응해야지 그 나라는 發展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政經癒着이라는 그
單語가 좋지 않게 우리 政府나 우리 企業人
한테 못된 인상을 주도록 쓰여지는 것을 나
는 贊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說明이 비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張慶宇委員 알겠습니다. 잠깐 아까 그 다
른 委員님들 訊問에 答辯하시는 가운데 혹시
착각이 있으시지 않았나 싶어서 한 부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4·13措置에 대한 聲明發表에 관련해
서 證人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全國經濟人聯合會 名譽會長職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張慶宇委員 예. 그러면 아까 答辯中에서
當局에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기에는 證人은
당시 이 廣告가 나갈 때 87年4月頃인데 이
당시도 全經聯 名譽會長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내가 名譽會長職을 했
으면 나한테도 事務局이 물어보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 당시 會長한테... 名譽會長이라는
것은 文字 그대로 이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張慶宇委員 그렇지요? 名譽會長이셨기 때문
에 執行部가 廣告行爲에서까지 일일이 決裁를
받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이 맞지요?

○證人 鄭周永 예. 맞습니다.

○張慶宇委員 그러면 아까 그것은 착각에서
나오신 말씀이겠네요?

○證人 鄭周永 예. 제가 한 것으로 물어보
기 때문에 내가 했으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張慶宇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政治資金 또는 政經癒着에 관
한 證人의 견해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國會는 日海聽聞會분만이 아니고

이 政治資金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政治資金法이 새롭게
制定이 되었을 적에 經濟人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經濟人으로서의 과연 어떤 형태로
이러한 것이 만들어져야지 앞으로 이런 疑惑
이나 이런 문제가 안나와지리라고 생각을 하
십니까?

○證人 鄭周永 여기서 그것 제가 간단히 對
答할 수 없구요. 앞으로 政治資金法이 되면
저희 經濟界 사람들도 불러다가 같이 의견을
듣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베타간 그 얘기를 여기서 對答
할 수는 없습니다.

○張慶宇委員 알겠습니다. 訊問을 마치겠습니
다.

○證人 鄭周永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오늘 鄭周永證人의 訊問을
마치면서 司會者로서 한 두 서너가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財界의 代表的인 人士로서 그 時
流論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時間을 드렸습니
다. 이는 아주 불충분한 점이 많아서 문제의
餘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鄭周永證人의 본 뜻은 아니
리라고 봅니다. 이는 여러 委員들의 訊問에 企
業의 目的에 충실한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國家와 社會에 대한 그 企
業의 道德性이라든가 倫理性이 아주 稀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 是正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政經癒着部分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오신 鄭周永證人께서 무슨 強辯을
하시더라도 많은 國民들은 지금까지 政經癒着
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 미친 害毒도 크다
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時間을 가지고 서로 노력해서
訂正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鄭周永證人에 대한 個別訊問을 마
치고 오늘 午後 2時30分부터 鄭周永證人과
張世東證人 그리고 梁正模證人에 대한 對質訊
問이 있겠습니다.

鄭周永證人께서는 피곤하시지만 午後 對質訊
問에 꼭 參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10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午後 聽聞會를 續開하겠읍니다.

그러면 지난 11月 7·8·9日의 聽聞會에서 各各 證言을 한 바 있는 鄭周永證人 張世東證人 梁正模證人 이상 세 분의 證人에 대한 對質訊問과 證言聽取가 있겠읍니다.

證人宣誓에 앞서서 證人이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경우와 宣誓의 趣旨 및 處罰規定에 대하여 미리 證人에게 알려드리는 告知事項은 지난 聽聞會에서 各各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鄭周永證人 張世東證人 梁正模證人 세 분이 이 앞에 나오셔서 宣誓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周永證人께서 宣誓文을 朗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周永 (證人宣誓)

○證人 張世東 (證人宣誓)

○證人 梁正模 (證人宣誓)

○委員長 李基澤 證人席에 着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證人에 대한 對質訊問 要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日海財團의 寄附金의 強制性에 관하여 세분 證人間의 對質訊問이 되겠읍니다.

두번째는 日海財團 敷地 14萬坪을 鄭周永證人이 寄附할 意思가 있었는가의 與否와 그 범위에 관하여 張世東證人과 鄭周永證人間의 對質訊問이 되겠읍니다.

세째는 其他 關聯事項에 대한 세분 證人間의 陳述中에서 相衝된 部分의 對質訊問이 되겠읍니다.

對質訊問에 들어가기 전에 訊問하시는 여러 委員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對質訊問은 지난 11月7일부터 9일까지의 本 特委聽聞會에서 證言한 세분의 證人 陳述中에서 서로 相反되는 部分이 있다고 判斷되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事實인가를 가리지 않고서는 日海財團의 調查終結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분을 한 자리에 對面시킨 가운데 우리 特委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證人訊問에서는 對質訊問과 관련된 事項에 한하여 訊問하여 주시고 對質訊問의 性格을 띠지 않는 個別訊問은 可及의 으로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분 證人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對質訊問을 위해서 세분을 다시 이 자리에 出席要求한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서 세분 중에서 事實과 다른 證言을 한 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事案에 대해서 한 분은 白이라고 했고 한 분은 黑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다른 證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난번 聽聞會에서 真相과 다른 正反對의 證言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만은 기억을 정확하게 되살리셔서 事實糾明에 積極 協調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지난번에 虛偽證言을 했다면 오늘 事實대로 솔직히 밝힘으로써 偽證의 罪를 免하게 되기를 간곡히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對質 證人訊問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順序에 따라서 新民主共和黨의 金炫委員이 對質訊問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炫委員 新民主共和黨 金炫입니다.

對質訊問은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잘못 證人에게 전달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本委員이 지금서부터 質問하는 것은 速記錄을 그대로 引用해서 그 文句를 읽어드리고 正確性을 기하겠읍니다.

우선 첫째 現代敷地問題입니다.

당시 鄭周永證人은 張世東씨로부터 土地代金を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모든 書類와 領收證만을 떼어주었다고 했을 때 이는 15次 11「페이지」를 보면 그때 自發的으로 6億5,000萬원을 주고 사서 그냥 本人이... 鄭證人께서 사실 적에 6億5,000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돈만 받는 것으로 해서 領收證을 떼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나한테 보이면서 이 돈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받은 일도 없고 다시 준 일도 없다... 그냥 領收證을 써서 첨부해 주었다... 돈은 만져도 본 일이 없고 받으려 간 일도 없다

라고 鄭證人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張世東證人께서는 計算은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茶 한잔 나누면서 이것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당시 鄭周水會長 말이 내가 다른 誠金도 많이 내고 또 이 工事も 理事會에서 전부 다 나보고 맡아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工事も 利潤은 먹겠습니까 實費로 하는데 내가 6億5,000을 받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했다는데 이 말 두 분중에... 또 다른 분의 其他證人 얘기를 하면 金基桓씨는 領收證을 발부해서 敷地代金을 틀림없이 11月13日 支出했다가 12月19日 반환을 받았다고 速記錄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맞으십니까?

○證人 鄭周水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速記錄이 그렇다고 하는데 工事も 하는데 그 때는 그 土地할 적에는 工事は 計劃한 일도 없기 때문에 工事も 어떻게 하는 얘기를 내가 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으로 말했을 것이고 그런 얘기는 한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工事代金을 받으라는 얘기를 한 일도 없다고 그렇게는 얘기를... 돈을 받으라고 했는데 돈을 안 받겠다 그래서 賣渡證書와 돈을 받은 것으로 領收證을 써주었다 이렇게 對答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인지 記錄이 잘못되었는지?

○金 炫委員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먼저본 적도 없고 받으러 간 일도 없다 그 돈을 나한테 보이면서 이 돈을 받겠느냐고 물어본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다.

○證人 鄭周水 돈을 받겠느냐고 물어본 일이 없다... 돈을 받으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번 證言할 적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金 炫委員 速記錄을 그대로 複寫해 왔습니다. 速記錄이 거짓말은 아닐테니까요.

○證人 鄭周水 기억을 더듬어 얘기하니까요. 얘기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받으라고 한 일이 없다... 그것은 아마 여러번 얘기하는 동안에 돈을 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速記錄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돈은 분명히 받으라고 했는데 돈을 안 받겠

다고 했습니다.

○金 炫委員 張證人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보여주고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받으라고 했습니까?

○證人 張世東 元老經濟人이신데 또 이 앞에서 돈을 내고 去來하는... 그런 또 警廳室長의 職責이나 元老經濟人님과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하고 去來는 밑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내놓고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金 炫委員 아 됐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의 速記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對質訊問은 常識的으로 抽象的으로 한 마디라도 本委員의 意思가 들어가도 안되기 때문에 速記錄을 그대로 複寫해 온 것입니다.

돈을 갖다놓고 주려고 하다가 극구 사양하시기 때문에 이것 다시 넣어라 이렇게 해서 日海財團으로 다시 보냈다 이렇게 전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正確性을 기해야 하니까 돈을 갖다놓고 이것을 받으시라 하니까 극구 사양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修正하시겠습니까? 돈을 갖다 놓은 적은 없었나...

○證人 張世東 돈은 준비를 했죠. 돈은 준비를 했지만 보여드리거나... 내놓거나...

○金 炫委員 보여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이 문제를 확인하는 이유는 結果的으로 日海財團에 다시 보내진 것이 12月19日 約 한 달의 差異가 납니다. 한 달동안 누가 돈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證人 張世東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가지고 있었겠죠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갖다놓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 鄭會長님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鄭會長님은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時間으로 해서 그 뭐 1個月인지 며칠인지 그것은 아마 제가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金 炫委員 다음에 둘째번입니다. 財團設立 23億... 제일 첫번의 募金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鄭周水證人께서는 15次 會議 106「페이지」를 보면 大統領께서 자기 房에 불러서 쪽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經濟界에서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3億인가 寄附金을 모아서 遺族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후 그 다음에 財團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3億을 나누어주고 法人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張世東證人께서는 돈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75%의 稅金問題 때문에 어느 經濟人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其他證人의 이야기를 보면 당초 募金된 23億은 金基桓씨의 이야기입니다. 獎學事業은 누가 알기로 그 후에 着手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벌써 만들려고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고 세 가지로 證言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遺族들에게 23億을 나누어주고 財團을 만들었느냐 財團을 만들고 23億을 나누어 주었느냐?

○證人 張世東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그때 어느 委員님이 質問을 하셔서 또 金委員님도 그 당시 質問을 하셨습니다.

23億은 殉國하신 분들과 負傷者 또는 負傷에 버금가는 상황을 맞이한 분들의 慰勞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經濟人들의 성원에 의해서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서 이것을 基金化할 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나누어 줄 거나 하는 事項을 그것은 일단 秘書室에 전부 다 가서 秘書室에서 수석회의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나누어줄 것이나 基金化해가지고 과실금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惠澤을 줄 것이나 하는 것을 討議를 하다가 이것은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부 合意를 해서 일단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주려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贈與問題가 있고 지난번에 弔意金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弔意金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23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財團設立問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財團을 設立하게 되었고 돈이 모여져서 分配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財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財團을 만들려면 적어도 定款을 作成을 하고 거기에 任員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定款에 基礎事業으로 다섯 가지 事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獎學事業 기타

모든 事業에다가 研究所事業까지 일단 들어가고 概略的인 豫算...

○金 炫委員 됐습니다.

本委員이 묻는 것은 어쨌든 나누어주고 財團이 設立되었느냐 設立이 되고 나누어졌느냐만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張證人 말씀대로 한다면 좋은 일로 나누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어 주면서 財團設立을 동시에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예.

○金 炫委員 그렇다면 結果的으로 財團理事를 만들어서 어디에 申告를 해서 法的 期日 등등을 거쳐 나오다 보면 분명히 먼저 나누어준 뒤에 財團이 設立된 것만은 확실한 結論입니다.

그렇다면 結果的으로 이는 어쨌든 위의 權力權者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사실은 稅金逃脫에 해당됩니다. 法은 엄격한 것입니다.

날짜까지 따져야 되는데 해놓고 週及法을 쓴 것밖에는 안 됩니다.

윗 사람들이기 때문에 個人이 했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세째번 寄附金 強制性 與否에 대해서입니다.

鄭周永證人께서는 23億원을 자진해서 냈다 두번째는 냈다 세번째에는 어쩔 수 없이 냈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여기 그대로 速記錄을 읽어드리면 세번내기로 정했다 時流에 따라서 냈다고 하는데 사실이다 또 1次 2次는 자진해서 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냈고 그 다음 時流에 따라서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15次 會議 11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도 두번째는 그런 식으로 냈다고 여러 사람의 證人이 중복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梁正模證人께서는 強制性이 없다고 하나 1년에 100億씩 모은다 위에서 결정된 것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아닌들 理事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同意를 한 것인지요 하고 거꾸로 반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秘書官의 電話를 받고 3個月짜리 어음을 靑瓦臺 第2政務首席에게 전해 주었다. 오죽하면 3個月짜리를 끊어주었겠는가 그것은 自發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또 특히 準租稅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張致赫證人의 말도 있었고 그리고 李煥鎔 安賢泰 등을 자진해서 낸 기억도

있고 부득이해서 낸 사람도 있다고 그런 뜻이다 라는 말도 했고 요즈음 같으면 거절할 것 같다. 그 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安賢泰證人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데 張世東證人께서는 全般的으로 強制性은 절대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梁正模證人부터 그때 陳述하신 것이 맞습니까?

○證人 梁正模 예.

○金 炫委員 鄭證人님께서도 맞습니까?

○證人 鄭周永 한번 더 알려주십시오.

○金 炫委員 23億 제일 첫번에 걷은 것은 자진해서 냈다 그것은 같이 갔다 오면서 우려나서 냈다 2次까지도 100億정도 걷는 줄 알고 자진해서 분명히 냈다. 23億이 1次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年度 100億 걷을 때 2次까지는 냈다 3次는 어쩔 수 없이 냈다 4次는 時流에 따라서 企業인들이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 당시에 내 생각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金 炫委員 張證人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強制性은 전혀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證人 張世東 제가 말씀드린 그 事項 그대로입니다.

제가 1985年度 2月18일까지 警護室長을 勤務했습니다.

처음 23億은 殉國하신 분들의 慰勞金이었었고 그 다음에 세번에 걸쳐서 年度別로 經濟人들께서 贊助하신 것이 財團基金입니다.

제가 84年度에 基金問題는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저 있을 때 그것이 成立이 된 事項입니다.

○金 炫委員 그러니까 強制性이 없다는 것으로...

○證人 張世東 그 당시로 보아서는 저로서는 強制性이 없다 분명히...

○金 炫委員 지금 判斷하셔서 그 때로 되실려도 強制性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느끼셨을는지 몰라도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野人이

되신 입장에서 判斷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제 생각으로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말씀드릴 것은 價値觀의 基準에 따라서 생각나름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보겠습니다.

○金 炫委員 그럼은요. 證人에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共和國은 생기면서 12·12 5·18 言論統廢 음엄청난 不實企業整理 등등을 해왔던 것만은 지금 國民全體가 알고 그로 인해서 國會全體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죽 지나오는 동안 警護室長을 하시고 安企部長을 하였던 모든 情報에 능통한 분이 警護室 安企部 保安司 등등 특히 大統領이 理事長을 하고 있는 그런 團體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웃으면서라도 내지않으면 안될 그런 企業들의 섭리정도는 알으셨겠지요? 그 정도 判斷도 안되셨습니까?

○證人 張世東 答辯...

○金 炫委員 예. 答辯要求합니다.

○證人 張世東 그 당시 狀況으로 보아서는 우리의 分斷의 悲劇의 분노도 있었고 「아웅산」慘死에 대한 國民의 분노도 있었고 또 殘金... 殉國하신 분들의 家族들의 정말 참담한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金 炫委員 證人 잠깐만! 23億까지는 다 자진해서 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寄附金의 強制性을 묻는 것은 23億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뒤의 598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證人 張世東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시다라는 여기에 事業은 遺家族을 돕는 事業은 새가지로 分類됩니다.

家族의 生計費와 그 다음에 子女의 學資金 소위 獎學金 내지는 學校教育을 위한 支援과 또 殉國하신 분들의 遺志를 받들어서 이루지 못한 遺業을 우리는 기리는데 그 財團과 23億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23億으로서 일단 遺家族 또는 負傷者들의 慰勞를 일단 끝내고 두번째는 定款에 5個 事業을 넣어서 遺子女 獎學金 支給을 하도록 措置를 하였고...

○金 炫委員 證人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寄附金 598億을 걷는데 대부분 靑瓦臺警護室에서 걷어 들여서 張證人께서 일단 入手를 했었습니다. 그 基金에 대해서 強制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지 日海財團 그 문제는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다시 한번 答辯해 주십시오.

○證人 張世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日海財團 設立過程에 대해서 理事 就任問題에 대해서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鄭周永證人께서는 本人의 뜻에 달리지 않고 됐다고 되었습니다.

發起人으로 選任됐고 選任되었을 적에 됐다고 했는데 大統領의 누가 시켜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梁正模證人때문에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梁正模證人께서도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했지 자진해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證人 梁正模 예, 맞습니다.

○金 炫委員 맞습니까? 맞지요. 그것은요...

○證人 鄭周永 그런데 자진해서 나를 理事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金 炫委員 알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梁正模證人이 理事就任을 또 剝奪당할 적에도 도장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日海財團 全斗煥 大統領私邸化에 관한 문제에 서로 對質이 됩니다.

鄭周永證人께서는 民間出捐財團으로 定款을 고치려 하니까 현재 全前大統領이 任命해 놓은 理事들이 말을 안 들어 오늘날까지 對立狀態에 있는 상태다 하고 15次 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理事들 간에 日海財團問題를 두고 상당히 論難이 있었다 이를 삼일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全大統領 精神을 지키자는 側하고 民主社會에 발맞추어 가자 民間出捐財團으로 定款을 고쳐가지고 모든 것을 變身하자는 側이 있는데 내 비록 理事長이라도 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9宣言以後 새로운 理事陣을 전부 全大統領이

選任을 했고 거기에 우리 經濟界는 鄭壽昌會長 그리고 저 具滋曠 세 사람만 들어가 있어 理事權의 發揮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總裁에다 전부 全大統領이 信任하는 사람들로 任命되어서 이미 私邸化가 완전히 되어 있다 했고 그 뒤에 심지어 나머지 부분을 땅을 팔라서 좋은 쪽으로 私有로 넘겨 주자고 했습니다. 기타 證人들의 이야기는 全斗煥씨 개인을 위한 專用施設을 만드는 것만은 인정한다. 또 全前大統領 日海財團에 往來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豫測했었다. 第2迎賓館은 全大統領 그 쪽에 가셨을 때 말하자면 活動의 장소로 提供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나머지 證人들이 했습니다. 한때 張世東證人께서는 定款에 總裁職을 넣어 全斗煥씨가 國家元老會議 또는 自然人이 되더라도 聲援을 하기 위해서... 聲援을 하기 위해서 사실 計劃이었을 뿐 私邸化로 만들려고는 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읽어 드리면 최초 定款에 總裁라는 名稱을 가진 것은 그마만큼 假想的인 聲援의 뜻이 있었고 國家元老會議 또는 기타 自然人이 되더라도 學術狀況에서 統一을 위한 產室의 역할을 하는데 과거의 經綸을 거기에 쏟아 넣어서 間接的인 國家發展의 聲援이었지 全斗煥 大統領을 聲援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第2迎賓館 등은 外國사람을 招聘하기 위한 것이었지 私邸化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證人 張世東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것을 私邸化하려면은 가서 사셔야 됩니다.

寄居를 한다는 뜻입니다.

○金 炫委員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말을 고치지요 말을 고쳐서 묻겠습니다. 私有化...

○證人 張世東 私有化... 그것은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私邸化한다면 延聘網 집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金 炫委員 本委員의 실수입니다. 私有化...

○證人 張世東 私有化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음니다마는 그 日海財團의 研究所 自體가 어떤 個人目的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용산」이라는 그 慘死때문에 財團을 設立하게 되고 財團이 設立함으로써 研究所가 設立하게 됨으로써 大統領지낸 本의 經綸을

活用하기 위해서 그러면 혼자 거기에 가서 寄居하거나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金 炫委員 됐습니다.

○證人 張世東 지난번 말씀드린 것을 參考하시면 되겠습니다.

○金 炫委員 제가 證人에게 한가지 거꾸로 말씀드리지요. 여기서 張證人이 전번에 말씀하신 것은 전번에 나와서 鄭九鎬라는 분이 열심히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그때 이미 國家元老諮問會議法을 강요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84年 이미 豫測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했다는 이야기의 結果를 立證해 주시는 것이고... 이 뒤에 國家元老諮問會議 議長이 되었을 때 쓰기 위해서 다 하면 그것을 立證해 주시는 것이고...

○證人 張世東 아니요. 國家元老諮問會議는 諮問會議의 建物이 다 있고 쓸 수 있는 施設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國家元老諮問會議를 거기에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金 炫委員 그때 이 速記錄은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그때 國家元老諮問會議등 기타 自然人이 되더라도 하고 그때 말씀을 하신 事項이 그대로 있습니다.

○證人 張世東 職責으로... 自然人이 되기까지 大統領 그만 두면 元老諮問會議하도록 지금 國政諮問會議... 지난번에 崔圭夏大統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元老諮問會議되거나 또는 自然人이 되는 身分으로 이야기한 事項입니다.

○金 炫委員 張證人! 분명히 여기는요 國家元老諮問會議라고 되어 있지요. 그 전에 있던 法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證人 張世東 그러니까 大統領이 끝나면 지난번 崔圭夏大統領께서는 國政諮問會議議長으로서 나머지 大統領이 任期를 마치는 期間까지 勤務를 하셨습니다.

職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부 그것이 다 取消되고 다 했지만 그것이 그 名稱을 그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元老會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內閣에서 檢討했던 事項이고 國家元老諮問會議라는 그런 名稱을 갖거나 또는 어떤 國政諮問會議議長의 職責... 어떤 職責을 갖거나 또는 그것과 自

然人的 身分으로서 거기에 가서 大統領으로서 가진 經문을 研究所 또는 國家發展에 贊助하는데 그 施設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金 炫委員 張證人의 말은 法的으로나 남이 언뜻 들으면 맞는 것같지만 全前大統領같은 全國家도 자기 私有化 비슷하게 했읍니다.

全國家도 자기 私有化... 즉 말 안듣는... 말 듣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企業人은 불과 보름만에 破産을 시킨 證人이 여기에 나와 제시고 자기 말 잘 듣고 했던 사람에게는 무더기로 不實企業整理라는 名目下에 주기도 하셨고 그 무서운 民主主義의 칼이고 銃인 言論도 하루아침에 여기서 여기다 붙여! 여기서 여기다 붙여를 하셨고 光州事態와 같이 數 100名을 죽이는 일도 뒤에서 默過를 하셨고 모든 일을 했던 분입니다.

또 私有化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드리면 大統領 就任하면서 자기 側近에게 많은 땅을 남겨주면서 실지로는 자기 땅이면서도 이틈만 갖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私有化입니까 자기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證人이 한번 對答해 주세요. 法的으로는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엄연히 남의 것...

○證人 張世東 어떤 땅을 말씀하십니까?

○金 炫委員 鄭證人님 분명히 미안합니다.

내가 내 돈으로 땅을 샀는데 내 이름으로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日海財團에 한 것을 남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事實上的 權利는 證人 것이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경우 그것을 私有化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번에 日海財團問題만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崔樺旭將軍에게 땅을 日海財團 부분과 器興에 있는 땅을 자기가 大統領되면서 분명히 崔樺旭將軍에게 이름을 넘겨주었다가 日海財團으로 받을 적에 한 푼도 주지 않고 日海財團으로 도로 넘겨 놓았읍니다. 그런 경우 그것을 私有化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당시에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京釜高速道路가 생기기

이전의 땅인데 京釜高速道路가 생기면서 대다수의 報償을 받고 거기에 비탈길에 짜투리 땅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大統領이 될 무렵에 그 때에 崔杼旭將軍은 師團長할 때 그 밑의 聯隊長으로 勤務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地域의 聯隊長 勤務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내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짜투리 땅 하나 있다 그러니 한번 그것을 찾아봐라 기억도 다 잊어버린 것을 찾아보니까 登記簿 謄本 전부 해보니까 짜투리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네가 가지고 登記를 전부 다 確認을 해 봐라 그리고 자네가 그것은 가져라 이랬습니다. 그 짜투리 땅 崔杼旭將軍도 쓸 수가 없습니다. 税金내고 전부 確認했습니다. 이려고 税金물고 있었지요. 税金도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사용도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억이 나시든지 저를 불러서 崔杼旭이 가지고 있어 봐야 쓰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日海財團에 여러가지 다른 분들도 다 經濟人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다 聲援을 하시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해가지고 필요하면 쓰지... 나중에 國家報償을 받든지 팔아서 쓰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것을 私有化니 뭐니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에는 조금 덜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事項을 말씀드립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證人께서는 私有化의 概念을 어디다 두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所有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個人 私字써서 私有化 아 됩니까?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맡겨 놓았다 네 주머니에 넣어 놓았지만 네 마음대로 못쓰고 내가 도로 가져온 것은 역력한 것입니다. 그럴 적에 私有化된 것이 아닙니까?

특히 아까 저쪽 鄭證人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이것을 좋은 뜻으로 理事長으로 해서 바꾸어 보려고 해도 全斗煥씨가 任命해 놓은 理事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이 速記録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鄭周永證人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전번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私有化가 아니겠습니까? 또 世代心臓 등등 1兆가 넘는

돈을 걸어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마음대로 썼습니다. 어디다 썼는지도 지금 政治資金이니 뭐니 해서 밝히지도 않고 마지막 國民에게 보내는 謝遇文이라고 해가면서 眞心으로 謝遇한다고 하면서도 한푼도 밝히지 않고 139億이라고만 해놓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私有化아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私有化지 어떤 概念에다 私有化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張世東 私有化 比喩에 대해서는 조금 概念이 다르다고 봅니다.

○金 炫委員 概念이 다르다?...

○證人 張世東 예.

조금 比喩內容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證人은 本委員이 얘기한 그 概念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아니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觀點에 따라서 다르시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比喩 내지는 생각하시는 그 斷面이 조금 다른 방향이라고...

○金 炫委員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아까 委員長님이 個人的인 것을 注意하셨는데 여기 聯關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묻습니다.

그래서 謝遇文을 쓸 적에 育瓦臺하고 얘기하다 안되니까 내 입만 열으면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 張證人께서도 내 입만 열으면 하는 것을 月刊朝鮮 등등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썼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만 열으면 했다는 것이 여실히 證明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썼을 때 또 전번에 불림없이 그 法까지 4條를 대 드리면서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證人께서는 분명히 職務上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對答하실 用意가 없습니까? 私有化의 概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까?

○證人 張世東 예. 그때 答辯으로 하였습니다.

○金 炫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寄附金 總額 策定問題가지고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鄭周永證人께서는 처음에 23億을 除外해 놓고 100億정도 걷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張世東證人께

서는 崔順達理事長이 처음에 就任해가지고 최초로 500億을 募金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募金에 관해서 下向整理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全斗煥 前大統領이 얘기했다고 했고 500億 募金目標額에 대해서 梁正模 前國際「그루」會長은 募金額이 많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얘기 등등이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나온 鄭壽昌證人도 500億이 策定되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이 募金額 策定問題가 鄭證人께서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100億정도였었는지 처음부터 500億정도였었는지가 문제가 되어서 訊問을 하는 것입니다. 梁正模證人! 500億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證人 梁正模 500億은 最近에 제가 들은 것이고 그 당시에 理事會에서 年에 100億씩 해가지고 3년에 300億을 거둔다 하는...

○金 炫委員 年에 100億씩 300億... 또 鄭周永證人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이 300億이니 100億이니 500億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公式會議에서 내놓고 討議한 일도 없고 議決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때 募金을 하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이나 전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이 제각기 틀리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기억은 1983年11月25日 創立總會 理事會에서 崔順達理事長이 84年度에 4億8,000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그때 얘기한 것입니다.

85年度에 9億6,000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100億만 모으면 그 果實이 충분하니까 또 100億만 모으면은 그 遺族들의 生活도 돕고 또 100億이라면 나는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요.

그 사람들 돌아가신 분 經濟나 外交나 뜻을 못 이룬 사람 꿈을 위로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왜 理事長이 돈이 84年度 이렇게 필요하고 85年度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니까 여기에 기준해서 내가 그때 얘기한 것은 몇번 말씀 했습니다마는 約 100億에서 한 5·6億가량 이렇게 割當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안내도 좋고 또 덜 내도 좋다 이렇게 얘기

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그 때 모두 여러 사람이 첫번서부터 어떤 證人들은 다 그렇게 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기로 했다는 것이 확실히 맞지 않는 것은 쟁 보면 아느냐 하면은 84年度에 100億을 거두기로 했는데 실제 결과는 185億5,000萬원이 들어왔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그 후 어떻게 割當된 돈이 모아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도 85年度도 198億5,000萬원이 또 걸었다 이것을 요전에 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때 돈을 모은 거나 모든 割當한 것은 내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위치에서 造成되었고 나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86年度는 172億5,000萬원 이렇게 되어 있고 3년을 내겠다고 한 게 87년에 와서 한 42億이 또 모아졌다 이전에 그것은 내가 그때 우리가 모아가고 英靈을 위로하게 100億까지는 것하고는 전혀 構想이 틀리고 討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지금 말하는 것은 서로 틀릴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가지고 누가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張世東證人께서는 募金額에 관해서 들은 바 없이 거기에 앉아서 계속 갖다주는 대로 保管만 돈의 管理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고 또 安企部長으로 가시면서도 後任者에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基金이기 때문에 整理만 시키셨다는 것뿐이었지요? 基金에 대해서는 額數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셨지요?

○證人 張世東 예. 通帳保管만을 했습니다.

○金 炫委員 通帳도 保管만 하셨지요. 여기서 분명히 本委員이 이것을 質問한 이유는 그 당시 鄭周永證人께서는 100億정도 「토탈」 100億정도 梁正模證人께서는 「토탈」 1년에 100億정도씩 300億정도 張世東證人께서는 전연 아는 바 없이 돈만 거뒀다라고 하는데 지금 鄭周永證人께서 말씀하셨듯이 100億 거두려고 했던 것이 180 몇 億 또 그 다음에 100 몇 10億해서 「토탈」 어느 누가 얘기했든 鄭壽昌證人이 얘기했던 것처럼 500億을 최대목표로 잡은 것보다도 엄청 많은 598

億을 거두어 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企業人들이 政經憲着에 의한 심한 政經憲着의 우리 韓國經濟狀況에서 權力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어느 무엇에 의해서 自進이 됐던 強制가 됐던 結果的으로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強制性은 다분히 있었다는 것으로 판정하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梁證人…!

○證人 梁正模 여기에 張室長하고 鄭壽昌씨하고 지금 全前大統領 요청한 돈을 거두는 분은 強制 아니라고 하지만도 돈 내는 사람側으로서는 強制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金 炫委員 그러니까요 걷는 사람은 1兆라고 하면은 1兆 몇 千億으로 거둔게 돼있습니다. 지금… 5共和國 시절에 誠金으로 거둔 것이 1兆 몇 千億이 되어 있는데 1兆 몇 千億이라면 저도 엄청나서 따져봤습니다. 1兆가 1萬億이더만요. 1萬億에 몇 千億이니까 1萬3,000億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몇 십億 걷는거야 거시기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그렇게 많이 걷던 사람들이니까 企業人들은 10億 20億 내지만 고달프게 3個月짜리 어음까지 끊어서 냈지만 額數도 모르고 그 당시 당시 어느 指示에 의해서 鄭壽昌 鄭周永 그 쪽에 指示가 내려지면… 經濟 4團體쪽으로 指示가 내려지면 할 수 없이 내는 그런 형식으로 봐도 되겠으나 이 말입니다.

○證人 梁正模 團體… 全經聯이든지 商工會議所에서 돈을 내라고 한다고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이라하는 것은 꼭 내야 되겠다 하는 그 가체의 根本原因에 따라서 돈을 낼 수 있고 또 따라서는 말이지 強制性이 배경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돈을 낼 수 있고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寄附金割當問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寄附金割當에 대해서 15次會議 123「페이지」에 보면 財團設立에 대해서 우선 처음 도와 주었다 이것은 전부 다 自進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100億을 내는 때는 鄭周永 證人입니다. 그 때까지는 저희 經濟團體에서 割當하다시피한 것만은 사실이다 맞습니까?

○證人 鄭周永 예. 割當했고 또 그 때 우리 全經聯副會長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때 불적에 사람의 속은 하나도 모르지마는 그런

큰 事態를…

○金 炫委員 1次募金할 때는 사실이다.

○證人 鄭周永 아니 지금 2次割當할 때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基淵 金 炫委員!

○證人 鄭周永 그 遺族들을 위해서 100億쯤 모아서 하는것은 좋겠다고 생각을 說明을 했더니 내가 불적에는 다 수증하는 태도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金 炫委員 시간이 돼서 本委員의 質問은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淵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民正黨 安秉珪委員 對質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秉珪委員 이제 日海財團問題와 關係해서 우리 聽聞會도 다음 設立者인 全斗煥 前大統領 한 분을 남겨 놓은채 사실상 오늘 對質訊問으로 거의 마무리 段階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問題는 그동안 충분히 이 聽聞會場에서 또 特委委員들의 活動을 통해서 수집된 資料를 根據로 해 가지고 어떻게 評價를 내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國民的 同意를 얻어내는 結論을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것 같습니다. 午前에 鄭周永證人께서 이 자리에서 이미 設立者께서 잘못 되었다고 國民에게 사과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상 이 문제를 더 이상 舉論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또 同意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對質訊問을 통해서 여태까지 舉論되었던 것 중에 의문이 있는 문제 혹시 그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또는 瞬間的으로 委員들께서 訊問을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答辯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訂正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 訊問하신 委員께서 물으신 문제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整理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募金問題와 關係해서 強制性問題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日海財團設立과 關係해서 主要核心事項입니다. 強制性이라고 하면은 客觀的이고 具體的으로 어떤 強制行爲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張世東證人께서는 強制募金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答辯을 했고 鄭周永證人

께서는 強制性 與否는 사람마다 느끼기에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梁正模 證人께서는 強制性이 없는데 基金을 낼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술한 어찌면 梁正模 證人 個人的 생각이기도 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張世東 證人께서는 그 때의 答辯에 그 후에 變化는 없으시지요? 變化있습니까?

○證人 張世東 변함없습니다.

○安秉珪委員 鄭周永 證人께서는 조금 전에 本委員이 引用한 내용에 대해서...

○證人 鄭周永 여러 委員들 물은데 그것은 다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安秉珪委員 그러면 梁正模 證人께 訊問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梁證人께서 政府나 齊瓦臺에 낸 새마을 誠金 또는 불우이웃돕기 誠金 報勳 誠金 이런 誠金이 많습니다. 이런 誠金도 다 강제로 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證人 梁正模 誠金에 따라서는 강제성이 없고 자진으로 내는 것도 있고 또 따라서 강제성이 같이 따라 붙어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安秉珪委員 그러면 함께 證人席에 나와 계시는 張世東 證人이나 또 鄭周永 證人 그리고 최초부터 모금 과정에 主導的으로 참여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마는 鄭壽昌 會長 등이 梁證人에게 만일 誠金을 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떤 不利益處分을 당신이 당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具體的 發言이나 강압행위가 있었습니까?

○證人 梁正模 그전 제가 理事니까 저한테는 그런말 없었고 또 理事會가 1回 2回까지 있을 때는 제가 있었지만 그 뒤에는 저는 없었으니까 그 뒤에 전화받은 것도 없습니다.

○安秉珪委員 예. 그러니까 지금 梁正模 證人께서 강제성이 없는데 基金을 낼 經濟人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梁證人의 答辯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誠金을 내지 않으면 不利益을 당신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협박이라든지 또는 그런걸 느낄 수 있는 정황이나 어떤 분위기를 조성

을 한다든지 또 그런 強壓行爲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本人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強制募金問題는 그렇습니다. 物理的인 어떤 압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다소 만일 이걸 다른 사람이 내는데 또 내라고 하는데 大統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내지 않으면 나한테 不利益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 때문에 그런걸 스스로 강제성이라고 일종의 정신적 강제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난 11月23日 前大統領이었던 全斗煥 前大統領께서 對國民謝遇文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謝遇文속에 담고 있습니다. 現職大統領이 이 事業에 깊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施設을 호화롭게 꾸미게 되었으며 基金을 모으고 管理하고 運營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저의 불찰이며 監督소들의 責任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張世東 證人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張世東 前任大統領께서 다른 全體的인 事項에 대한 것보다도 오늘 여기 日海에 관계되는 事項이기 때문에 日海에 관한 한 現職大統領으로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과성을 다해서 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國民앞에 이런 사죄를 드리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보필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그것을 보답하지 못하고 특히 國民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委員님들과 특히 遺家族 여러분에게 심심한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分斷이 있었기에 아웅산의 참상도 있었고 아웅산의 분노도 있었기 때문에 殉國하신 분들의 그 家族분들의 아픔이 있었고 같이 同行했던 經濟元老님들을 비롯한 各 經濟界의 50餘名이 함께 同行했다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던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느냐 遺家族의 위로는 물론 遺子女도 문제가 있고 또 國家的으로 損失된 그 殉國하신 분들의 遺志와 國民의 분노와 감정 이런 모두가 分斷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間接的인 방법으로 치유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오직 일념으로...

○安秉珪委員 張世東證人! 本委員이 張世東證人에게 訊問한 要旨는 全斗煥 前大統領께서 現職大統領이 이 事業의 깊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이것이 그렇게 보면 精神的으로는 적어도 強制性이라는 이야기도 同意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설명은 그정도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證人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質問을 하겠습니다.

일반 匹夫들도 그 生業에는 자기 功績碑를 세우지않는 법이고 보통 주변에서 세우려고 하더라도 거절을 합니다. 그렇다면 日海財團이 당시의 設立의 動機라든가 이런 것을 本委員도 同意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日海라는 全斗煥 前大統領의 號를 여기에다가 名稱에다가 붙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 후의 여러가지 問題點을 또 그런 어떤 證據들이라든지 남의 오해를 살 수 있는 88年 政權交替에 관한 어떤 文書라든지 이래서 日海財團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全斗煥 前大統領께서는 日海財團도 당초의 設立趣旨대로 아웅산事件 遺家族을 돕고 子女들의 學費를 지원하는 일에 그쳐야 했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적어도 全前大統領 가장 最近 核心參謀로서 事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왜 못 했는지 그리고 日海라는 號를 적어도 피하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建議를 하더라도 이것은 적어도 피하도록 建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의 이 자리에 선 本委員도 하나의 罪人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모셨던 黨의 總裁께서 지금은 對國民謝過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백담사에 온거를 하고 계십니다.

솔직이 말해서 民正黨의 그 많은 黨員들이 5共和國 全體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非理도 얼룩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 一線에 있는 평생 가봐야 아무런 反對 給付를 바라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財閥企業들은 日海財團의 자기 자신이 기부를 참으로 해서 어떤 反對 給付를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民正

黨 黨員들은 200원 500원 1,000원 그리고 黨費를 내서 깨끗한 政府 깨끗한 政治風土를 造成하고자 이를 악물고 그들은 지금까지 黨을 키우는데 寄與해 왔습니다. 저도 地區黨 委員長으로서 그 사람들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왜 證人은 당시에 大統領을 補佐하면서 적어도 오늘날 民正黨 당시 5共和國이 전체 썩었다고 흔허들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많은 議員들이 대부분의 議員들이 100%의 議員들이 저는 清廉政治를 구현하는데 헌신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罪人이 되도록 물론 저 자신도 5共和國 初期부터 國會議員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全斗煥 前大統領 측근에서 일했던 분으로 이 문제에 대한 國民앞에 그리고 또한 全斗煥 前大統領이 몸담아 있었던 民正黨 黨員들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어떤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만일 할 얘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張世東 安委員님께서 분개하시는 그 뜻도 잘 알겠습니다.

지난 번 聽聞會에서 서두에서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린대 대해서 國民 여러분과 委員 여러분 그리고 특히 遺家族 여러분께 진정한 謝罪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더구나 여기 두 元老 經濟人이 계시지만 당시 아무런 私心없이 聲援해서 오늘의 世宗研究所까지 성원해 주셨던 것이 社會적으로 모든 國民의 의욕과 의구심속에 지금 安委員님이 말씀하시는 民正黨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腐敗의 本山인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한없이 죄송스럽고 어떠한 말씀으로 謝罪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安秉珪委員 알겠습니다.

○證人 張世東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個人的 營利라든가 個人的 目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역시 그러한 것을 보필하는데 다소 다른 建議도 올렸었을 것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이 아픈 상처와 분노를 좀 더 씻어보고자 그렇다고 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國民의 憤慨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간접적인 치유 2000年代를 향한 우리 國家位相을 定立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의 헌신을 다한 것이 오늘날 國民에게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는 더군다나 前任 大統領이 백배 國民앞에 사죄하고 미나신데 대해서는 더군다나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엇그제 저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韓國의 大學研究費로서는 大學 平均當 한 學校에 2億원씩 드는데 이웃 日本은 81億이 든다고 했습니다.

日海財團 總額 598億 정답 많습니다. 분개 하도록 많고 이런 돈을 감히 어떻게 모았느냐 하는 정도의 분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果實金 20億 내지 40億 정도로 해서 앞으로 2000年代의 우리 韓國의 國家位相을 어떻게 定立하느냐? 모든 世界 碩學과 國內 碩學들이 모여서 연구 토론하는 그런 광장이 되도록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2000年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國際社會에 우리가 생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앞에 저는 맞아 죽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10年前 20年前에 벌써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書籍들이 自國의 이익을 위해서 國家位相을 定立하기 위해서 많은 論文들 많은 冊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당돌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國民앞에 사죄드리고 어떠한 이에 관한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日海財團이 과연 그야말로 非理속의 몇 놈 처죽일 정도로 非理가 가득 차다면 어떠한 査問도 달게 받겠습니다.

○安秉珪委員 證人께 이 얘기만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5共和國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6共和國이라는 배가 뜰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外形上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本委員은 이 자리를 빌어서 5共和國에 만일 非理라고 하는 그런 동치가 있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찢라내야 되고 또한 거기에서 새롭게 청순하게 돌아나는 새 순을 우리는 키워서 그 가치가 앞으로 그늘을 드리우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청청하게 뻗어가는 새로운

6共和國의 앞날을 위해서 民正黨을 再起할 것이고 모든 國民들은 또 지켜볼 것입니다.

證人도 이제 이러한 이해와 각오밑에서 앞으로 聽聞會의 남은 기간동안 答辯이나 그 외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日海財團 基金募金 目標額의 過多問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訊問하신 金 炫委員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募金計劃推進이 鄭周永證人께서 1次 募金 100億은 鄭壽昌씨와 本人이 주축이 되어 財界에서 自體的으로 目標額을 설정하여 모금했다.

그러나 이후 3年동안 계속 100億원씩 모금 하자는 계획에 대해서는 討議나 議決한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安秉珪委員 여기 鄭證人에게 하나 조금 더 주의를 환기시킬 사항이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최초 23億 募金도 財團設立 基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日海設立 基金이 아니고...

○證人 鄭周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安秉珪委員 순국외교사절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1次的 經濟的 도움을 주기위해 낸 誠金이고 財團設立 基金 모금은 84年 4月부터 6月사이에 모인 137億 이것이 1次 모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전에 聽聞會에서 答辯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최초 모금 23億원을 1次로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1次 2次가 될 수가 없지요. 1次 2次까지는 좋는데 3次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鄭證人께서 지금 큰 僞證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1次에 鄭證人께서 그냥 기분 좋게 냈고 2次에 낸 것은 또 내는가보다 해서 냈고 세번째도 남이 내니까 냈다 이런데 그래서 鄭證人 말씀은 한번에 이것을 끝내는 것으로 했지 3年동안 이렇게 基金 額數를 과다하게 策定해 가지고 한 사실이 없다 그것은 本人이 모른다. 물론 證人께서 모르신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會議錄이라든지 關係文體에 證憑文件에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證人 梁正模 證人께 묻겠습니다.

○證人 鄭周永 아까 물은 것 대답 안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고...

○安業珪委員 그럼 말씀하세요.

○證人 鄭周永 23億하고 100億하고는 혼동을 안했습니다. 혼동했다고 얘기한 일도 없습니다. 분명히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3億은 돌아가신 분들 遺族들을 위해서 그렇게 냈고 그 때 100億은 日海財團의 基金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적어도 큰 돈을 모으려고 하면 討議를 하고 議決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첫번째 發言에 나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300億이니 무슨 해마다 내기로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 출석한 몇 분한테 電話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번째 내지고 한 돈을 해마다 내지고 거기서 서로 討議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내가 물어본 두어사람이 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요전에 제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어느 證人한테도 그 얘기를 어느 委員이 물었습니다. 鄭壽昌證人한테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것을 鄭周永會長은 討議한 일도 없고 의결한 일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것이나" 하니 까 그것을 鄭壽昌證人이 대답을 안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討議한 일도 없고 議決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100億을 했는데 84년에 어떻게 185億이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구의 提案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는 주로 그 때 崔順達理事長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내기로 한 것처럼 그렇게 每年 내라고 물고 나가서 그렇게 된 것 뿐이지 討議나 議決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安業珪委員 알겠습니다.

梁正模證人! 鄭壽昌씨가 두번째 理事會에서 募金額을 1년에 100億씩 3년에 300億을 모은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事項이 아닌가 하고 그냥 同意했다고 지난 번 聽聞會에서 答辯하셨는데 이

것 사실입니까?

○證人 梁正模 예. 사실입니다.

○安業珪委員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募金額의 가담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鄭周永證人께서도 그렇게 反對했거나 지난 번 표현이 그 때는 저희들이 듣기에 조금 強制募金 이런 어색한 표현이 되었습니까라는 사실상 이 募金額을 1차에도 주도적으로 하셨고 하기 때문에 아마 強制性은 없었다...

○證人 鄭周永 그러나 아까 金委員님께서 물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強制性이 있다 이렇게 직선적인 얘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強制性을 떠었느냐 안 떠었느냐 하고 여러 委員님들이 확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安委員님 말씀대로 精神的인 強制性이 內在해 있느냐 이런 것은 檢討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強制性으로 했거나 또 本證人이 強制性이다. 이렇게 發言하지도 않았고 내 자신은 첫째 말고 2次 3次 이렇게 낸 것은 이물데면 지금 安委員님의 말씀대로 精神的 強制性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껴느냐 하는 것은 하나 하나 물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評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安業珪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내신 것이고 다음에...

○證人 鄭周永 아니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사실은 안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安委員 말씀대로 아주 그것을 심리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精神的인 분위기에 強制性을 떠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安業珪委員 다음 靑瓦臺晚餐時에 梁正模證人의 지각에 대한 全斗煥 前大統領의 詰責與否 물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라는 이 문제를 제가 여기에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를 왜 묻느냐 하면 國際「그룹」해체 여기에 소위 政治權力的 介入與否를 조금 더 밝혀내기 위해

서 묻는 것입니다.

張世東 證人께서는 靑瓦臺晩餐에 늦게 참석한 것은 警護上 缺禮이나 이해적으로 격려차원에서 당시 梁正模 國際「그룹」會長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梁正模 證人께서는 全前大統領의 필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梁正模 證人 지금도 그렇습니까?

○證人 梁正模 全大統領께서 필책을 하는 것보다도 좀 비웃는 말을 합니다.

외국 갔다 오느냐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安秉珪委員 그것은 만일 그렇게 사람이 아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라는 우리 梁證人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서 정망 그만큼 친근감을 느끼고 또 농담으로 어디 외국갔다 오셨느냐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분위기가 그만큼 그 주변에 우리 梁正模 證人께서는 당시 靑瓦臺晩餐에 참석할 그 무렵에 어떤 불편하거나 본인의 상당히 불안해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證人 梁正模 그것보다도 중간에 비행기가 늦어서 비행장에 내리니까 車로 「카본」으로 연락하기를 좀 늦어도 괜찮으니 참석을 하라 하는... 警護室長도 여기 계십니까라는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서 급히 들어 갈려고 해도 눈이 많이 왔으니 중간에 교통이 막혀서 늦었는데...

○安秉珪委員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募金の 強制性和 관련해서 그것은 자기가 느끼는대로 정신적으로 그것은 強制性이다 이렇게 느끼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證人 梁正模 그래서 그 자리가 제 자리 하나밖에 안비워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 혼자 느낌입니다마는...

○安秉珪委員 됐습니다. 寄附額의 多少에 따른 晩餐坐席配列이 있었다 이렇게 평소에 寄附金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데에 따라서 坐席配列을 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梁正模 證人께서 얘기를 하셨습니까라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번 張世東 證人께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年齡 經綸 등을 고려해서 좌석을 배열했다고 하는데 坐席配列에 어떤 기준 같은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문제가 없도록 밝

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證人 張世東 그것은 警護室에서 坐席配列을 하는 것은 아니고 經濟首席室에서 秘書室에서 坐席配列은 전부 다 합니다.

警護室長은 거기에 陪席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늘 많은 인원이 모일 때는 거기 한쪽 가에서 陪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모든 것을 잘 아는데 대개 同年輩 정도면 그러한 金額같은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年輪이 많은 經濟元老들이 참석할 때는 당연히 元老 분들이 앞에 앉고 그 다음에 조금 가에 좀 성원을 많이 한 사람들의 순서로 하는 것이 通例입니다.

순수한 金額에 의해서 座席配列을 하지는 않습니다.

○安秉珪委員 지금 梁正模 證人께서는 國際「그룹」해체와 관련해서 寄附金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統治權者의 特惠의 부여가 있고 없다 이런 뜻으로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느끼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張世東 證人이나 鄭周永 證人께서는 寄附金과 관련해서 特惠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一般國民들 중에 일부는 企業體 代表가 政府에 각종 賦金을 낸 代價로 特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梁正模 證人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梁正模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느 特定人을 들어서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나는 이와 그것으로 인해서 당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야기 하겠습니까라는 한 예를 들어서 東國製鋼「그룹」의 張會長이 돈 30億을 내가지고 그 때 靑瓦臺晩餐에 열자리에 앉은 것을 제가 보고 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열자리에 앉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했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내 系列社 自體를 정리하는데 張會長이 우리 聯合鐵鋼을 가지고 간 예를 들어봐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합니다.

○安秉珪委員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든... 물론 이것이 年歲가 많은 梁正模 證人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까라는 그동안 聽聞會를 통해서 우리가 證人들의 答辯

態度를 보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리 答辯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古事를 아! 역시 그것이 상당히 진리구나 하고 느낍니다. 역시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 지나치게 모든 것을 고깝게 또 하나 傾度되게 이것을 비뚤어지게 바라 본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성격 나뉘어...

○證人 梁正模 사람에게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安業珪委員 글썩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一般 國民들은 지금 現代가 각종-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鄭周永證人께서는 각종 誠金을 많이 냈지만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혜받은 일 없다. 그런데 여기 梁正模證人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쪽 논리 延長線上에 놓고 볼 때 證人은 一般國民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鄭周永證人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梁正模 우리나라 企業中에 특혜를 안 받고 企業도 많이 있지만도 특히 특혜를 많이 받고 성장한 會社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은 5共時節에 있었다 하는 것은 내가 보아도 눈에 보입니다.

○安業珪委員 그러면 國際「그룹」解體와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여기 張世東證人께서는 폐 衾罪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하였고 또 여기 우리 鄭周永證人께서는 經濟的 측면에서 國際「그룹」解體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梁正模證人께서 日海財團 基金 300億이 너무 많고 大統領이 관계하면 말이 많을 것이라고 한 말 이것은 오늘날 맞은 이야기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위에서 오해를 받아 가지고 결국은 國際가 해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 11月8日 바로 이 장소에서 國會 5共和國에 있어서의 非理特委關係 遠記錄 1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때 梁正模證人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警護室長나도 그 사람한테 칼질당한 사람인데 하는

그 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張世東證人이 나와 계시니까 具體的으로 그 동안의 國際「그룹」解體와 관련하여 어떤 칼질을 했는지 하나의 證據를 提示 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梁正模 칼질자체가 지금 張室長이 옆에 계시지만 당시에 張室長께서는 우리나라의 一般國民이 볼 때 우리나라 大統領 밑에 있는 第2人者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추측하는데 반드시 내가 볼 때에는 물론 張室長께서는 나는 그런적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반드시 大統領한테 쫓인가 옆에서 나한테 대한 좋지못한 不敬罪같은 이야기를 냈을 것 아닌가 하는...

○安業珪委員 느낌이 그렇다 그것이지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런 證據가 있는 것이 아니고...

○證人 梁正模 그렇지요.

○安業珪委員 예. 알겠습니다. 여기 鄭周永證人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日海財團 寄附金對象者 기준에 企業財務構造가 튼튼해야 되고 첫째 둘째 寄附를 받기로 해서 利權을 요구하지 않을 사람 세계 뒤말이 없을 사람 이것을 지난 번 本委員이 訊問할 때 鄭周永證人께서는 이 기준을 鄭周永證人 자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證人 鄭周永 예. 1次 100億을...

○安業珪委員 1次 100億이든...

○證人 鄭周永 鄭壽昌會長하고 副會長하고 할 당할 때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安業珪委員 그렇다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梁正模證人께서 日海財團에 5億을 基金을 納付하신 사실은 사실이지요? 모릅니까? 5億년 것을... 내셨는지

○證人 鄭周永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安業珪委員 알고 있는데...

○證人 鄭周永 1次 이야기입니다.

○安業珪委員 그러면 1次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 때 기준에는 불렀음이 이 기준하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證人 鄭周永 지금 기억하기에는 그 때 梁正模會長이 우리나라 수출이 한 다섯째 되었고요. 賣上高는 한 일곱째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한 5億 程度는 내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安秉珪委員 다음은 日海財團 부지와 관련하여 아까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答辯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 번 本委員 張世東 씨와 日海財團 數地를 물색하려 함께 다닌적이 있느냐 했는데 그 때 鄭周永 證人께서는 우리가 그 땅을 살 적에는 綠地였다. 이 그래서 研究所가 그것을 써봐야 기껏 1·2萬坪 더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쳐 쓰라고 했더니 그것도 적다고 5萬坪을 더 쓴다고 해서 그냥 나는 얼마 안쓰고 넘겨주면 우리가 쓰려고 했는데 결국 다 쓴다고 해서 제넘해버리고 말았다 했는데 그 數地를 당시 張世東 證人은 처음에 어느 정도 쓰겠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證人 張世東 15萬坪이면 대단히 큼니다.

지금은 5萬坪을 追加해서 21萬坪이 되었을니다마는 산이 한 6·70% 뒤로 병풍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數地는 당시에는 논이었고 배밭이었고 하얏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용한다 하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원을 하신다기에 저희가 可及的이면 全量을 쓰고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꽤히 승낙을 하시고 심지어는 領收證까지 전부 주면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의 世宗研究所를 만들었습니다.

○安秉珪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安秉珪委員 個人 委員의 최대 시간인 40분이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秉珪委員 협조하겠습니다. 이로써 本委員의 訊問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順序에 따라서 平民黨의 朴相F委員 對質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平民黨의 朴相F委員입니다.

지금까지 對質訊問에 答辯하신 것을 보니까 세분 모두 과거 證言하신 것을 그대로 고집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國會에서의 證言鑑定法 第14條에는 調査가 締結하기 전에 잘못된 答辯을 是正하면은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지난 聽聞會때 또는 午前的

잘못된 答辯에 대해서 是正하는 기회가 되기를 本委員은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梁正模 證人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證人께서는 지난 번 聽聞會에서 83年11月25日 日海財團 創立總會를 할 때 張世東 警護室長의 연락으로 갔다 또 張世東室長으로부터 財團設立과 理事就任 提議를 받았다 이렇게 證言을 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證人 梁正模 예. 張世東室長께서 한번 불러서 가서 張室長의 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 日海財團關係 말이 나와가지고 理事就任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 장소가 張世東 警護室長 방이었습니까?

○證人 梁正模 警護室長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創立總會가 靑瓦臺警護室長의 제일 아래층 會議室이지요?

그리고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創立總會 당시에 決定된 日海財團 募金 目標額에 대해서 證言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梁正模 證人께서는 鄭壽昌씨가 1년에 100億원씩 3년에 걸쳐 300億원을 募金한다고 發表했다고 했는데 鄭周永씨는 처음에 100億원을 목표로 했다가 그 뒤에 300億 500億 600億으로 늘어가면서 대단히 힘이 들었다 이렇게 證言을 하고 있습니다. 創立總會 당시에 3年間に 걸쳐서 300億을 募金한다고 發表를 한 것이 맞습니까?

○證人 梁正模 예. 1년에 100億원씩 해서 3년에 300億원...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朴相千委員 그 말씀을 누가 어디서 했는지

○證人 梁正模 두번째 理事會 席上에서 定款 通過할 때

○朴相千委員 누가 發表를 했습니까?

○證人 梁正模 鄭壽昌씨가 發表했어요.

○朴相千委員 그 때 鄭周永씨가 오셨습니까?

○證人 梁正模 같이 오셨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오래되어서...

○朴相千委員 다음에는 減金割當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梁正模 證人께서는 지난번 聽聞會에서 84年4月 1次 募金額 100億을 割當할 때 三厘이 처음에는 7·8億원을 말하다가 그것이 10億으

로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15億으로 늘어나는 등 몇번 조정을 해서 100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證人 梁正模 예. 그 당시에 지금 鄭會長께서도 계시지만 당시에 經濟人이 한 15·6名 「프라자 호텔」로 22層인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 자리에서 金額 100億을 募金을 우리나라대로 割當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 金額을 가지고 해 보니까 제대로 100億이 안 차서...

○朴相千委員 그럼 트로이 키움 7·8億은 자기들이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 會社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證人 梁正模 그때 제가 봐서는 그 募金 자체가 鄭壽昌씨가 처음 말을 했지만도 金額 대부분 자체를 하는 데는 여기 계신 鄭會長께서 金額 자체를 내가 처음 얼마 내겠다... 그 다음 그것을 合計를 해 보니 안 맞으니까 또 두번째 金額을 더 올려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鄭會長께서 그럼 내가 15億을 낼테니 여러분이 같이 그 比率에 맞춰 가지고 올려 보자 이래 가지고 맞춘 것이 그때 105億인가 106億인가 되었다고 기억 납니다.

○朴相千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 낼 사람 誠金을 割當 받은 會社 중에는 그 代表者가 안 나온 會社도 있었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만 割當을 했습니까 모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割當을 했습니까?

○證人 梁正模 그때 모임 때 누가 얼마 낸다 하는 그 이야기만 하고 저는 그 뒤에 내라는 돈 자체만 내고 그러고 나는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朴相千委員 됐습니다. 梁正模證人께서는 지난 번 聽聞會에서 證人의 所有 이런 國際「그룹」이 解體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84年4月 경에 崔順達과 趙成熙가 敎保「빌딩」에 있는 證人의 事務室에 찾아왔을 때 300億이라는 巨額을 徵收하면 훗날 말썬이 날 것이다 大統領을 위해서도 안 좋다 이런 말을 했더니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림 없는 사실입니까?

○證人 梁正模 예. 그때 그 이야기를 했지요.

○朴相千委員 또 그 해 5月인가 6월에 있었

던 靑瓦臺 만찬때 全斗煥 당시 大統領께서 술이 상당히 취하셔서 내가 企業을 도와 가지고 키워줄 수도 있고 내가 죽으려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소 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가슴이 심뜻했다 이렇게 證言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證人 梁正模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朴相千委員 이걸 누구누구 들었습니까?

○證人 梁正模 그때 1년에 한...

○朴相千委員 아니 全斗煥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座席에 누구누구 앉아 있었어요?

○證人 梁正模 우리 나라 대략 10大 財閥이 앉았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 뒤에 85年2月21日 證人 所有인 國際「그룹」이 解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解體되자마자 證人께서는 日海誠金에 대한 불명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證言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證人 梁正模 나로서는 解體를 당하고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고 생각을 했습니다.

○朴相千委員 證人이 대부분을 所有하고 있던 國際「그룹」의 解體가 日海誠金을 망서리고 있던 또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던 다른 企業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梁正模 제가 볼 때는 내가 空中分解를 당하고 난 뒤에 많은 새마을誠金과 아울러 日海財團에 돈이 많이 들어 온 것이 결국 내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經濟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낸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 鄭周永證人한테 묻겠습니다.

83年11月25일에 있었던 靑瓦臺 日海創立總會 당시에 證人은 누구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나가셨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때 崔順達씨 연락을 받았는지 鄭壽昌씨 연락을 받았는지 그것은 확실하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 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때 理事 就任은 누가 부탁을 하던가요?

○證人 鄭周永 거기 모인 사람들 理事... 누가 특별히 나서 부탁한 것이 아니고 여기 모인 분들은 理事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相千委員 梁正模씨에 대해서는 張世東 警護室長이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證人에 대해서는...

○證人 鄭周永 그 분은 어떻게 좀 特別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特別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朴相千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鄭周永 예.

○朴相千委員 여러번 되풀이됩니다마는 創立總會 무렵에 결정된 日海 募金の 總額에 대해서 證人の 證言과 梁正模씨 證言이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朴相千委員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번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왜 또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오늘 오후에 있는 이 聽聞會는 對質을 통해 가지고 證言의 眞實性 眞否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眞實性이 가려질 때까지는 물어야겠어요. 그게 우리의 義務입니다.

○證人 鄭周永 좋습니다.

○朴相千委員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3年間の 募金金額이 300億이니 또는 500億으로 결정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선 客觀的으로...

○證人 鄭周永 이것을 전부 저 본인서부터 옆에 앉은 梁正模證人 아주 생각을 다시 더듬어서 여러분한테 혼란이 없도록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梁正模 證人이...

○朴相千委員 다시 말을 바꾸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鄭壽昌씨가 理事會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발표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鄭周永 理事會에서 무엇을 발표했다고 물으십니까?

○朴相千委員 3年間に 300億을 거두겠다고 하는 募金金額을 발표했다고 지금 證言하셨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梁證人께서는 환경이 환경이 되어서인지

그때 그 기억을 완전하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첫째 梁證人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니 「프라자 호텔」에 여럿이 모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三毫이 6億 7億에서부터 10億...

○朴相千委員 아니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證人 鄭周永 아니 이거 보세요. 자세히 해서 한번 물은 것이 의혹이 싹 풀어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朴相千委員 아니요. 아까 여러 번 의혹이 풀어지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풀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證人 鄭周永 梁證人이 나하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梁證人의 기억위에 내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일치시켜야지 여러분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다시 묻겠어요. 鄭壽昌씨가 理事會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證人 鄭周永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討論한 일도 없고 결의한 일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崔順達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聽聞會에 나오셔서... 全大統領에게 500億을 建議을 했더니 500億을 建議한 이유는 果實額이 그러니까 利子가 1년에 30億 내지 40億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500億을 建議을 했더니 全斗煥 당시 大統領께서 너무 많다고 해서 300億으로 낮추었다 이렇게 하면서 目標額이 300億 내지 500億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鄭壽昌씨도 그렇게 말하고 崔順達씨도 말하고 지금 梁正模씨도 그렇게 말합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崔順達씨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은 전연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梁正模씨 얘기하고 나하고 물리는 것을 완전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梁正模會長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證人 鄭周永 굳이 그 얘기를 못하게 하고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또 뭐니까?

○朴相千委員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천만에 안했습니다.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럼 한번 해 보세요.
 ○證人 鄭周永 梁正模會長께서는 「프라자 호텔」에서 三星에서 6億 7億 12億 15億 이렇게 얘기를 해서 15億이 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梁正模會長 기억이 전연 안 맞는 것입니다. 三星을 6億 7億 10億 12億 15億 이렇게 얘기한 일이 없고 그것은 내가 15億을 하나까 三星은 따라운 것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분이 잘못 지금 억측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프라자 호텔」에는 지금 梁正模會長께서는 15名인가 16名이 모였다 그것도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프라자 호텔」에는 분명히 7·8名 밖에는 안 모였습니다. 그 후 7·8名이 모여서 適當한 額을 발표할 적에 「롯데호텔」에서 15·6名 모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梁正模會長이 지금 여기서 묻는 委員님께서 기억을 고치면 서로 僞證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잘 더듬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쳐 드리는 것이 梁正模會長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梁正模會長이 거짓으로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착각으로다가 좀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얘기한 것이 梁正模會長이 맞으면 맞다고 시정을 하는 것이 梁正模會長의 眞實性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相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鄭壽昌씨와 崔順達씨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鄭周永 證人の 말대로 하자면...

○證人 鄭周永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朴相千委員 그러면 세 분이 다 기억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 사람 시각에서 내가 보던 돈을 모으기 위해서 鄭壽昌씨는 주로 우리 經濟界 首席會長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의논한 것은 여러분하고 의논하지 않았나 그렇게 조금 기억이 착각을 하지 않았나 故意的으로 아무도 거짓말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朴相千委員 鄭周永씨에게 다시 물겠습니다.
 84年10月11日 現代所有 땅 15萬坪을 日海財團에 喜捨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鄭周永 뭐 喜捨라기 보다는...
 ○朴相千委員 아니 代金을 받지 않으셨어요?
 ○證人 鄭周永 어쨌든 그것이 나타나서...
 ○朴相千委員 그러니까 代金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입니다.

○證人 鄭周永 예. 代金 안 받았읍니다. 드렸읍니다.

○朴相千委員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런데 이 15萬坪을 日海財團에서 썼다 그러면 벌써 100億 갖고는 유지할 수 없는 財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아셨을 것 아닙니까? 15萬坪짜리 財團建物を 짓는데 敷地가 15萬坪이나 되는데 100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그것은 쓰는 사람들이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안해 보아서 내가 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朴相千委員 또 그 해 84年度입니다. 12月3日 3次 理事會에서 主目的事業을 처음에는 獎學財團에서 주된 目的事業을 研究事業으로 변경 決議를 하십니다. 그때 證人은 午前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웅산」犧牲자들이 經濟研究를 하시던 분이 많으니 産業開發을 위한 經濟政策研究도 重點的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鄭周永 돌아가신 분들이 經濟人들이 많기 때문에 經濟研究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朴相千委員 그러면 벌써 이 때 84年12月3日 이때 日海財團이 단순한 獎學財團이 研究財團으로 변모합니다.

15萬坪의 부지를 가지고 設立하게 되고 최소한도 그러면 募金目標額에 대해서 100億으로 충분하다고 처음에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朴相千委員님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日海財團은 遺族의 生計를 돕고 돌아가신 분들이 뜻한 것 그 뜻을 돌아가셨지만 무엇인가 이루어서 나머지 遺族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왜 100億이란 큰 돈이고 결약을 해서 하려면 어느 「빌딩」을 얻어 가지고 會議室에서

會議을 하고 國際會議할 때는 「호텔」 얻어서 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고 그 때나 지금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15萬坪 敷地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호텔에 가서 별도로 합니까?

證人은 84年 募金에 100億이 각출된 이후 부터는 내는 것이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6年1月15日 第2次 定期理事會에서 86年度 事業計劃을 토론후면서 長期預置金을 찾아가지고 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證人께서는 長期預置金을 찾아쓰면 향후 財團運營이 어려워지니까 運營하기 위한 基金모금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86年1月15日 第2次 定期理事會 會議錄에 나와 있습니다. 또 鄭壽昌씨도 그런 말씀을 하였고 또 오전에 녹음까지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證人이 편히 살기 위해서 냈다는 것이 아니라 證人은 이 日海財團 募金事業을 前面에 나서서 積極的으로 주도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렇게 朴相千委員이 質問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한 것은 理事會에서 그런 얘기를 한 會議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것을 理事會 때 錄音을 무슨 錄音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錄音을 했는지 알라도 錄音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단편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런 돈을 내는 것을 촉구한 그런 정신으로 發言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식으로 질문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朴相千委員 否認을 하시는 취지를 알겠어요.

○證人 鄭周永 그것을 적극 내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정신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朴相千委員 理事會 會議錄과 錄音이 잘못된 것이다.

○證人 鄭周永 錄音이라는 것은 連繫性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錄音의 連繫性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相千委員 證人은 午前에 國際「그룹」 解體에 대해서 많은 음미를 해 보았다고 그랬음

니다. 음미를 해 보셨고 또 여러 사람들과 의논도 해 보았으나 그 당시 분위기가 살려 주자는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만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음미했다는 뜻입니까? 좀 더 具體的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證人 鄭周永 國際「그룹」을 사실은 22個되는 회사를 이렇게 아주 급속도로 다 解體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이것이 바로 政策이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나...

○朴相千委員 그것을 建議해도 못 들으실 그런 형편이었습니까? 그 당시.....

○證人 鄭周永 그것을 음미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극히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길이 없느냐 이러니까 여러 사람들 의견이 벌써 결정이 되어서 끝난 일인데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래서 체념을 하고 말았습니다.

○朴相千委員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全斗煥 그 당시 大統領이 결정했다는 뜻이지요?

○證人 鄭周永 어쨌든 우리 나라 經濟政策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고 그것이 벌써 통과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체가 되기 시작 되었기 때문에.....

○朴相千委員 예. 됐습니다.

이제 張世東證人께 묻겠습니다. 張世東證人께서 梁正模씨에게 日海財團 理事就任을 부탁한 것은 맞습니까?

○證人 張世東 맞습니다.

○朴相千委員 또 日海財團 創立總會가 靑瓦臺 警護室에서 열린 것도 맞지요?

○證人 張世東 場所는 三清洞에도 基本事務室이 있고 또 이 쪽에 당시에 警護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警護室所屬 101警備團이라고 해서 警察宿所 사무실을 별도로 그 때...

○朴相千委員 靑瓦臺 안에서 개최된 것은 맞지요?

○證人 張世東 마침 竣工이 되어서 그 事務室을 활용했습니다.

○朴相千委員 이것은 趙成熙大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당시 創立總會는 끝난 뒤에 만찬회에는 全大統領도 참석하셨지요?

○證人 張世東 물론입니다. 全大統領께서 主催한 만찬입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지난 번 聽聞會에서는

創立總會를 靑瓦臺에서 한 일이 없다고 證言 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證人 張世東 그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會議는 理事主宰로 또는 理事님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朴相千委員 靑瓦臺가 主導한 募金을 위한 創立總會라는 것이 나타날까 보아서 그랬습니까?

○證人 張世東 아니지요. 會議를 전부 다 하는 것을 三濟洞에서도 하고 101團에서 警備團 警察建物에서는 한번 딱 했는데 그것을 警護室이라고 넣기도 곤란하고 또 101警備團 警察募舍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靑瓦臺도 곤란하고 하나까 行政記錄에 통상 三濟洞이라 記錄을 해서 그때 착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은 101警備團 募舍에서 준공되기 전에 募舍가 마칠 비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층으로 왔다 갔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번 사용한 것입니다.

○朴相千委員 예.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은 安家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證人 張世東 安家家屋이란 三濟洞입니다.

○朴相千委員 安家家屋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安家家屋을 아는데 101 警備團會議室같은 것은 安家家屋이 아니에요?

○證人 張世東 물론이지요.

○朴相千委員 證人이 과거에 시인하신 것을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과거 證言에서 是認하신 것을...

첫째 新韓銀行 李熙健씨로부터 10億을 직접 接受하신 사실이 있지요?

○證人 張世東 예.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證人이 始終 日海財團 誠金の 通帳을 管理했습니다. 保安隊 大領 趙成熙씨를 차출해서 理事長 崔順達씨와 함께 誠金募金 訪問을 하는 등 日海財團 事務를 處理하게 했습니다. 맞지요?

○證人 張世東 日海財團 事務處理를 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朴相千委員 靑瓦臺 敎文秘書官을 시켜서 日海定款을 작성했습니다. 맞지요?

○證人 張世東 맞습니다.

○朴相千委員 초기에는 日海財團 消耗品費를 직접 統制하셨습니다. 맞지요?

○證人 張世東 맞습니다.

○朴相千委員 日海財團 敷地를 직접 物색하시고 또 現代와 契約을 했습니다. 맞지요?

○證人 張世東 맞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렇다 그러면 日海財團이 募金은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全斗煥 前大統領의 承認下에 警護室長인 證人이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쪽 제가 열거한 것을 종합해 보면... 그 정도면 주도했다고 하셔야겠지 않습니까?

○證人 張世東 글썽 그것을 主導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理事構成될 때까지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理事構成되고 난 다음에 理事會議에서 했습니다.

○朴相千委員 募金을 끝까지 保管을 證人께서 警護室에서 하셨어요.

○證人 張世東 그것은 金錢事故를 방지하기 위해서...

○朴相千委員 글썽 그러면 새세대 誠金과 새마을 誠金은 어째서 靑瓦臺에서 接受했습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저하고는 관련이 되지 않는데요.

○朴相千委員 관련이 없지만 똑같이 다 靑瓦臺에서 했다 이것이에요.

○證人 張世東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日海財團의 事務室이 분명히 安全裝置가 되어 있으면 돈을 제가 왜 管理합니까?

○朴相千委員 이렇게... 이것 本 質問입니다. 이렇게 거역할 수가 없는 그 당시 大統領께서 承認하시고 그것은 大統領의 힘을 背後에 두고 警護室長께서 방금 제가 쪽 열거한 그러한 役割을 하고 있는 이 誠金을 안 내놓을 企業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그 誠金이 企業體가 本人이 저는 얼마 내겠습니다 하고 써낸 것이 아니고 鄭周永證人과 鄭壽昌씨에 의해서 割當이 됐습니다. 企業體의 능력을 보아가시고 割當이 됐어요.

割當된 것 일종의 通告입니다. 通告..... 이것이 強制徵收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張世東 제가 答辯할까요?

○朴相千委員 예.

○委員長 李基澤 朴相千委員! 이것으로서 質

要終結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證人 張世東 經濟元老어른들께서 당시에 「버마」를 전부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朴相千委員 아니 그 얘기는 하였고 지금 委員長님 재촉이 있는데...

○證人 張世東 그 분들이 상의하시면서 능력 여러가지 참여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그것을 전부 經濟界에 있으면 全經聯會長도...

○朴相千委員 證人께서 企業體의 長이시면 당시 大統領이 背後에 계시고 警護室長이 主管하는 그 誠金을 안 내시겠어요? 확실하게 말합시다.

○證人 張世東 誠金 내고 안 내고 그 量의 많고 적음은...

○朴相千委員 내 얘기는 誠金을 낸 것이 自發的 意思나 강제나 하는 것을 따지는 자리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證人 張世東 내고 안 내고 그 다음에 量의 多量에 대한 것은 아주 融通성이 많았다고 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내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많이 誠金을 내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이것 마지막 質問입니다.

日海財團의 誠金이 이렇게 巨額에 이르기도 그 誠金을 가지고 21萬坪이라는 엄청난 敷地를 확보해서 第2迎賓館 같은 接待施設도 無線局 設置까지 하는 警護施設 이렇게 해서 日海財團이 第2의 青瓦臺라고 부를 수 있을 그 정도의 施設을 갖추게 만든 것과 만든 그 根本 動機가 제가 볼 때에는 全斗煥 大統領께서 退任하면 그것을 장소로 삼아서 背後權力을 行使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봅니다. 日海財團 소위 學術研究에 관한 한 聲援은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一般 家庭집 주변에도 防犯哨所도 만듭니다. 도둑놈 방지하기. 위해서 防犯哨所도 만드는데 國家元老級들이 退任한 元老級들 또는 現職 前職의 元老級들이 거기 모였을 때는 최소한의 安全施設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柵조망도 만들고 哨所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學術財團 學術研究財團에 柵조망

만들어 놓은 것 보지 못했습니다.

○證人 張世東 그것이 迎賓館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이 점에 대해서 全斗煥前大統領 자신이 모든 非理와 잘못이 자신의 權力慾에 원인이 있다고 隱遁하신 뒤에 告白을 하셨습니다. 證人만 지금 全斗煥씨에 대한 義理 때문에 고집을 하시는데 個人的 義理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國民과 國家에 대한 義理 거기에 대한 책임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證人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民主黨 金東圭委員 對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圭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圭委員입니다.

다른 委員들이 많이 質疑했습시다라는 저는 募金의 強制性部分과 國際「그룹」解體가 權力의 介入에 의한 非理중의 非理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證人들 한테 質問하는 것을 주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미 하신 말씀이 한 두가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重複質問은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지금 梁正禎證人께서 崔順連씨와 趙成熙部長이 교보「빌딩」 찾아 왔을 때 아까 朴委員이 얘기한 대로 300億 募金후에 꼭 말썽이 난다고 證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건 聽聞會 陳述에서 趙成熙와 친분이 있는 證人會社의 重役을 통해서 崔理事長이 大統領과의 관계등을 말하면서 방문시 證人이 待接이 傲慢不遜하여 그냥 놔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 들려 崔順連을 만나려 하였으나 一週日 이상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 重役을 통해서 崔順連씨와 趙成熙가 張室長에게 이 사실을 傲慢不遜하다는 사실을 報告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證言하셨는데 틀림없지요?

○證人 梁正禎 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金東圭委員 그 다음 大統領이 青瓦臺晚餐에서 한 말... "企業을 죽이려면 죽이고 키우려면 키울 수 있다"는 의미의 이 말이晚餐에 참석한 11個 會社의 最高責任者를 통해 企業街에 새어 나갔고 2月21日 國際「그룹」이 空中分解된 사실이 社會的으로 物議를 일으키고 外信에 報道되어 이에 관련... 이것이 중

요합니다. 大統領이 國內 30大 財閥들을 青瓦臺로 초청하여 “梁正模는 不實도 不實이지 만 나한테 협조도 잘 안하고 해서 죽인 것이다”라고 하여 기본이 섬겼었다며 이래 가지고 살겠나 하는 말을 참식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證言 하셨습니다. 맞지요?

○證人 梁正模 예.

○金東圭委員 제가 5共非理 4分科會議에서 第一銀行 李弼善 당시 主去來銀行長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權力에 의해서 解散됐다는 것을 거의 心證을 굳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梁正模 證人에게 몇 가지 게가 묻고 싶습니다.

李弼善行長에 의하면 “資金事情이 심히 나빠진 것은 84年11월부터였다” 이렇게 陳述을 했는데 사실이지요?

○證人 梁正模 예. 사실입니다.

○金東圭委員 그래서 85年1月25日 「그룹」正常化計劃을 主去來銀行에 國際「그룹」에서 제출했고 물론 자기 自救計劃을 포함해서지요. 銀行하고 監督院하고 그만하면 됐다고 評價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梁正模 사실입니다.

○金東圭委員 그런데 그 이듬해 85年2月12日 이 總選舉날이었읍니다. 그런데 2月23日 그러니까 두 달여밖에 시간을 극지 않고... 1月25日 이니까 한 달도 안되는군요. 시간을 주지 않고 自救努力을 하겠다고 那業計劃書를 내서 銀行이나 監督院에서 그만하면 됐다고 평가했는데 불구하고 바로 2月13日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한 18日정도 되네요. 自救計劃書 낸지... 2月13日 關聯銀行長會談에서 銀行監督院에서 2月13日 10時에 모여가지고 國際「그룹」에 대해서 監理團을 파견하고 銀行管理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梁正模 한 1週日밖에 안됩니다.

○金東圭委員 아니 글썽 그대 銀行管理에 들어갔는데 監理團을 파견해서 2月13日 銀行管理에 들어 갔는데 85年2月21日 그러니까 13日에서 21日이면 딱 1주일이지요. 1주일만에 第三者 引受에 의한 國際「그룹」正常化對策이라고 해서 國際「그룹」을 解散措置를 한 것이 맞지요?

○證人 梁正模 예.

○金東圭委員 그런데 그 사실을 梁正模會長이

언제 通報받았느냐 하면 解體되던 날 아홉時입니까 열時입니까?

○證人 梁正模 아홉時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년 것이 아홉時半에서 열 時 사이에 만났읍니다.

○金東圭委員 解體發表는 열한時에 했지요?

○證人 梁正模 예.

○金東圭委員 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얘기고 싶습니다.

資金事情이 나빠진 것이 그 전에 11月경이고 그리고 그 이듬해 75年1月에 自救計劃書를 내서 銀行이나 監督院이 그만하면 잘 되어서 그렇게만 해 주시지요 하고 평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總選이 끝나자마자 銀行管理로 들어갔고 銀行管理로 들어가면서 監理團을 파견했는데 적어도 監理團이 나가서... 國際「그룹」이 20個社 아닙니까?

그 20個社의 財務狀態나 모든 것을 營業狀態를 분석하려면 아무리 「라프」하게 하더라도 한달 내지 두달은 걸려야만 나는 외곽이라도 파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經濟를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監理團을 내 보내놓고 1주일만에 電擊의으로 會長한테는 아홉時半에 通報하고 열한時에 발표를 했다 「그룹」이 20個「그룹」이 解體됐다.

아마 鄭周永會長도 午前 證言에서 이런 것을 보고서 經濟論理的으로는 잘못됐다고 證言 하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20個이상 系列企業을 가지고 있고 10大 財閥中에 들어가고 1년에 輸出量이 10億弗정도 되지 않았읍니까?

○證人 梁正模 10億弗이 넘었습니다.

○金東圭委員 넘었지요. 그런 會社를 하루 아침에 會長한테는 아침에 通報하고 열한時에 解體를 해 버렸다 이것이 銀行長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財務部長官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經濟企劃院長官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斗奎煥씨가 아까 술자시면서 한 말 마따나 미운놈은 내가 죽인다면 죽인다 그 방침에 의해서 단행된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心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張世東證人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의 聽聞會에서 제가 왜 격

분을 했었느냐 하면 11월에 某 日刊誌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손에 「글러브」만 끼고 「팅」에 올라가면 모두가 불행해질 테니까 나를 전드리지 말아라 하는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國會에 와서 그러면 國民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실을 알려줬다면 저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태가 다시 안와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서 이 證人訊問이 끝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質問

崔順達理事長이 國際「그룹」에 대해서 非協調的이라는 報告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證人 張世東 받은 적 없습니다.

○金東圭委員 良心의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張世東 예. 警護室長이 그러한 것을 報告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고자질하는 정도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金東圭委員 그 당시는 日海財團을 全의으로 사실상 管理를 張世東證人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가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報告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證人 張世東 없습니다.

○金東圭委員 말로 한 것이니까 끝까지 偽證 하셔도 좋은데 사실을 사실대로만 얘기만 해주세요. 저는 확실히 이것은 報告를 받고 大統領께 報告를 해서 어떠한 罪에 해당된 措置였다. 이렇게 밖에는 心證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質問은 張世東證人 생각을 해 보십시오.

發起人들도 직접 警護室長室에 불러서 發起人 줌 받아 주십시오 해서 받았고 理事會도 1·2次는 警護室長室은 아니지만은 警護室에서 判官하고 있는 安家라는 데서 했다고 그리고 定款도 張世東警護室長이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證人 張世東 그렇습니다.

○金東圭委員 定款도 만들고 아까 證言에서도

나왔지만 張世東證人하고 그 鄭周永證人하고 張世東證人이 警護室로 오라고 그래서 같이 垆地도 물색하려 다녔고 그랬지 않습니까?

垆地 물색하려 다녔지요?

○證人 張世東 예.

○金東圭委員 또 한동안 다른데에 땅을 살려고 하다가 돈이 미치 안되니까 全斗煥씨한테 돈을 빌려서 계약했다 도로 解止해서 되돌려준 일도 있지요?

○證人 張世東 예.

○金東圭委員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강제성이 없다고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강제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강제성이라고 생각하시길래 강제성이 없다고만 자꾸 證言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價値基準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金委員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으로 보서는 그 당시에 財團設立이라든지 이런 것은 警護室長의 기본직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서 물론 나중에는 財團理事長이 있고 그 다음에 趙成熙씨가 저기에 왔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지만은 그 이전에 定款의 基礎草案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제가 그것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基礎的으로 自轉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을 해 주고 나머지는 理事長을 비롯한 理事會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돈 문제는 제가 金錢事故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東圭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과 또 세 번째는 지금도 張證人이 말했습니까마는 通帳과 圖章만 관리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 봐서 타가라고 그래서 돈 내었다 사실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證人 張世東 맞습니다.

○金東圭委員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을 내는 業界의 대표들로 보서는 그 돈이 그날 저녁이면 趙成熙를 통해서 通帳이 되어 가지고 警護室長室로 간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 돈 안내고 배기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金東圭委員 그러니까 제 얘길 들어보세요.

직접 文書로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서 그날그날 수금을 하면 그날 그날 通帳에 넣어서 그날 저녁이면 警護室長 책상으로 들어 가는데 그것을 아는 企業인들이 어떻게 割當金額을 안 내고 배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 중에는 自意로 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강요된 상태다 상황이 강요된 상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실상 강요된 상황이라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證人 張世東 자꾸 저기다 수식어를 넣어 가지고...

강제면 강제로 강제 아니면 아닌 것으로 들중에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지 사실상이고 實質의이고 기기에 美辭麗句를 형용사를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答辯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기로서 생각입니다. 우리 金委員님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상의 강제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마는 저로서는 良心의으로 좀 그거하지마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經濟인들이 성급 히나히나를 내는데 물론 어려움이 제시겠지요. 어려움이 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황 모든 여건으로 봐서 우리 함께 거기서 공명으로 했지 割當을 하셨다고 鄭會長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서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金東圭委員 그 얘기는 여러번 들었구요 제가 證人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엄청난 게 공포분위기하에서 예를들면 그날그날 入금이 바로 靑瓦臺로 들어간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라는 날 더구나 돈 내라고 1次 割當해 가지고 낸 것이 4월부터 6월까지 내라니까 썩 거쳤지 않습니까?

○證人 張世東 그러면 金庫도 없는 사무실에서 만일 10億이고 20億이고 들어와서 그것이 그날 저녁에 분실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입니까?

○金東圭委員 어쨌든 靑瓦臺에서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돈을...

○證人 張世東 제가 통장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金東圭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세요. 자꾸 얼굴 붉힐 것 없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꾸 張證人은 절대로 強制性은 없었다. 전부 自發的으로 너도 나도 해서 낸 것이 600億이 되었다. 이러한 論理고 저희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이것은 안내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이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냈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자진해서 낸 사람도 있고 아까 鄭周永證人께서도 얘기가 있었읍니다. 100億까지는 자진해서 협조를 했고 그 이후로는 할 수 없이 냈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證人 張世東 제 고집적인 말씀만 듣지마시고요.

○金東圭委員 자꾸 나 혼자가지고 오늘 승부를 낼 생각은 없어요. 도저히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그 다음 우리 委員들이 있으니까 저는 저대로 만 것을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鄭周永證人에게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는 國會議員뿐만 아니고 言論社도 다 있고 國民들도 직접 觀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午前에 個別訊問하시는 데서 時流 時流하는 用語를 많이 쓰셨읍니다. 時流라는 用語를 그래서 委員長께서도 이것이 잘못하다가 자라나는 애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企業家의 정신에 대해서 뭔가 잘못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의도 계셨읍니다.

제가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經濟는 專門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經濟는 어느 나라고 資本主義면 資本主義 정신이 있습니다. 西歐資本主義는 基督教文化가 그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利潤追求 그리고 희생 그리고 奉仕나 社會還元 이것이 基督教文化의 정신아닙니까? 이것이 西歐社會의 西歐資本主義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價値意識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西歐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日本은 日本 나름대로의 集團資本主義文化가 발달해 가지고 저기는 물론 「맥아더」 司令部에 의해서 단행이 되었읍니다라는 家族財閥이 軍閥도 해체되었고 2次大戰後에 家族財閥이 해체되었지 않습니까? 「미스이」 「미쓰비시」 이런 예가 「이도주」도 그렇습니다마는 3% 미만의 株式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國民企業化되었기 때문에 國民들이 財閥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國民들이 욕을 안합니다. 이래서 日本의 資本主義가 세계에서 제일 발전하는 資本主義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 韓國經濟는 그 동안에 獨裁權力이 워낙 長期間 지배했기 때문에 時流라는 말가지고 어느정도 얘기가 됩니다. 왜 되느냐 하던 뭐 말 안들으면 재미 못본다 하는 것을 뻔히 알으니까 하라는 대로 안따라갈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가고 새시대가 오고 政治的인 民主主義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적어도 財閥의 元老이시고 全經聯의 名譽會長이신 鄭會長께서는 이것은 새로운 政治秩序에 맞는 새로운 企業家 정신과 資本主義體制를 한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가 지금 貧富隔差가 심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지나간 것은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政府에서 할 일이 있고 民間企業에서 해줄 일이 있습니다.

政府에서 할 일은 稅金을 있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財政支出을 통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골고루 물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政府에서 할 일이고 民間에서 할 일은 稅金만 냈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 企業은 이제부터는 國民企業이다. 따라서 아들이나 형제간이라도 企業의 적성에 맞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쓰시고 어지간하면 우리 나라에서 쓸 수 있는 專門經營人體制로 바뀌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고대 여러 委員들이 지적을 했읍니다만 그 會社의 장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投資라든가 留保를 갖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시면서도 가능하면 다른데서 줄여서 勤勞者關係라든가 기타 政府豫算이 손 못 미치는 그런 어려운 데를 좀 다독겨주는 그러한 企業家精神으로 우리가 定立을 해 나갈 단계가 됐기 때문에 時流 時流하는 말은 과거에나 우리가 그랬지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감사합니다.

아주 金東圭委員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의 指向的인 것이 金東圭委員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指向하는 것이 좋습니다. 家族本位보다 專門經營人本位 그렇게 指向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時流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데 자주 時流를 문제시 하고 時流라는 말을 좋지 않은 뜻으로 쓰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또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時代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 時代 그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時代 그 흐름을 따른 것은 좋다고 장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우리 國民이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 時代의 흐름은 좋은 것은 定立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時流가 어떤데 비워맞추고 쓰는 그런 단어로 안되기를 나도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 앞으로 參考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金東圭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濶 다음은 洪熙杓委員 對質訊問해 주세요.

○洪熙杓委員 洪熙杓委員입니다.

세 분 證人께서 오늘 나오셔서 함께 質疑를 드리게 된 것을 다소 죄송하게 생각도 합니다마는 지난번 個人의 證人들에 앞서 물었을 때 서로의 意見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확인하고자 하고 同僚委員들이 質疑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가 옳고 그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세 분하에서 다시 再定立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鄭周永證人께서 나왔을 때 本委員이 고향 先輩라고 했다가 일부 言論의 倫理와 道徳을 초월한 「가십」을 받기도 한

일이 있어서 이것을 이 기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러울수록 우리 社會生活의 倫理와 道德이 확립돼야 된다는 것을 재강조 하면서 質疑에 들어가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세 분에게 존칭을 쓰지 못하고 證人으로 호칭해서 호명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저희 質疑에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鄭周永證人에게 質疑를 합니다. 京畿道 城南市 始興洞 일대에 證人께서 電子研究團地를 세우려고 敷地를 買入했다가 허가가지 않아서 그 땅을 日海財團에 증으로써 일부를 사용하고자 했다고 證言을 했는데 그 뜻은 변함이 없으시죠?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洪熙杓委員 또 證人께서는 그곳은 證人이 買入할 당시 自然綠地地域이기 때문에 證人께서도 電子團地를 세울 수 없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마는 現代가 하지 못한 形質變更을 日海財團에서 한 것을 보면 그 許可에 있어서 官權이 개입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洪熙杓委員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張世東證人에게 물읍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敷地를 日海財團이 垆地로 선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땅을 사겠다고 證人이 먼저 提案을 했습니까? 아니면 鄭周永證人께서 팔겠다고 먼저 提案을 했습니까?

○證人 張世東 제가 요청했습니다.

주실 수 있느냐고 제가 간청했습니다.

○洪熙杓委員 고맙습니다.

그 땅의 用途가 建築을 할 수 없는 自然綠地地域임을 證人도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張世東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린벨트」와는 달리 研究所 學校 郵遞局 또는 유치원 기타 이런 施設은 하도 특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洪熙杓委員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城南市長을 靑瓦臺로 불러서 금일봉도 주고 보이지 않는 격려도 해 주면서 알아서 해라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그 후의 형질변경 등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댓가로 城南市

長은 다른 곳으로 영전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證人들에게서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證人께서는 城南市長에게 격려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지난번 證言을 했는데 그 격려금이 公金으로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證人의 개인돈으로 격려금을 준 것입니까?

○證人 張世東 물론 직책이 의한 辦公費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洪熙杓委員 그렇다면은 證人의 행동이 뇌물수수 및 공여죄에 해당된다고는 오늘에 생각지는 않습니까?

○證人 張世東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研究所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城南市長이 관할하고 있는 것은 특히 서울기지가 김포공항에 모든 國際人들이 드나들므로 인해서 國賓이 오는데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國賓이 올때 두시간 네시간을 세워놓음으로써 국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서울기지를 國賓오는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모든 淨化事業 내지는 팔주로를 넓히는 작업의 여러 가지 사항을 그 사람이 수고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洪熙杓委員 제가 묻는 뜻은 日海財團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했고 그러한 것을 도와준 것으로 사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質疑한 것입니다.

무슨 비행장 팔주로 무슨 淨化 무슨 綠地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日海財團에 국한되어서 사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사례의 정도… 액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의 그때 추석인가 무엇때문에 격려금으로 주었습니다. 와서 茶한 잔 마시고…

○洪熙杓委員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다시 鄭周永會長께 質疑를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그 땅이 寄附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팔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日海財團의 대지에 대해서 물읍니다.

○證人 鄭周永 그때 부득이한 환경으로 寄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안 받았으니까

뭐 판 형식을 취했지 뭐 寄附한 결과가 되었습니까.

○洪熙杓委員 寄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때 口頭로 돈을 받으라고 아까 張世東 證人이 말했는데 口頭로 했습니까? 혹시나 보수라도 보이면서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냥 돈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洪熙杓委員 말로써... 에. 알겠습니다.
張世東 證人에게 다시 質疑합니다.

땅을 명목상으로 寄附한 사람에게 反對給付의인 행동을 안한 것은 공갈 내지 협박에 의한 強制寄附가 아닌가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張世東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저는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비약하게 생각 안했습니까?
○證人 張世東 예.

○洪熙杓委員 그런데 사실은 두분의 말이 받으라고 해도 받지 않았다고 張世東 證人은 그 때 당시 처음 나왔을 때 證言을 했지만 그냥 鄭周永 證人은 그냥 영수증하고 모든 서류 다 해주었지 나는 그러한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런 돈을 챙기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사실은 偽證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두분중의 한분이... 그래서 제가 再質疑를 하는 것입니다.

○證人 張世東 아니요. 偽證問題는 여러분들이 法律的으로 판단하시고요. 저희들은 말씀을 진실적으로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간청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자고 鄭會長님께 말씀을 올렸다고 그러고 돈을 會長님 하고 제가 거래를 안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갖다놓고 그것을 돈을 내는데 받으십시오. 이렇게...

○洪熙杓委員 예. 좋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證人에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社會的으로나 倫理的 道德的으로 鄭周永 證人이 혹 문제 있는 것을 張世東 證人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있습니까?

○證人 張世東 어떤 문제...

○洪熙杓委員 道德的이나 社會的 倫理的인 문제 어떤 그러니까 약점을 아는 것을 혼자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證人 張世東 그런 것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없습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證人 張世東 예.

○洪熙杓委員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1984年12月3日 오후 네시 30분에 日海財團 3次 理事會에서 非理의 은상인 日海財團의 本部 및 安保統一研究所의 建立計劃이라는 長期缺權의 음모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최측은 만찬을 주도하여 財團들의 의중을 감지하려고 시작한 것으로 그때 만찬을 유도한 것으로 보는데 鄭周永 證人께서는 당시의 느낌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고요. 어쨌든 100億을 모으기로 그렇게 모두 의논이 됐다니까 고마워서 저녁을 줬다 이렇게 느끼지 복잡하게 생각 그렇게 안 했습니다.

○洪熙杓委員 혹시 그때 느낌이 위압적이거나 혹은 아까 梁正模 證人이 말한대로 가시적이거나 어떤 위압감은 느끼는 분위기는 없었습니까?

○證人 鄭周永 우리는 제 시간에 다 갔고 梁正模 證人 얘기하는 것을 쪽 보면 자기가 늦게와서 여러 가지 자기가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 했습니다.

○洪熙杓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張世東 證人에게로 바톤을 넘겨 보겠습니다.

梁正模 證人에 대해서는 앞에 同僚委員들이 너무나 많이 質疑를 했고 梁正模 證人이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제성이라고... 이 梁正模 證人씨의 이야기는 證人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證人에게 받은 설움이 國際「그룹」이 空中分解됐다 하는데 證人이 梁正模씨에게 행한 당시의 靑瓦臺에서 空中解體하게끔 했다고 하면 이 사실이 좀 너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證人 張世東 우선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警護室長이...

○洪熙杓委員 아니 靑瓦臺... 그렇게 되면 전에 모시던 前職大統領도 해당이 되겠지요.

아까 분명히 靑瓦臺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지요?

○證人 張世東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洪熙杓委員 大統領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까 나왔지 않아요?

○證人 張世東 그것은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동안에 우리 梁正模會長님께서 經濟元老이신데다가 줄지에 大企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얼마나 물론 마음의 충격이 크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 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정경으로 봐서 이것은 警護室長이 했지 않았느냐 또는 패쇄罪로 그거 하지 않느냐 뭐 崔順達이가 報告를 했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있을 수도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그러면 自然人 張世東證人에게 묻겠습니다.

國際「그룹」의 도산을 한마디로 어떻게 自然人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저는 安企部長 간 다음날 國際「그룹」이 도산이 났습니다.

염려했던 것은 國內問題는 빛이 있거나 운영을 잘못 하셨거나 그런 것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梁正模會長님이 經營하는 國際的인 상황에 國際公信力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내 밑에 있는 實務者를 통해서 經濟分野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國內問題는 주고받거나 하고 國內問題는 그렇게 하지만 國際公信力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참고적인 얘기를 해주었을 뿐 그 외에는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추호의 良心에 가책을 받을 일은 하지 않았나 이런 뜻입니까?

○證人 張世東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日海財團 배후음모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張證人은 주위 사람에게 大統領이 퇴임한 후에 先進國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에 대해서 研究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張世東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아니 누구에게 그런 걸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證人 張世東 한 적도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그러면 鄭九鎭씨의 88 平和의 政權 交替를 위한 報告書를 본 사실은 있습니까?

○證人 張世東 報告書는 86年度에 봤습니다.

○洪熙杓委員 그 報告書를 86年前에 警護室長으로 있을 당시 본 적은 없습니까?

○證人 張世東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혹 「아웅산」事態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구두로 들은 적도 없습니까?

○證人 張世東 들은 바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鄭九鎭 前證人께서는 그러한 研究 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난번 證言에 나와서 했습니다.

○證人 張世東 저도 TV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洪熙杓委員 그러면 잘못 됐다고 그러면 또 자꾸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것은 시정하는 國民이나 우리 모든 委員들이 또 證人들이 판단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質問을 하는 것은 이러한 報告書에 의해서 계획된 日海財團이 「아웅산」事件을 기화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서 그 사실을 규명해 보려고 質疑를 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아웅산」事件에 의한 유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실이 사전에 計劃이 되어오지 않았느냐 鄭九鎭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실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또 否認하시니까 저에게 配當된 時間이 너무 짧아서 다른 분들이 추가해서 質疑해 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質疑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日海財團의 構成員 比率이나 버마의 「네윈」將軍이 이끌고 가는 그 執權層의 구조라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時間이 있다면 캐고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의 質疑가 있기를

원하면서 저는 다른 質問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鄭周永 證人 께서는 日海財團의 設立者라고 하시는 全斗煥 前大統領의 생일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周永 모릅니다.

○洪熙杓委員 한번도 생일에 초청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證人 鄭周永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그렇다면 日海財團의 開所式을 全斗煥 前大統領의 생일과 똑같은 1月18日 날짜로 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洪熙杓委員 그러면 張世東 證人 께서 이 문제가 우연의 일치로 1月18日에 開所式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르면 그러한 의의있는 일... 日海財團이니까 아마 혹시 그 날짜를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洪熙杓委員 그러면 끝으로 質問을 하겠습니다.

1987年8月14日 8次臨時會議에서 日海財團의 理事長은 全經聯會長이 當然職으로 하자는 것은 6.29宣言 이후에 全經聯 자체에서 나온 반발을 무마하려는 뜻에서 나온 의견인지 그렇지 않으면 設立者의 지시인지 鄭周永 證人 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鄭周永 우리 出捐者들 마지막 理事會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당시 理事長인 분이 研究所長이지요. 研究所長 그 분이 企業人들이 전부 理事職을 내놓고 새로 社會著名人士로 理事會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서 召集된 臨時理事會입니다.

물론 解體되는 理事會는 아무 議決權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온 모든 社會著名人士들이 日海財團理事會를 만들어서 運營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돈은 全經聯會員들이 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1次에 돈을 배당한 책임감도 있고 해서 또 돈을 낸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주 잘 쓰여지고 잘 발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社會著名한 人士들이 理事가 되니까 잘 하겠지만 돈에 대한 판리는 出捐者들이 더 잘 할 것이고 또 企業人이니까 잘 할 것이다 그래서 全經聯協會會長인 具滋暉씨를 當然職으로 우리가 建議할 것을 여기서 決議하자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全經聯會員들이 理事陣이고 거기에 商工會議所會長이 鄭壽昌씨였기 때문에 鄭壽昌씨한테는 내가 지명을 해서 鄭壽昌會長님 異議없습니까 물으니깐 異議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研究所長인 그 분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아무도 異議없이 그렇게 建議하는데 대해서 異議를 하지 않고 滿場一致로 결정을 했습니다.

○洪熙杓委員 그러면 設立者 全大統領의 뜻은 전혀 거기에 介入되지 않았지요? 자발적으로 全經聯에서 그렇게 추대한 것이지요?

○證人 鄭周永 제 의사로 發議했고 그때 理事陣들 앞에 얘기한 두분 내놓고 전부 全經聯會員들이기 때문에 다 찬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洪熙杓委員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張世東 證人 께서 88平和的 政權交替의 서류를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 서류가 오늘 合法化되었다면 오늘 이 순간 어떻게 國家의 變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參謀研究所 個人的 參謀研究所라고 했습니다. 參謀들만이 연구하는 參謀研究所가 아니라 어떤 國民 전부도 연구하는 研究所가 결국은 參謀研究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 사람의 備忘錄인데 그때도 여러 사람이 여러 機關에서 다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0年代誌도 나온 現代社會研究所 각 곳에 다 나온 정황이 있는 사람들 전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鄭九鎬社長이 불러다 확인을 하니깐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당돌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얘기 나오면 後繼者問題하고 後繼者條件 權力構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몇가지 하면 16절지 한장이면 되고 머리속에 구두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오해를 받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힐책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日海財團과 연결이 되고 또 이게 事後 幕後權府 여기까지 해서 大統領의 任期를 나고 난 다음에 權力構造까지 연결시켜서 오늘날까지 오해된데 대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속된 말로 한번 건의한 대로 그것을 파헤쳐 가지고 전체를 하지 못한 것을 자책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연 동 떨어진 생각이고 누구도...

○洪熙杓委員 證人! 동떨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國家元老諮問會議가 1級秘書官 事務處長에서 長官級事務總長으로 변경된 사실은 아시지요?

그것은 그때 당시 靑瓦臺「팀」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證人 張世東 長官級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事務總長...

○洪熙杓委員 그리고 그 人員이 일곱名에서 70名으로 늘은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證人 張世東 人員構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조는 바꿀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洪熙杓委員 해 보려고 했다고 하면 끝까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證人 張世東 아입니다. 아닌 것을 왜 그것을 강요를 합니까?

○洪熙杓委員 國政諮問會議같은 機構 확장된 것이고 또 모든 國家의 政策을 관장하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니요?

○證人 張世東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니까 저로서는 확인하는 말씀만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것을 결정을 하십시오. 그것을 저한테 강요된 긍정적인 答辯을 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제 뜻을 전부다 본 그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洪熙杓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좀 맞아나가지 자꾸 안 맞아나가지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제가 참고로 하고 우리 委員會에서 다시 어떤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상 本委員의 質疑를 모두 마칩니다.

○委員長 李基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時15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各 交涉團體別로 지금 對質訊問을 한바퀴씩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방에 계시는 委員들 그리고 傍聽人들 言論人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 15分 가량만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13分 會議中止)

(17時36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聽聞會를 續開하겠습니다.

對質訊問을 계속 하겠습니다. 民正黨의 趙庚穆委員 對質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庚穆委員 民正黨의 趙庚穆委員입니다. 그동안 우리 聽聞會가 여러차례에 걸친 聽聞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同僚委員들과 證人들의 答辯을 통해가지고 日海財團의 과거 非理에 관한 是是非非는 이제 다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日海財團 非理에 대한 整理 段階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設立背景이나 趣旨에 관해서 前任 大統領이 밝혔듯이 「아웅산」의 遺家族을 위하자는 소박한 目的에서 出發했지만 設立하는 과정에서 施設이 過多하고 資金을 過多하게 募金을 했고 또 目的이 變質되면서 많은 무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資金造成的의 強制性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視覺이 있겠습니까마는 梁正模證人이 午前中에 밝혔듯이 받는 사람은 強制하지 않았더라도 내는 사람은 強制性을 느꼈다고 적절히 證言하고 있습니다.

또한 前任 大統領도 지난번에 對國民 謝過 談話를 통해서 日海財團 募金에 관해서 舊及을 하면서 現職 大統領이 主管하였기 때문에 募金에 無形의 壓力이 되었던 것을 미처 몰랐다 잘못을 是認을 하셨습니다. 本委員은 이제 이 事件을 注視하고 있는 많은 國民들은 과거의 잘못이 다 밝혀졌으니 앞으로 日海財團의 財產이 國民을 위하여 얼마나 슬기롭게 使用되고 어떻게 運營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基調下에서 證人들에게 몇가지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鄭周永證人께 묻겠습니다.

鄭證人께서는 證言을 통해서 鄭證人이 내신 아마 54億정도 되실 것입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냈는데 일부 내키지 않게 基金을 出捐해서 그 내키지 않게 出捐한 부분에 대해서는 強制性이 좀 있다고 그렇게 아마 느끼시고 證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理解를 합니다.

그래서 鄭證人께서는 이 強制性에 의해서 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기왕에 이 財團을 위해서 出捐을 한 것이기 때문에 國民과 國家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答辯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낸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 日海財團의 歸趨가 어떻게 決定할는지 모르지만 낸 분들에게 다시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議論이 꼭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趙廣穆委員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議論하는 과정에서 國民과 國家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證人 鄭周永 제 個人 생각은 그렇습니다. 國民과 國家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주 用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意見은 서로 물어보아서 가장 效率的인 方案으로 쓰도록 돈 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의 意見이 參酌되기를 바랍니다.

○趙廣穆委員 그러면 제가 證人께서 여기서 證言을 하시면서 몇가지 日海財團의 未來에 대해서 證言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運營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그 日海財團이 國民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施設들이 活用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같이 出捐한 財團企業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이것을 議論할 現 政府와 또 社會 아주 著名한 人士들과 또 또는 出捐한 사람들의 意思도 다소 議論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出捐한 사람들의

뜻대로 고집대로 되기로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兼意를 모으면 가장 效率的으로 좋은 方案으로 意見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趙廣穆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研究所 敷地하고 관련되어서 證言을 좀 들겠습니다. 鄭周永證人께서 당초에 研究所 敷地가 1 내지 2萬坪이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셨었지요? 처음에요.

○證人 鄭周永 예. 그렇습니다.

○趙廣穆委員 그러다가 張世東證人께서 한 5萬坪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뜻이 아닙니까?

○證人 鄭周永 그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주위를 좀 다듬어서 한 5萬坪 더 사서 넣는다 이랬기 때문에 그 地地를 넘겨 주는 것으로 체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趙廣穆委員 張世東證人께서도 敷地가 한 5·6萬坪이면 족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셨습니까?

○證人 張世東 예. 대개 처음에 計算하기로 3萬 내지 한 5萬坪이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그 地地는 平地는 한 3萬坪 내지 5萬坪이 되고 나머지는 山으로 전부 둘러쌓여 있습니다.

○趙廣穆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日海財團의 地地가 21萬坪입니다.

本委員이 海外에 有數한 人文 社會 系統의 研究所나 自然科學系統의 研究所를 방문할 機會들이 많았고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KDI 開發研究院도 제가 알기로는 敷地가 3萬坪 내지 4萬坪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研究施設을 建設하고 研究를 할 수 있는 敷地인데 21萬坪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 敷地가 過多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鄭周永會長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鄭周永證人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부 地地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분들이 이제 議論하겠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著名한 人士들이 또 議論을 하겠지만 적절하게 그렇게 하고 나는 지금 현재 日海財團 뜻지

않은 우리 나라 모든 國家와 社會를 위해서 일을 하는 財團에게 어떻게 적절히 按配해 주는 것이 좋겠다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庚穆委員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施設 建物 關係도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研究 目的과 직접 關聯이 없는 迎賓館 1·2 라든가 本館建物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호화롭다고 느꼈습니다. 世界의 우수한 우수한 研究所는 이 建物보다도 研究業績이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고 또 研究員의 資質이 높은 것이 그 研究所가 훌륭한 研究所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日海研究所의 研究目的을... 주가 되는 事業이 平和 安保 統一등 이런 分野가 主로 遂行하는 分野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統一院이라든가 安保研究院이라든가 安企部라든가 또 各大學에서 大學 教授들도 이런 分野에 많은 研究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獨立된 研究所에서 이것을 하는 것과 현재 있는 既存機關에서 研究하시는 분들이 研究를 하는 것과 效率面이라든가 여러가지 研究를 活性化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決論적으로 現 日海研究所가... 지금 世宗研究所지요... 研究所 施設로는 그 敷地도 지나치게 과다하고 建物도 호화롭게 되어 있고 이러한 施設과 敷地를 앞으로 좀 國家와 國民을 위해서 최대한 유용하게 活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現時價로는 아마 1,000億이 좀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現 世宗研究所의 目的을 全面 좀 再檢討해가지고 鄭周永 證人께서 지금 理事長 이시지요. 현재요... 앞으로 예를 들면 後世 教育을 위해 事業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가지고 이 財產을 國家에 헌납하는 것등을 앞으로 理事會에서 좀 고려해서 措置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答辯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證人 鄭周永 趙庚穆委員님 말씀이 다 참작 되는 것은 좋은데 國家에 헌납한다 하는 것은 저는 共感하지 않습니다.

國家는 그런 民間 出捐 돈을 갖다가 헌납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國家의 威信에도 나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國家는 國家답게 위엄을 차려야 됩니다. 과거에 專制主義國家는 특히 個人財產을 갖다가 헌납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나는 國家에 헌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民間出捐 財團으로 여럿이 議論해 가지고 어떤 方向으로 敷地든 施設이든 活用하는 것을 생각하지 國家에 헌납하는 것은 나는 基本生理가 贊成을 안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趙庚穆委員 지금 日海財團의 法的 根據가 民法 44條이지요?

그 다음에 公益法人에 대한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의 適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지금 財團은 公益財團입니다. 公益財團이 그 目的事業을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財產을... 法律에 되어 있습니다. 1次的으로 主務官廳에 내고 또 2次的으로는 그와 유사한 公益法人에 이 財產을 出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證人께서 말씀하시는 國家에 헌납한다고 그래서 個人 財產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法律에 公益財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周永 예. 저는 그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財團은 使命이 남아 있습니다. 왜... 17名 죽은 그 未亡人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돌아가실때까지 生計費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設立目的事業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國家에 獻納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趙庚穆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證人께서요 約 100億 100億이면 5億 내지 10億 정도의 果實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遺族들을 위해서는 한 5億정도면 되시겠다고 證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證人 鄭周永 예.

○趙庚穆委員 그런데 현재 財產은 지금 아마 現時價는 1,000億이 넘으시죠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서...

○證人 鄭周永 예. 실지 財產은 그렇지마는 活用할 수 있는...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 100

億만은 遺族을 위해서 첫번 設立目的으로 存續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는 여러 나라의 어른들이 衆論을 모아서 하는 것은 아무 異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趙庚穆委員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현재 世宗研究所의 財團 理事長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 理事會에서 먼저 學論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學論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證人 鄭周永 현재 理事陣들이 學論하는 것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理事長이지만 그 定款대로 하면 理事長이 아무 權限이 없고 研究所長이 權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學論을 하면 거기에 많은 理事들이 이야기 할 필요 없이...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學論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理事陣이 어떻게 받아 들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趙庚穆委員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論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本委員의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 平民黨의 梁性佑委員 對質訊問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性佑委員 梁性佑委員입니다.

먼저 張世東證人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日海募金の 強制性을 否認하시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제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梁性佑委員 변함 없습니까?

梁正模證人께 묻겠습니다.

國際「그릇」의 解體前에 이 誠金을 내셨을때에 소위 말하면 政治誠金 새마을誠金이라든지 日海誠金외에 어떤 다른 誠金 또는 政治資金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證人 梁正模 그것 말고는 水災民資金이라든지 그러한 報勳資金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梁性佑委員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全斗煥씨 謝過解明 TV 會見時에 이 139億원 정도의 돈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證人 梁正模 예. 그것은...

○梁性佑委員 그 돈이 財閥들로부터 거두어낸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梁正模 그렇지요. 뭐 돈이 어디 댄데 나올 데가 없고 대강 企業體에서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梁性佑委員 예. 좋습니다.

梁證人께서는 84年4月 소위 日海財團의 募金 1次 募金이죠. 이 100億원의 割當時부터 強制性이 있었다 이렇게 證言을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證人 梁正模 그것은 大統領雅號를 따 가지고 財團을 만들고 또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좀 強制性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梁性佑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鄭周永證人께 묻습니다.

「아웅산」事件以後에 처음 23億원 그리고 1次 募金 100億원 이때까지는 自發的이었고 다음 鄭證人께서는 85年 이후부터 거역할 수 없는 強迫觀念 또는 저항 못할 심정으로 日海財團의 募金에 同參했다 이렇게 證言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심정이시죠?

○證人 鄭周永 그렇게 한것은 저항 못할 심정... 그렇게 具體的으로는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梁性佑委員 速記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證人 鄭周永 내가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내는 것이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사는 것이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證言은 첫번이나 지금이나 다 똑 같습니다. 보낼 것도 없고 뱉 것도 없습니다.

○梁性佑委員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證言하셨습니다. 心情的 強制性 다시 말하면 精神的 強制性이 있었다 이렇게 조금 전에...

○證人 鄭周永 어느 委員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 이렇게 말을 共感했습니다.

○梁性佑委員 證人の 말씀이십니다.

事實上的 強制性은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어떠한...

○梁性佑委員 精神的 強制性은 있었으나...

○證人 鄭周永 어떠한 勸諭이나 物理的인 強

制性은 한 일이 없었습니다.

○梁性佑委員 없었다... 張世東證人께 물습니다. 물론 張世東證人께서는 法律的 概念이야 무슨 상관이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強制性이란 말에 法律的 概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法律的 概念으로서의 強制性이라는 것은 情況證據로 보아서 相對方이 抵抗할 수 없는 狀況에 빠져 있는가를 社會通念으로 判斷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判斷은 主觀的인 判斷이 아니라 客觀的인 判斷인 것입니다. 그래서 強制性이라는 것은 客觀的으로 判斷하는 것이지 主觀的으로 지금 證人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判斷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5共和國의 權力の 核心部の 1人者인 全斗煥씨 2人者로 알려진 張世東證人 이런 분들이 日海財團의 募金에 뒷받침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客觀的인 狀況判斷으로 日海財團의 募金에 있어서는 強制性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돈을 낼 사람들이 抵抗할 수 없는 狀況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낼 사람들 자체가 抵抗할 수 없는 狀況이 엄연히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募金에 強制性이 있었다 이렇게 評價할 수 밖에 없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張世東證人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드린다면 日海募金の 強制性을 끝까지 否認하신다면 결국은 함께 앉아 계신 鄭周永 梁正模 두 證人과 함께 法庭에서 서로 이 強制性問題가지고 다투지 않으면 안될 狀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천한 知識이지만 이 正統性이 없는 政權은... 正統性이 없는 그 政權自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즉 費用이지요. 그런데 그 費用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企業體에서 調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몇몇치 못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5共和國 아래에서는 이러한 돈을 소위 誠金 바꾸어 말하면 準租稅性 誠金으로 충당했던 것을 우리나라 모든 4千萬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具體的으로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日海財團通帳件에 대해서 그 동안 수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張世東證人께서 85年2月29日 安企部長으로 취임하시기 전까지 警備室長으로 계시면서 이 通帳을 가지고 管理하셨다고 지난번 聽聞會에서 證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張世東 그렇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런데 이 通帳이 名義가 日海財團의 代表者名義로 되어 있었다라고 證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張世東 日海財團의 代表者名義...

○梁性佑委員 예. 代表者名義...

○證人 張世東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日海財團의 名義입니다.

○梁性佑委員 日海財團의 代表者名義로 通帳에 그 주인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證言에서...

○證人 張世東 日海財團의 名義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梁性佑委員 日海財團 名義입니까?

○證人 張世東 예.

○梁性佑委員 하여튼 張世東證人의 名義로 된 것은 아니지요?

○證人 張世東 아닙니다.

○梁性佑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通帳안에 들어 있는 돈이 돈이 日海財團의 設立目的에 提供되는 日海財團의 財産이나 日海財團의 設立目的에 提供되는 日海財團의 財産이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 있는 돈들이 日海財團의 設立目的의 寄附金 즉 政治資金이라든지 혹은 賂物등이 함께 들어 있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張世東 없습니다. 日海財團에 한한 事項입니다.

○梁性佑委員 日海財團의 設立目的에 提供되는 日海財團의 순수한 財産만 들어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張世東 예.

○梁性佑委員 그러나 저러나 證人께서는 이 通帳을 管理하셨고 또 入出金을 管理하셨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張世東 그것은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說明을 드렸읍니다마는 29個 業

體에 의해서 137億에 대한 事項이 日海財團 名義로 했고 제일 먼저 이회진씨가 사전에 窓口을 몰라서 저한테 가지고 온 10億 이 가운데에서 出入을 한 것은 事務用品 처음에는 趙成熙하고 崔順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事務用品을 그것 하다가 84年7月2日에 事務員이 보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한 2·3個月 사용하겠다고 通帳을 가지고 갔다 가져왔다 해서 나중에는 通帳을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長期性만 가지고 왔다가 後任 警護室長한테 제가 安企部長가면서 後任 警護室長한테 주면서 이것이 安全管理가 다 된 事務室이 완성이 되면 財團에다 引繼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梁性佑委員 예. 알겠습니다. 證人이 하여튼 日海財團의 財産이 들어있는 通帳을 個人的으로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張世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마는 通帳은 安全事故 때문에 제가 보관을 했던 것이지 만약에 처음부터 事務室이 完了되었을 것같으면 제가 돈을 관리하거나 通帳을 보관할 必要性이 없었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러면 하나만 그 부분에 묻겠습니다.

日海財團의 代表라든지 또는 日海財團의 法定理事陣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通帳안에 들어있는 돈의 入金事實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그때...

○證人 張世東 그것은 理事會에서 아마 이아가 나중에 研究所가 다 되고 建物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公式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張世東證人께서 그 通帳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시는 동안 入金事實이 계속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通帳保管하는 事項에 대해서는 몰랐으리라고 봅니다.

○梁性佑委員 예. 몰랐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證人 張世東 제가 金庫役割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몰랐읍니다.

○梁性佑委員 그렇다면은 張世東證人께서 個人的으로 入金도 管理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張世東 아까 말씀드린 대로 事務用品...

事務用品의 경우에...

○梁性佑委員 하여튼 간단히 答辯하면 그렇지요?

○證人 張世東 예.

○梁性佑委員 좋습니다. 鄭周永證人께 묻겠습니다. 84年10月17日 日海財團의 1次 定款改正時에 理事로 계셨지요? 日海의 理事로 계셨지요?

○證人 鄭周永 1次...

○梁性佑委員 예! 1次 定款改正時에... 創立 때부터 꼭 理事셨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꼭 理事로 있었읍니다.

○梁性佑委員 1次 定款改正의 主要內容中에 소위 5,000萬원의 基本財産을 19億2,000萬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알고 계셨지요?

○證人 鄭周永 그것은 모릅니다.

○梁性佑委員 그때 모르셨다고요.

○證人 鄭周永 예.

○梁性佑委員 1次 定款改正時에 會議에 參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證人 鄭周永 대부분 參席한 것으로 아는데요.

○梁性佑委員 參席하시고 도장도 찍으셨던데요. 定款改正 內容에...

○證人 鄭周永 대부분 參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도장은 직접 찍으셨습니까? 定款改正書에...

○證人 鄭周永 도장을 직접 내가 안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梁性佑委員 그러면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證人 鄭周永 찍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會議錄이 만들어지면...

○梁性佑委員 제가 會議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證人 鄭周永 제 事務室에 와서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지 나는 도장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찍은 일이 없습니다.

○梁性佑委員 하여튼 84年10月頃에 證人께서는 日海의 募金額이 서로 합의한 目標 募金額...

募金額目標額을 超過連城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는 알고 계셨지요?

○證人 鄭周永 그해 그해 당장 안 것은 아

니고 理事會때야 今年度에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梁性佑委員 그 額數는 기억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기억을 못합니다.

○梁性佑委員 예. 153億5,000萬원입니다.

○證人 鄭周永 기억을 못합니다.

○梁性佑委員 理事로 제셨으니까 日海財團의 主務官廳이 어디라는 것은 아시지요?

○證人 鄭周永 첫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번에는 文敎部인가 어디라고 하는 것같고 그후에 다시 또 外務部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예. 外務部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目標額 超過達城할 만큼 거두어들인 153億5,000萬원이 그 額數 그대로 主務官廳에 登錄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登錄되지 않고 19億2,000萬원만 登錄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合法的인 原則은 寄附에 의하거나 기타 無償으로 취득한 財産은 公益法人의 基本財産으로 해야한다라는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法律施行令이 있습니다 이 法을 지키지 않고 153億중에서 19億2,000萬원만이 登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證人께서는 알고 제셨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證人 鄭周永 모릅니다.

○梁性佑委員 예. 모르십니까?

하여튼 이런 거두어들인 財産全體를 法대로 主務官廳에 登錄하지 않은 것은 法律을 違反한 것이지요?

○證人 鄭周永 그런 것은 내가 생각을 안해봐서 違反인지 違反아닌지도 모릅니다.

○梁性佑委員 하여튼 常識의으로도 違反한 것이지요?

法이 있는데 그 法대로 規定을 지키지 않은 것은 法律을 違反한 것이지요?

○證人 鄭周永 나는 그렇게 따져서 法에 違反이나 아니나 이렇게 물어보면 法을 모르는 사람이 對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梁性佑委員 法을 모른다고 해서 모든 일이 免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내가 그것 免責이고 免責아니

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취급한 일도 없고 관련한 일도 없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러나 法을 모르고 어떤 失手를 범한다든지 잘못을 범함으로써 免責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내가 行爲者가 아닌데 그것을 저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梁性佑委員 아니 제가 묻는 것입니다.

常識的인 質問을 하는 거예요 理事이시니까...

○證人 鄭周永 나는 法에 대해서 具體的으로 體系있는 공부를 안해서 모릅니다.

○梁性佑委員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153億5,000萬원 金額이 主務官廳에 登錄되지 않은 것은 違法事項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張世東證人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企業에 여러 企業主들이 지금 日海財團에 贓金을 냈습니다.

이 贓金 내는 돈들이 거의 全額이 그 企業內에서 損費處理가 된 돈들입니다.

損費處理가 된 돈들이 日海財團의 寄附目的內에서 提供되고 쓰여진다면 이것은 合法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億2,000萬원만이 登錄되고 나머지 그 差額 134億3,000萬원이 張世東證人이 個人的으로 가지고 계신 通帳안에서 入出金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實定法 違反에 속한다라고 常識的으로 判斷되시지요?

○證人 張世東 글썽... 法에 관해서는... 法解釋하시면 되겠고요.

最初 그 計劃을 세울 때는 定款 最初目的에 다섯가지 事業計劃을 하면서 假豫算事業을 아마 大略的으로 定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4億 그 다음에는 한 19億 20億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贓金은 우리가 目的을 하는 소위 日海財團이 設立이 되고 學術 討議하고 國際的인 事項으로 해서 이것이 擴大되다가 보니까 그것을 100% 그대로 登錄하게 되면 事業計劃과 더불어 豫算 사용에 대한 節次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行政整理해서 맨 마지막에 建物이 完成이 되고 公開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예. 그런데요 그 이후로 이런 134億3,000萬원의 差額 뿐만 아니라 86年이라든지 또는 87年 定款 5次 6次 改正時에도 다 이런 差額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登錄되지 않은 財産들이 있습니다.

86年3月12日에는 230億8,000萬원이라는 財産이 있고 또 5次 改正日인 87年8月27日에는 73億원이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登錄되지 않은 상태에서 保管되거나 혹은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登錄되지 않은 財産 이것을 寄附目的에 背馳되는 財産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것으로서 寄附目的의 寄附金으로 判斷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寄附目的의 外의 돈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企業主들은 계속해서 2次 3次 이런 募金에 응했거든요 많은 돈을...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企業主들이 會社에서 돈을 빼서 誠金으로 낼 때는 損費處理를 해서 내지 않습니까?

損費處理 자체가 이런 目的의 外... 寄附目的의 外의 돈으로 誠金을 낼 때는 合法的이지 않아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가 常識의인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張世東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基金에 대한 額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동안에 그것이 100億으로부터 300億 또는 500億 大略의으로 定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出捐되는 그런 金額은 앞으로 事業計劃이 擴張이 되면서 正常的으로 발전하면서 쓰여질 것으로 저는 전부 알고 있고 登錄過程에 그런 事項은 그것은 行政的인 節次이기 때문에 제가 細部的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오나 85年度 86年度 그때는 마지막 段階에서 더 걸어야 될 것이냐 안걸어야 될 것이냐 하는 事項을 여러 證人들께서 나오셔서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더 걸지 말라 또는 果實金이 조금 적으니 조금 더 걸자 이런 것으로 해서 相讓해서 지금 598億인가 財産을 確保한 것으로 봅니다.

○梁性佑委員 예. 좋습니다.

○證人 張世東 이 財産은 建物은 不動產이 있고 실지 動產 可用한 것은 원래 目標했던

果實金 年間 30億 내지 40億 정도의 果實金으로 앞으로 財團 또는 研究所를 運營하는 計劃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제가 딱 한 가지만 鄭證人께 묻고 제 質疑를 끝내겠습니다. 鄭證人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日海財團의 寄附目的의 外에 돈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確認도 않으시고 지금 오늘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確認도 않으시고 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違法事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5億 15億 이런 식으로 돈을 2次 3次 내셨습니다. 이런 돈들은 물론 鄭證人께서는 鄭證人의 會社에서 낸 돈이니까 國會에서 무슨 干涉이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法人 稅法施行令을 違反한 상태에서 이런 돈들이 誠金으로 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日海財團의 寄附目的의 外로 돈들이 保管되고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誠金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日海財團의 寄附目的의 內에 符合한 돈이라면 그것은 合法的입니다. 아무리 誠金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寄附目的의 外로 쓰여지는 돈들은 분명히 國會에서라도 言及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法人稅法을 엄연히 鄭證人께서 여기면서 誠金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鄭證人께서 日海에 51億5,000萬원을 寄附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51億5,000萬원을 寄附하셨는데 앞에서도 普及이 되었지만 이 51億5,000萬원을 寄附함으로써 결국은 國民經濟라든가 또는 株主에게 損害라든가 負擔을 끼쳤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鄭證人께서는 經濟專門家이시고 責任있는 財界의 巨木이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가볍게 여기실지 모르나 저는 法律家라든지 또는 기타 會計士 등등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點檢해 본 바 결국은 鄭證人께서 寄附金 50億원을 納付함으로써 인해서 그 부분만 간단히 單純計算한다면 國民에게 결국은 또 똑같은 50億원이라는 國民負擔額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評價를 제가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鄭證人께서 예를 들어서 50億원을 寄附金으로 納付를 하지 않았었다고 할 때에는 株主

들의 配當금이 約 270億원이 남습니다. 제가 計算한 바에 의하면... 單純計算입니다. 그러나 50億원을 納付하므로써 27億이 「마이너스」된 243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따가 質疑 끝난 다음에 證人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圖表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鄭證人께서 50億원을 納付하시므로써 法人稅가 約 20億원이 減少되었고 會社積立金 減少가 約 3億원이 되었고 株主配當金 減少가 約 27億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合計 寄附金額數와 同一額數인 50億원이 減少되었다 이렇게 評價됩니다. 저의 單純計算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여러 日海財團에 寄附를 한 많은 企業인들이 500億이 넘는 돈을 寄附했습니다. 이런 돈을 한꺼번에 合計 計算해도 결국은 500億원을 寄附했다면 500億원이라는 株主와 國民들에게 負擔을 주는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評價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물론 鄭證人께 더 이런 문제를 確認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評價가 있기 때문에 日海財團의 募金の 強制性 등등을 國會가 確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50億이상의 돈을 鄭證人께서는 負擔없이 誠金으로 내시고 기타 새마을誠金 또는 등등 많은 誠金을 數百億 이렇게 내심으로써 결국은 國民 전체에게 負擔을 주고 租稅負擔을 주고 또 하나는 株主들에게 財產的 被害를 주고 또는 등등 當社에 그러니까 鄭證人의 會社에 勤務하는 勤勞者들 從業員들에게도 나뉠대로 損害를 끼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鄭證人께서는 늘 國會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냐고 時流에 부합하기 위해서 냐고 또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볍게 하시는데 이것이 國民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이에 대한 解明을 證人께서 간단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證人 鄭周水 梁性佑委員님 말씀하신 것 쪽 論理를 그렇게 따지니까 그것도 一理가 있는 것으로 解釋이 될 수 있는데 저는 基本的으로 우리가 모든 企業을 經營하는 세상을 살아갈 적에는 總轄的으로 이렇게 해서 總轄的으로 우선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細部로 檢討했을 적에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參考가 되는 말씀을 圖表로 만들었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 參考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國民經濟에 被害가 된다 稅에 被害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돈을 냐으로써 우리가 아무 精神的 負擔 없이 事業을 잘해서 더 많은 나라의 稅收를 增大하고 雇傭을 增大하고 技術을 開發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總轄的으로 國家나 國民經濟에 이익이 됐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梁委員님 의견에 전적으로 同感을 하지 않습니다.

○梁性佑委員 제가 이제 한마디만 結論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先覺들이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편은 鄭證人같은 분은 立志傳的인 人物이십니다. 또 張證人께서 앞으로 정말 참으로 反省하시고 정말 이 時代의 民主化의 實踐運動에 앞장서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또 梁證人께서는 앞으로 정말 會社를 되찾으셔서 健實한 經營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權力이라든가 또는 財閥사이에 밀착이 進行되고 그 過程에서 巨額들이 授受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5年11月28日입니다. 全羅北道 鎮安에 新陽里라는 곳에서 15年동안 里長을 하던 59살의 장만봉씨가 自殺을 했습니다. 그는 82년에 私債 17萬원으로 집을 넘겨 주었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마을 金庫빚 81萬원의 私債을 짊어졌습니다. 이 빚에 쫓기다가 결국은 장만봉씨는 悲觀自殺하고 말았읍니다. 그는 遺書에 이렇게 썼읍니다. "債權者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濶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統一民主黨의 沈完求委員 對質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完求委員 統一民主黨의 沈完求委員입니다.

먼저 鄭周水證人께 묻습니다.

88年5月13日 「롯데호텔」 36層 「비클리룸」에서 열린 運營諮問委員會 會議에서 在日僑胞

이회건씨 말이지요 이 분은 10億을 寄附한 본인입니다. 이회건씨가 理事職에서 削除된 것도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運營顧問委員 任命 역시도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發言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

○證人 鄭周永 어떤 公式會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저는 들은 일이 없었고요 어느 私席에서 자기가 어떻게 理事를 그만 두게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수롭게 들지않았습니다.

○沈完求委員 證人! 이 遠記錄에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證人 鄭周永 저는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나는 들은 기억이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다.

○沈完求委員 그때 鄭周永證人은 말하기를 設立한 側에서 理事를 變更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따라 理事會에서 解任을 決定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鄭周永證人은 앞의 內容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요 마지막 臨時會議에서 모든 出捐者들 理事들이 다 똑같이 그만 댔기 때문에 그 사람만 달리 取扱했다 이런 기억이 없고 달리 取扱했울리도 없고 달리 했울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형편에 따라서 다 그만 두게 됐는데 그 사람 혼자 不平을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沈完求委員 附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日海財團을 世宗研究所로 처음 改名을 하고 理事長으로서 거의 처음으로 열린 會議가 바로 이 「롯데호텔 버클리룸」입니다. 이 會議에서 鄭壽昌씨와 募金の 強制性을 두고 상당히 激論이 벌어졌고 그런 가운데 이회건씨가 이러한 陳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때야 이회건씨가 첫번째 募金を 削當할 적에 거기에 參席한 것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沈完求委員 아니 理事關係를 제가 물었습니다. 理事就任하는……

○證人 鄭周永 아니 「프라자호텔」에서 모임적에 돈 줄적에는 그때 이회건씨는 參席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沈完求委員 알겠습니다. 參席을 분명히 했습니다.

任員이 4명이 참석했고 委員 11명이 參席했습니다. 證人께서 기억이 잘 안나신다고 하시면 委員은 박성웅 박용락 이광학 이진희 이동찬 이종근 이준용 이회건 경형식 조중훈 崔順達씨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됐습니다.

○證人 鄭周永 그것은 「프라자호텔」이 아니고 「롯데호텔」일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沈完求委員 「롯데호텔 버클리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證人 鄭周永 아! 그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롯데」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나는 지금 첫번 모인 「프라자호텔」을 말씀 하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沈完求委員 됐습니다.

이제 梁正模證人께 묻겠습니다.

證人の 日海財團設立理事選任은 張世東證人에 의해 이루어졌고 解任은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決定되었다고 證言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證人 梁正模 예. 맞습니다.

○沈完求委員 鄭周永證人和 梁正模證人에게 함께 묻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초 理事會가 理事들의 뜻과는 關係없이 앞서 말한 設立者側에 의해 決定되는 것으로 보편은 되겠지요?

○證人 鄭周永 ……

○沈完求委員 證人!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證人 鄭周永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沈完求委員 앞서 제가 이회건씨의 예를 들었고 梁正模씨의 理事就任과 解任關係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초 理事會가 理事들의 뜻과는 關係없이 設立者側에 의해 決定되는 것으로 보편은 되겠지요? 梁會長님! 어떻습니까?

○證人 梁正模 제가 보는 대로는 그렇습니다.

○沈完求委員 鄭周永證人께서도 그렇게 보시지요?

○證人 鄭周永 예. 그렇게 봅니다.

○沈完求委員 다시 말해 日海財團은 조금 심한 말로 말씀이지요. 별로 이 財團運營에 關與할 생각도 없는 理事분들을 뽑아놓고 결국 그 調整은 設立者側에서 했다는 決論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鄭周永證人에게 물겠습니다.

證人께서 88年5月13日의 그 「롯데 버클러룸」 얘기입니다. 運營諮問委員會에서 말씀하신 設立者側은 具體的으로 누구를 指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設立者側이라고 하는 設立者側 누구를 指稱하는 것입니까?

○證人 鄭周永 設立者를 指稱하는 것입니다.

○沈完求委員 예?

○證人 鄭周永 設立者를 指稱하는 거예요.

○沈完求委員 더 具體的인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證人 鄭周永 여러번의 聽聞會를 통해서 設立者가 누구라는 것을 沈委員님께서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設立者를 指稱하는 것입니다.

○沈完求委員 答辯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제 張世東證人에게 물습니다. 本委員의 見解로는 張世東證人이 設立者側의 重要核心役割을 했다고 봅니다. 張世東證人은 日海財團 定款 作成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敷地物色 資金管理를 직접 主管하고 基金募金 助力者인 趙成熙씨를 總務部長으로 任命하는 등 사실상 日海財團 設立의 主導的 역할을 했다고 證言했습니다. 사실이지요?

○證人 張世東 맞습니다.

○沈完求委員 그래서 張證人은 基金 目標額을 처음부터 정해 놓지 않았으며 점차 확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張世東證人이 目標額이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다고 證言한 것은 強制性이 없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한 사실상의 偽證이 아닙니까?

○證人 張世東 偽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目標額을 정했으면 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안 정했으면 안 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敷地物色 定款…… 定款은 중간 단계에서 理事陣이 選任되면 얼마든지 修正할 수 있기 때문에 草案作成을 준비를 했고 資金問題는 최초 거쳐서 84年4月末서부터 6月末까지 29個 業體에서 들어온 137億에 대한 金錢事故 때문에 通帳管理를 했고 또 基金助力를 위한 總務部長이라고 하는 그런 職責은 行政要員이 없기 때문에 轉役을 앞둔 趙成熙씨를 保安司 命官의 협조를 받아서 行政要員으로 해서 理事陣이 選任이 되고 財團이 設立되서 自轉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제가 다 했습니다.

○沈完求委員 제가 말씀하신 데 대체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鄭周永證人이 말한 設立者側이라 함은 設立者인 全斗煥씨 그리고 日海財團 設立을 주도한 張世東씨 崔順達 初代理事長 鄭壽昌씨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設立의 代表格인 張世東證人이 崔順達 鄭壽昌씨가 알고 있는 目標額을 부인하는 것은 常識的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張世東證人은 警護室長 立場에서 基金募金과 관련해서 企業體의 代表들을 만난 일이 없다고 했지요?

○證人 張世東 그렇습니다. 基金募金 관련과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理事就任 承諾을 위해서 茶 한 잔 대접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沈完求委員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梁正樸씨의 證言에 의하면 梁正樸씨를 警護室長室로 불러서 日海財團 設立 理事를 맡을 것을 요청했고 앞서 말씀처럼… 또 寄附金을 日海財團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등 寄附金 募金에 사실상 관여했습니다. 사실이지요?

○證人 張世東 그것은 조금 解釋上의 차이가 있습니다. 理事陣도 大統領인 全斗煥 前任 大統領과 제가 選任을 한것은 아닙니다. 財界의 모든 그 당시의 理事選任問題는 「아웅산」에 「버마」에 약 50분이 같이 同行을 했었고 그러나 이 분들만이 전부 거기에 理事로 참여할 수 없고 또 財界에는 序列이 있고 年輪이 있고 元老의 年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끌고루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데 人員은 제한되어 있으니 어머머한 분이 좋겠는가 하는 사항은 당시에 商工會議所 會長이신 鄭壽昌 會長과 全經聯 會長이신 鄭周永 會長 이 두 분의 助言을 받고 또 全斗煥 大統領도 거기에 뜻을 밝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심부름을 해서 相議해서 만든 理事陣입니다.

따라서 「버어마」에 갔다 오지않은 분들도 참석하시게 되고 또 財閥序列 規模가 좀 적은 분도 참석하시고 僑胞중에서도 한분 참석하시고 젊은 經營人도 한 사람 참석하시고 해서 끌고루 분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完求委員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張證人は 寄附金募金の 強制性を 부인하고 있으나 梁正模씨의 證言에 의하면 警護室 아래의 會議室 또 다시 표현하면 安家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理事會를 開催케 해서 그 자리에 鄭壽昌씨가 募金 目標額 300 億을 설명케 한 強壓的 強制募金 募圍氣造成에 앞장섰다고 판단되는데 張證人は 이 점을 是認합니까?

○證人 張世東 外形的인 判斷은 그렇게 委員님이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警護室에 들어와 보시지를 앉아서 그 장소를 직접 확인을 안하시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 靑瓦臺內 警護室內 威壓的인 그런 募圍氣 또는 거기 들어오면서 으시시하게 뭐 여러가지의 의미도 더군다나 警護室長이 앞장서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101 警備團이라고 해서 警察이 지내는 막사가 헐어서 옛날 日本建物이기 때문에 헐어서 새로 지은 아직 開館이 안된 空 事務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警護室이나 靑瓦臺에서 모든 會議를 主宰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으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沈完求委員 이제 本委員의 견해는 全斗煥씨의 측근 즉 張世東 崔順達 鄭壽昌씨는 財界와의 事前 具體的인 협조 없이 募金目標額을 一方的으로 定해 놓고 걸음으로는 財界끼리 협조하여 이루어진 것같이 했으나 그러나 財界로부터 強制로 基金을 造成한 것으로 判斷이 됩니다.

저의 質疑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沈完求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民主正義黨으로 對質訊問順序가 넘어가겠습니다.

黃潤祺委員 對質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潤祺委員 民主正義黨의 黃潤祺委員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張世東證人에게 묻겠습니다.

日海財團設立과 關係해서 지난 11月7日 證人께서 證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證言의 내용은 警護室長의 立場에서 基金募金과 關係하여 企業體代表들을 個別的으로 만난 일도 없고 또 電話通話등 有形無形의 關與事實

이 없다고 證言을 했습니다. 그 證言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證人 張世東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理事就任 승락을 구하기 위해서 「커피」한잔 대접하고 뵙고 그 나머지는 經濟人은 주로 公式的인 事項으로 鄭周永會長님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뵙고 鄭壽昌會長님은 이번에 「버어마」관계 때문에 뵙고 그 나머지는 警護室長의 職責으로서 만찬 또는 公式行事에는 間接的으로 뵙었지만 이 基金에 關係되거나 또는 日海財團의 細部的인 事項때문에 企業人 個個人을 만나본 적이 없고 日海財團뿐 아니라도 全體的으로 公式的인 외에 個別的으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黃潤祺委員 그러면 證人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警護室長의 立場이 아니고 個人的인 立場 또는 警護室長을 떠난 立場에서는 日海財團의 設立에 關係해서 發起人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만난 일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證人 張世東 理事 就任 승락을 茶한잔 대접해서 대개 30分 간격으로 며칠간 해서 뵙었습니다.

○黃潤祺委員 그러면 證人이... 未確認된 내용입니다마는 證人이 듣기에는 83年11月21일부터 26日 사이에 發起人으로 丙定되어 있는 분들과 개별접촉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10月21日날 鄭壽昌씨를 만났고 또 11月21日에는 李煥鎔씨 金宇中씨 具滋曠씨 金昇淵씨 鄭周永씨 崔鍾賢씨 金相鶴씨 그리고 11月26日에 金錫元씨 梁正模씨 등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입니까?

○證人 張世東 예. 다 뵙고 한분한분 茶한잔씩 대접하고 相議를 했습니다. 그리고 李建熙씨는 海外出場이 있었기 때문에 못 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潤祺委員 그런데 이자리에 우리 鄭周永證人께서도 나와 계시고 梁正模證人께서도 나와 계십니까는 주로 이분들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사람별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충 집약을 해서 어떠한 對話를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財團設立에 關한 사항에 대해서 간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긴 얘기할

時間的 여유도 없고 해서 約 30分동안 말씀을 주고받고 그동안에 안부도 여쭙고 처음 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정도 했습니다.

○黃潤欽委員 그럼 주로 理事를 就任해 달라는 요청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그렇습니다. 그리고 細部的인 사항은 崔順達 理事長이 細部的인 說明을 하고 저는 財團設立에 필요한 理事 就任 승낙을 위한 사항으로써 그것도 사전에 대략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鄭壽昌씨 같은 분은 사전에 알고 계신 사항이고 다른 분들은 처음 만난 분이기 때문에...

○黃潤欽委員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가 例外 없이 大企業을 經營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證人께서 생각하기를 理事 就任을 권유를 해서 혹 그중에도 거절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證人께서 권유하면 거의 例外 없이 理事로 취임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證人 張世東 물론 個人 사정으로 못하실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뵈고 사전 승낙을 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黃潤欽委員 거절한 분이 있었습니까?

○證人 張世東 없었습니다.

○黃潤欽委員 本 委員이 알기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企業을 經營하는 분 같으면 이제 우리가 社會的으로 通念上 稅務查察을 굉장히 謹重하다 그 다음에 아마 大企業치고 銀行의 融資 負債가 없는 企業은 거의 없는 것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등등의 면이 있는데 이와 같은 면을 갖고 있는 企業의 代表者들에게 理事 就任을 권유를 해서 어떤 自律的인 측면에서 자기의 個人的인 信念 사정이 있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사정이 있다든가 해서 사실 理事 就任을 할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다고 假定을 했을 경우라도 과연 그 사정대로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보셨는지 아니면 다소의 무리가 있더라도 물론 警護室長 입장에서 권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던간에 警護室長이 계신 거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잠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證人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證人 張世東 물론 警護室長이라는 職責이

제 個人的인 人物 자체보다는 警護室長이라는 職位가 있으니가 그런 것도 느끼실 분이 계시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분들을 모셔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승낙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黃潤欽委員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社會的으로 이런 俗談이 있지요. "政丞이 죽으면 별로 弔問客이 없는데 政丞집의 말이 죽으면 弔問客이 더 많다"고 보통 그런 俗言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내용의 그런 俗談을 證人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이 募金이 순수한 의미에서 이것이 募金이 되도록 미리 생각을 했다면 이 理事의 就任을 證人께서는 오히려 피하고 당시의 日海財團의 理事長이라고 할까요. 崔順達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基金募金을 또는 理事就任을 하도록 했던 것이 더욱 옳았던 것이 아니나 그런 생각은 지금 들지 않았습니까?

○證人 張世東 물론 理事長이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것이... 理事長으로 內諾을 대개 한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設立者가 당시에 大統領이 되시고 또 이것이 一般 財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理事에 들어가는 분이 3分之2정도는 「버마」를 같이 수행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버마」에 안갔다고하신 분들 몇 분에 대한 趣旨說明이 필요했고 나머지 분들은 말씀을 안드려도 그 情況을 너무나도 잘 알고 비행기안에서 여기에 몇시간 6時間 7時間을 오는 동안 느낀 感도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다른 어떤 의미로도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든지 성원해보고자 하는 뜻이 結集되었다고 봅니다.

○黃潤欽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質問을 하나 하겠습니다.

역시 11月7日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證人께서 우리 金重權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大統領 자신이 「아웅산」慘事를 당했고 모든 警護의 責任은 巡訪國 自國의 責任이 있지만 警護室長이라는 도의적인 責任의 무거움도 遺家族 내지는 國民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證言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의적인 責任이라고 이야기
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의적인 責任을
느끼고 어떤 責任을 졌는지 그런 具體적인
사안이 있다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張世東 저는 귀국해서 당시의 大統領
이신 全斗煥 大統領께 辭意를 표명하고 그야말로
모든 罪를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망아지도 해져물면
의양간을 찾는다"고 했는데 회기해서 돌아가
서 名譽面長이나 郡守를 후원해서 고장을 한
번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것이 속죄하는 마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黃潤琪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警護室長의 입
장에 있는 분 같으면 그 基金에 直·間接的
으로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強制性
을 떨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진작 그렇게
인지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것
을 예측을 하고 있어야 했고 또 예측을 했
다면 당연히 당시의 大統領에게 이와 같은
基金의 強制성이 사실상 없도록 建議도 하고
거기에 대한 豫防措置도 취했어야 했다 本委
員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반해서 하여튼 轉役
준비중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現役
에 있던 趙成熙 大領을 기용했고 또 資金을
어떤 형태든 직접 管理를 했고 또 資金造成
에 保安指示까지도 했다. 오히려 公開하도록
권유를 했어야 하는데 保安指示까지 했었다
등으로 봐서 상당한 과오가 있었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前任 大統領이 은둔하는
이런 결과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
는데 여기에 대해서 證人은 어떤 責任을 느
끼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張世東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울
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個人的으로는 모셨던 분이 지금 그런 입장
에 있고 또 國民여러분에게 累와 걱정을 끼
쳐드린 데에 대해서 의혹을 사게 했던 日海
財團에 관여했다는 그 자체를 사죄를 드리고
또 前任 大統領께서 그로써 全國民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사죄를 드린 마당에 저로서는 할 말이 없음

니다마는 여러 委員님들도 지금 이 日海財團
이 과연 이것이 非理나 또는 國家的으로 과
연 이것이 있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었다나
하는 것을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遺家族 여러분에게
는 마치 殉國하신 분들을 빌미삼아서 어떠한
음모를 꾸민 양 하는 것이 비쳐진 데에 대
해서 個人的으로 사죄를 드리고 그러나 분명
히 그 돈 다 있고 額數는 사치스럽고 너무
의욕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年代를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다시한번 評價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潤琪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崔洛道委員 對黃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洛道委員 平和民主黨의 崔洛道委員입니다.

張世東證人은 83年10月21日 鄭壽昌씨를 만나
서 發起人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證人 張世東 예. 그때 아마 그런 것 같
습니다.

○崔洛道委員 鄭壽昌씨를 다른 理事들보다도
한달 전에 만났는데...

○證人 張世東 鄭壽昌會長님한테 직접적으로
理事問題를 간청한 것이 아니고 鄭壽昌會長님
이 아마 23億 문제가 財界에서 전부 다 많
은 분이 성금하시는데 갔다 오셔서 빈 것으
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그 과정에서...

○崔洛道委員 鄭壽昌證人이 그렇게 말을 했어
요.

○證人 張世東 그때 아마 제가 理事問題를
간청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그
말씀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崔洛道委員 그리고 創立總會를 다른 證人들
은 育瓦臺 警護室에서 했다고 그리고 證人만
安家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證人 張世東 그것은 아까 修正해서 말씀울
드렸는데요.

○崔洛道委員 아 그래요.

○證人 張世東 그것은 저희 三濟洞에 모든
記錄이 다 그렇게 되는데 育瓦臺表示라든가
警護室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기가 곤란하
니까 三濟洞으로 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단 한번 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崔洛道委員 그러니까 警護室에서 했다 이말이지요?

○證人 張世東 아까 말씀드린 警護建物입니다.

○崔洛道委員 그리고 晚餐도 靑瓦臺에서 했지요?

○證人 張世東 晚餐은 통상 하시는 별도장소에서 했습니다. 靑瓦臺內에서……

○崔洛道委員 그리고 募金도 靑瓦臺에서 接受했지요?

○證人 張世東 接受는 三清洞에서 했고 통장을 제가 보관했습니다.

○崔洛道委員 그 三清洞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證人 張世東 三清洞은 日海財團이 財團事務室이 없었기 때문에 臨時事務室을 거치하고 있는 가옥입니다.

○崔洛道委員 새세대육영회資金은 李順子씨가 靑瓦臺에서 接受했다고 했지요?

○證人 張世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崔洛道委員 그렇게 報道가 됐는데요?

○證人 張世東 報道된 사항은 알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崔洛道委員 일단 어떤 단체건간에 人事權과 經理權을 가지는 사람이 實權者가 됩니다.

日海財團에 대해서는 人事權에 대해서는 직접 全斗煥씨가 總裁를 맡았고 또 張世東證人이 募金을 하는데 앞장을 섰고 또 崔順達씨 趙成熙씨가 앞장을 섰습니다. 또 이 經理權에 대해서도 通帳을 證人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靑瓦臺에서 이러한 모임을 갖고 晚餐을 하고 또 募金을 그러한 장소에서 했고 人事權과 經理權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目標額도 鄭壽昌證人의 말을 들으면 500億을 처음부터 책정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證人 張世東 崔順達理事長이 學者로서 자기의 잠재적인 判斷 果實金 年間 30億 내지 40億 정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가운데 500億이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全斗煥 前任大統領한테도 얘기하니까 前任大統領은 너무 많다 과욕이다 해서 꾸지람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洛道委員 鄭壽昌證人은 500億을 목표로 했다고 그랬어요.

○證人 張世東 그러니까 그 果實金에서 기준이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또 여기 鄭周永會長님은 減金을 하시는 가운데서 한 100億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崔洛道委員 그리고 鄭壽昌證人이 바로 그 자리에 나와서 證言하면서 大林의 李垓鎔씨 그리고 張致赫證人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督勵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崔洛道委員 나중에 이 聽聞會 내용을 新聞을 보거나 듣지도 못했습니까?

○證人 張世東 聽聞會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전체를 그것을 듣지 못했지만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崔洛道委員 그러니까 지금도 證人께서는 強制募金이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證人 張世東 저로서는 제 견해로써 強制性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서 말씀을 하셔서 종합적인 판단은 여러 委員님들이 해주십시오.

○崔洛道委員 強制性이나 아니냐는 強制를 하는 사람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側에 있습니다.

○證人 張世東 아니요. 저한테 견해를 물어 보시니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崔洛道委員 全斗煥大統領 잘 모시고 있었지요?

○證人 張世東 물론입니다.

○崔洛道委員 그 全斗煥씨가 百潭寺로 가면서 돈이 필요로 하는 事業을 大統領夫人이 직접 맡아서 함에 있어서 無言의 압력을 준 것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聲明에서 시인했지요?

○證人 張世東 예.

○崔洛道委員 읽어 보셨지요?

○證人 張世東 읽어 보았습니다.

○崔洛道委員 全斗煥씨는 百潭寺로 가면서 無言의 압력이 됐다면 잘못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하물며 當代의 絕對權力을 가지고 있었던 全

斗煥씨와 그의 오른팔인 張世東警護室長이 직접 이 설립에 앞장섰습니다.

쫄斗煥씨는 이 사실에 대해서 對國民謝過를 했고 證人은 지금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證人 張世東 저도 어떠한 이것에 대한 罰이나 또는 罰책도 제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前任 大統領께서 그토록은 國民을 통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그 이상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견해를 물어 보시기 때문에 제 견해로써는 그것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統治者로서의 분명한 國民에 대한 大謝罪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아웅산」이 없는 상태에서 財團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러한 변명도 할 수 없고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웅산」이라는 문계 때문에 그 커다란 그것 때문에 強制性은 없지 않았느냐 있을 수도 없지 않았느냐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崔洛道委員 그러니까 23億을 募金할 때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마음으로 냈어요. 企業人들이 그거야 遺家族을 돕자고 그러니까 企業人들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쫄斗煥씨가 百潭寺로 가면서 이렇게 謝過聲明을 냈듯이 본인이 사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쫄斗煥씨 일을 맡아서 했던 警護室長으로서 단 日海財團을 설립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쫄斗煥씨 만큼의 사과는 國民앞에 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할 것이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證人 張世東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崔洛道委員 「롯데호텔」에서 100億을 募金할 때 29個業體에 할당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企業人도 있었다고 鄭壽昌證人이나 鄭周永證人이 시인을 했습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募金한 것이 強制募金 아닙니까?

○證人 張世東 財界狀況은 여기 元老 두분이 계시지만은 財界元老 되시는 분이 잘 아십니

다. 할당을 하시는 그런 방법도 서로 상의하신 것이지 그게 안 오신 분에게 일일이 할당을 해 놓고 또 무슨 독려하고 나는 그런 것으로는 안 봅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로 연락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능력껏 전화를 해서 서로 상의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一方的으로 經濟人聯合會 會長을 하고 계시지만 一方的으로 할당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게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崔洛道委員 여보세요. 證人! 그렇다면은 쫄斗煥씨가 百潭寺로 갈 때 이런 謝過聲明을 못 내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謝過聲明내요? 이렇게 안했는데 企業人들이 잘 알아서 募金했고 미처 안내니까 혹시 잊어버렸을까봐서 전화해 주었고...

○證人 張世東 大統領께서 직접 관심을 두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過剩意慾에서 왔다는 사항으로 분명히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過剩意慾을 가지고 그 建物을 누가 보든지 사치스럽다 또는 무슨 규모가 크다. 아마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르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誠金輸出에 있어서 제가 直接的으로 어떤 독려하거나 관여해서 目標額을 정하거나 이것을 會長님께 간청을 해서 적어도 500億程度는 걸어 주십시오. 이렇게 直接的으로 말씀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財界能力은 제가 알수도 없고 해서 이 분들 자신이 상의하셨다는 그 성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崔洛道委員 지금 그때 企業人들이 自發的으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잘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張世東 서로 상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鄭會長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梁會長도 한번 내신 분으로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證人들도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의 견해를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崔洛道委員 證人은 아까 遺家族돕기에서 처음에 財團設立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뒤에 조금전에 同僚委員의 訊問에서 大統領을 지낸 쫄斗煥 前 大統領의 경문을 國家發展을 위해서 研究使用하려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證言했습니다.

○證人 張世東 예. 研究所에 관심을 두고

성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崔洛道委員** 또 쫄투엳씨가 은둔성명을 내면서 저의 경험이 研究所의 활동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目的事業이 확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日海財團의 設立目的은 證人이라고 말하는대로 全大統領의 경륜을 연구하는데 쓰고 또 本人이 직접 밝히는 것처럼 쫄투엳씨가 밝히는 것처럼 저의 경험이 研究所活動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日海財團 設立目的의 定款變更은 「아웅산」유족을 돕기 위한 것이 영동하게도 쫄투엳씨의 個人政治信念 個人政治哲學을 個人政治路線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웅산」 遺家族을 돕는 문제는 하나도 변질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고 다만 확대된 것은 研究事業에 관한 사항이 大統領統治經驗을 가진 사람이 직접 성원함으로써 보다 더 研究所가 國際的인 상황에 빨리 도달할 수 있고 또 國際社會에서의 교류하는데 좋은 의미로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遺家族을 돕는 것이 퇴색이 되고 研究事業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遺家族을 돕는 문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질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遺家族 生計維持費를 學術財團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원 定款原則은 財團原則에 대해서 文教部에 가서 확인하니까 없다고 해서 별도로 23億을 거두었는데 그래서 23億원을 분배하고 이것이 慰勞金입니다. 遺家族 慰勞金을 분배하고 당시에 순국하실때의 당시의 傳給을 大統領이 직접 育瓦臺에서 各家庭에 支拂하고 금년 2月25日 退任하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끊어질 것이나 그래서 大統領 在任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會長님하고 所長 전부터 理事會에서 해가지고 다시 財團에서 그 傳給을 연결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生計費는 殉國하실 때 傳給이 그대로 나가고 있고 子女 學資金問題는 國內의 學資金支援은 大學校까지는 報勳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海外 또는 國內大學院을 가는 문제는

報勳處에서 殉國하신 子女들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大學院生으로부터 해서 지금 10名이 海外에 나가 있고 1名이 國內大學院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11名이 大學院을 在學中에 있어서 支援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98億이라고 하는 資產은 殉國하신 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統一내지는 國家發展 經濟發展 國家全體의 發展을 위한 研究事業을 위한 그런 遺志事業으로 이것이 活用되고 있는 事業입니다.

○**崔洛道委員**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實質上으로는 쫄투엳씨가 이렇게 本人이 은둔하면서 자기의 경험이 研究所活動을 통해서 活用될 수 있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全的으로 쫄투엳씨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 경험이 日海財團을 통해서 路線이 추구되기를 원해서 만들어졌다 확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私的인 政治路線 추구하고 公式的으로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임기를 앞두고 무리하게 通過를 시켜가지고 國家元老諮問會議議長이 大統領에게 建議를 하면은 無條件 받아들여야 되겠끔 뜻을 받아서 私的으로는 日海財團 公式的으로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통해서 政策반영을 하겠다 本委員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鄭周永證人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財團이 500億이나 基金을 확대해 나가리라는 사실을 물랐다고 그랬습니다.

○**證人 鄭周永** 예.

○**崔洛道委員** 그 다음에 23億의 「아웅산」遺家族 돕기나 희생자 遺志가 연구되어서 國家發展에 쓰여지기를 희망해서 100億정도를 研究所에서 만든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까?

○**證人 鄭周永** 그렇습니다.

○**崔洛道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희생자의 유지가 아니라 쫄투엳大統領의 경험이 日海研究所의 研究對象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영동하게도 쫄투엳씨의 경험이 연구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600億規模로 확대되었는데 그것은 당초의 設立目的의 기쁜 마음으로 냈던 적어도 이치에 합당해서 냈던 100億을 영동하게 초과해서 500億을 더

내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證人은 불만스럽다고 말씀하셨지요?

張世東證人 全斗煥씨가 지금 백담사로 갔습니다. 언제 만나셨습니까?

○證人 張世東 가시기 전에 보았습니다.

○崔洛道委員 梁正模證人은 미움을 사서 國際가 해체되었다고 했지요?

○證人 梁正模 예.

○崔洛道委員 그렇다면 全斗煥씨같은 政權을 만나지 않았다면 國際「그룹」이 해체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梁正模 그것은 불필요합니다.

○崔洛道委員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못된 政權 만나서 좋은 「그룹」이 망했다 그런 것이지요?

○證人 梁正模 結果的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崔洛道委員 張世東證人께 묻습니다.

139億의 政治資金을 全斗煥씨가 내놓고 갔습니다. 그 139億의 政治資金의 募金過程이나 管理過程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張世東 모릅니다.

○崔洛道委員 그러면은 日海財團의 通帳은 도둑맞을까봐 잘 지켰는데 139億의 通帳은 누가 지켰나요?

○證人 張世東 政治資金에 대한 사항은 저한테 부담주신 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政治資金問題하고 長期執權을 위한 부담 이런 두 개의 부담은 저한테 주시지 않았읍니다.

○崔洛道委員 證人은 12·12事態에 憂國衷情하는 國防에 전념하는 國軍과는 달리 政治軍人이 되었읍니다. 그레가지고 靑瓦臺警護室長 安企部長등 막강한 힘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鄭周永證人은 時流에 따라서 살았다고 했고 그것은 張世東證人이 앞장섰기 때문에 募金이 되었다고 本委員은 봅니다. 다시 말하면 建築係長이 建築業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뇌물로 본다고 하는 判例가 있습니다. 지금 張世東證人이 만일 日海財團을 募金하기 위해서 돈을 걸겠다고 하면 돈낼 企業 하나도 없습니다. 全斗煥씨가 저러한 뇌물로 다시 長安에 와서 돈을 걸겠다고 하면 하나도 낼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을 鄭壽昌證人이 시인했읍니다. 證人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證人 張世東 그런 수도 있습니다.

○崔洛道委員 당연히 그 지위때문에 돈을 냈기 때문에 強制性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證人은 잡지에서 말을 했읍니다. 나는 大韓民國 否定的 側面을 가장 많이 압니다. 政治판의 돈의 흐름도 압니다. 한 金씨가 全大統領으로 부터 人間的 配慮를 여러차례 받은 것도 그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안다고 말했었지요?

○證人 張世東 지난번에 그것은 여러가지로 다 答辯드린 것으로 그 答辯으로 대신하겠읍니다.

○崔洛道委員 두 金씨중에서 누가 더 이러한... 두 金씨중 누군가가 은혜를 입었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78日 동안이나 不法監禁을 證人은 하는데에 참여했고 또 朴種哲 權仁淑 事件에 관여를 해서 참여했읍니다. 金泳三씨 등 많은 民主人士가 證人과 全斗煥씨의 政治時代에 박해를 받았읍니다. 많은 公職者나 言論人이 추방 당했읍니다. 三清教育隊 35名의 疑問死 우리가 해결하고 알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때 5共을 청산하기를 바라는 모든 國民들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종래에 하던 그러한 습관처럼 野黨이 분열하거나 또는 탄압하거나 國民에게 의욕을 더 주게 해서 政治를 不信하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말이 나왔다고 本委員은 보는데 證人이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證人 張世東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서 聽聞會에서 상당한 時間 동안을 質問外 事項인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읍니다. 저로서는 지나번 말씀드린 것을 答辯으로 대신합니다.

○崔洛道委員 그러니까 분명히 두사람중에 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까?

○證人 張世東 그때에도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렸읍니다. 速記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洛道委員 本委員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證人은 분명히 두사람중에 누군가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밝

하지 않고 넘어 갔어요.

○證人 張世東 그때도 두분에 대한 사항도 다시 개별적인 質問에 다 答을 드렸습니다.

○崔洛道委員 證人은 쏠斗燒씨와 光州에서 民主化를 열망하는 많은 市民들을 학살하는데 그 政權이 탄생되었을 때부터 그 주변에 있으면서 金大中總裁가 死刑 당할 뻔했고 또 監禁되고 公民權이 박탈당하고 이런 것이 은혜라고 봅니까?

○證人 張世東 제가 大統領 주변의 警護室長을 했고 또 安企部長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政局 運營에 대해서 그것이 저에게 해당이 되든 해당이 되지 않든간에 時代的인 또는 職務上의 責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나... 光州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겨레가 함께 지금 앓고 있는 하나의 고통인데 그것이 은혜나고 答辯을 저한테 물으실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崔洛道委員 證人은 모든 사람들이 民主化를 열망할 때마다 박해를 해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證人 張世東 저는 저의 職務上 지금까지 越權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저의 職分을 남용해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崔洛道委員 그래서 쏠斗燒씨는 職權을 남용하고 잘못해서 백담사를 가고 證人은 國民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張世東 아닙니다. 저는 아까 序頭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勸책이나 어떠한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제가 스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崔洛道委員 本委員은 마지막으로 證人에게 이렇게 말해둡니다. 암울했던 時代에 民主化를 위해서 목숨과 자기의 일신상의 안전을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싸웠던 野黨의 指導者들에게 위토의 말은 한마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줬다고 하는 그러한 앞뒤가 맞지않는 양심이 없는 망언을 서슴치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證人과 또 모든 國民으로부터 지탄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쏠斗燒씨를 모셨던 그 자세에 있어서 다시한번 자성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本委員의 訊問을 마칩니다.

○委員長 李基濶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民主黨의 盧武鉉委員 對質訊問해 주십시오.

○盧武鉉委員 지금 時間 9分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張世東證人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對質에 있어서 爭點이 되는 부분은 設立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設立했는가 그리고 募金의 強制性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證人과 다른 證人들간의 陳述이 서로 조금 내용이 다르고요 배치되고 그다음 政經憲着嫌疑 특혜를 받았는가 혹은 보복의 관점에 있어서는 梁正模證人과 證人만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 여러번 물었는데 그래도 반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엄청난 돈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張世東 예.

○盧武鉉委員 이 엄청난 돈을 주고 받는 데에는 나름대로 동기가 다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張世東 예.

○盧武鉉委員 證人의 말씀에 의하면 強制性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까?

○證人 張世東 예.

○盧武鉉委員 그뜻은 日海財團設立趣旨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냈다 이런 말씀이지요?

○證人 張世東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뜻이 숭고한 것 같고 그만한 돈을 낼만한 가치가 있어서 냈다 이렇게 판단해서 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證人 張世東 능력에 버금가는 성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성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證人 張世東 예.

○盧武鉉委員 돈을 안내면 혹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냈다고 짐작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證人 張世東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와서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이 時間에 혹시 돈을 안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낸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그렇습니까? 지금봐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證人 張世東 아마 經濟人이나 元老분들이 서로 相讓하거나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強壓을...

○盧武鉉委員 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強壓與否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서 혹시 낸 사람은 냈다...

○證人 張世東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다음 그냥 특별하게 이일을 주도하는 분의 얼굴을 봐서 낸 사람은 없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設立者가 大統領이시고 또 「아우산」을 같이 당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또 警護室長이 거기에 참여하고...

○盧武鉉委員 설명은 하지 마시고 얼굴을 봐 가지고 낸사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편하겠습니다.

○證人 張世東 그렇게도 낸사람이 부분적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굴을 보고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다음 이 事業을 大統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왔지요?

○證人 張世東 예.

○盧武鉉委員 이 돈낸 사람중에 혹시 얼굴을 보고 낸 사람이 있다... 아! 이렇게 합시다. 뜻과 취지가 똑같다 하더라도 崔順達씨 혼자서 앞장서서 일을 했다면 돈이 이렇게 많이 걸렸겠습니까?

○證人 張世東 물론 崔順達씨는...

○盧武鉉委員 崔順達씨가 앞장서서 했다면 돈이 이만큼 많이 걸렸겠습니까? 똑같은 뜻이라고 했을 때...

○證人 張世東 崔順達씨 단독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했다면 이만한 돈이 걸렸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證人 張世東 단독으로 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盧武鉉委員 돈을 돌려준 경우도 있지요? 받았다가... 證人이 말씀하셨습니다.

○證人 張世東 아닙니다.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

는 이야기를 聽聞會...

○盧武鉉委員 證人이 그런 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까?

○證人 張世東 聽聞會에서 들었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盧武鉉委員 月刊 朝鮮記者와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도 強制性이 없다. 그리고 무리하게 하지 않으려고 돈을 냈던 사람들의 돈을 되돌려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證人 張世東 글썬요 저는 기억은 잘 안나타마는...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제...

○證人 張世東 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돌려 줬을 때는 돈을 무리하게 냈다 싶어서 돌려 준것이지요?

○證人 張世東 그 능력이 없는데 뜻만 있는 것으로 해서...

○盧武鉉委員 예. 받은 사람이 봐서 능력이 없는데 돈을 낼만큼 무리한 돈을 내는 사람은 오죽 속이 쓰려서 냈을까요. 그것도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속이 쓰려서 낼 수도 있고 과잉 의욕에서 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盧武鉉委員 아부하느라고 낸겁니까?

○證人 張世東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람은...

○盧武鉉委員 고려합섬의 張致赫씨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85年度에 1億2,000萬원이라는 缺損을 내면서 85年度에 日海에 5億을 냈습니다. 86年度에도 2億내고 心臟財團에 3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鄭周永씨의 土地받은 것 있지요?

○證人 張世東 예.

○盧武鉉委員 이 값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證人 張世東 값은 본래 사신 것이 6億5,000萬원에 사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당시 鄭周永證人의 말씀에 의하면 한 1·2萬坪 쓰겠거니 하고 승낙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어떻게 전부 다 쓰게 됐습니까?

○證人 張世東 처음에는 저 밭의 땅은 논이 좀 있고 해서 平地는 한 4·5萬坪정도 됩니

다. 나머지는 전부 山이기 때문에...

○盧武鉉委員 鄭周永 證人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그 당시 1·2萬坪정도 쓰셨거니 하고 주셨다고 하셨지요?

○證人 鄭周永 그저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이면 뭐 研究所 짓는 것이니까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盧武鉉委員 돈을 안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받으셨는데요.

○證人 鄭周永 돈을 받았봤자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盧武鉉委員 이 당시 이 땅을 寄附할 때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사신것은 몇 年前이었습니까?

○證人 鄭周永 한 3·4年前 된 것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2·3年 됐는지 3·4年 됐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살 때하고 이것 넘길 때하고 땅값은 많이 달라졌겠지요?

○證人 鄭周永 그것 쓸 수만 있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다음 張世東 證人께 다시 물겠습니다.

아까 崔委員께서 물으실때 政治資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셨습니까?

○證人 張世東 예. 政治資金은 제가 부담을 안 받았습니다.

○盧武鉉委員 부담은 안돼도 알기는 알고 있습니까?

○證人 張世東 政治資金이 필요하다 政治資金을 大統領으로서는 활용을 부분적으로 하신다 그러나 그 규모라든가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것은 政治를 하는 본들이면 모든 본이 政治資金이 필요하다는 事項은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폭탄선언 얘기가 나오는데요. 新東亞를 보면 단순하게 폭탄선언 얘기만 나오고 있고 두술씨의 얘기는 月刊朝鮮에만 나오는데요. 폭탄선언이라는 말은 두술씨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런데 그 폭탄선언이라는 것이 혹시 盧泰愚 大統領까지를 겨냥한 폭탄선언은 아닙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이제 形容詞...

○盧武鉉委員 그렇다 안 그렇다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닙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어떤 政治資金을 大統領이 받았다면 不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지요?

○證人 張世東 그것은 어느 나라 政治社會든지 지금 政治活動을 하면서 合法的으로 하느냐 公的으로 하느냐 때문에 全世界가 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예. 하여튼 法律上 不法인 것은 사실인데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證人 張世東 法律上 그것이 不法이라는 사항은 제가 法律에 適用을 檢討안해 보았습니다.

○盧武鉉委員 證人! 安全企劃部長으로 勤務하셨지요?

○證人 張世東 예.

○盧武鉉委員 搜查業務도 있지요?

○證人 張世東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리고 특수한 法律에 관해서 犯罪에 관해서 搜查를 하면서 法律的인 業務를 많이 취급하시지요?

○證人 張世東 基本的인 細部的인 것은 實務者들이 하고 一般 司法的으로 調査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公職者의 倫理에 속하는 倫理에 해당되는 公職者의 業務에 관한 것도 취급하시지요?

○證人 張世東 예. 基本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政治資金法만 모릅니까?

○證人 張世東 政治資金法의 一般的인 사항은 알지만 그 細部的으로 어떤 法에 어떻게 適用이 되는지...

○盧武鉉委員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政治資金法에 관한 規定도 모르고 어떤 政治資金이 合法的이고 不法인 것도 모르는 安全企劃部長에게 이 나라의 안정을 맡겼습니까? 證人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張世東 그렇게 개인적인 人身을 그것 하시지 말고...

○盧武鉉委員 人身攻擊이 아니고 證人이 오늘 答辯을 회피하는 것이 매우 불성실한 答辯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證人 張世東 그 事案 자체가...

○盧武鉉委員 法律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證人 張世東 法律의 細部的인 事項을 어느 法條에 適用되는...

○盧武鉉委員 細部를 물은 것이 아니고 違去合法을 물었습니다.

○證人 張世東 지금 우리 盧委員님께서는 法을 細部的으로 다루셨으니까 그 條項 條項을 잘 아시지만 나는 그 法條文을 實務者를 통해서 또 그것 하거나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盧委員님보다는 제가 더 細部的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概括的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委員 만일에 全斗煥씨가 불법하게 모은 資金으로 盧泰愚씨의 大統領選舉에 選舉資金으로 쓰여졌다면 賂物로 選舉를 한 셈이 되겠지요? 이와 같은 중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全斗煥씨가 證言을 하러 나오질 않고 있는 데요. 그 점에 관해서 證人은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그것은 政治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직접 盧委員님이 더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盧武鉉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善澤 民正黨 張慶宇委員 對質訊問하세요.

○張慶宇委員 張慶宇委員입니다. 時間이 없어서 바로 質筈에 들어가겠습니다.

本委員은 어느 同僚議員이 日海財團 募金과 관련하여 某月刊誌에 기고한 記事內容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日海財團 募金額이 600億이 아닌 5,000億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인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5共特委는 그동안 現場確認 文書檢證등 수차에 걸친 聽聞會 등을 통해서 日海財團基金 募金總額이 598億원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 졌습니다. 그리고 이 募金總額에 관한 한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점에 관해서 證人께 묻겠습니다.

먼저 張世東證人!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基金募金 總額에 대해서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證人 張世東 598億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慶宇委員 알겠습니다.

鄭周永證人!

지금까지 아시는 日海財團의 基金募金 總額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周永 예. 저도 이 聽聞會가 시작 돼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598億5,000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慶宇委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日海財團 募金總額이 598億의 募金이었다 라는 것은 與野間에 異見이 없을 줄 압니다.

이제 이 오늘의 聽聞會의 焦點은 募金の 強制性일 것입니다. 또 國民들도 또한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募金の 強制性 問題를 마지막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聖經에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돈이라는 것은 人間에게 한 없는 매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한번 쬐은 돈 낼 때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몇 가지의 分野를 좀 論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지와 목적에 적극 찬동해서 내거나 또는 찬동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직접 나서서 주선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張世東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張世東 물론입니다. 여기 各層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張慶宇委員 맞지요? 다음 經濟界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적 분위기가 業界의 輿論을 의식한 나머지 내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周永證人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어떤 돈을 내야 할 그 動機 또 그 時點 時點에 따라서 이를테면 아웅산事態가 생겨서 慰勞金을 낸다거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뜻을 살려보자는 그 時點 그것은 아웅산事態가 일어나서 얼마 안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經濟界에서 鄭壽昌會長하고 다 의논해서 우리 全經聯 副會長團에서 다 의논해서 割當을 했읍니다마는 그 때 割

當했을 적에는 제 자신 착각인지는 모르지마는 強制性이라고까지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額數가 커지고 자주 이렇게 되니까 아웅산事件도 전부 멀어지고 또는 額數가 너무 커지고 해마다 내려드니까 힘에 벅차서 어렵게 느껴진 것이 사실입니다.

○張慶宇委員 알겠습니다.

그 밖에는 두분 證人이 證言을 하셨지만은 협조를 빙자한 요구 때문에 아마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特惠라는 소위 反對給付를 의식해서 내는 사람도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예컨대 돈을 안내면 재미없지 않으나 하는 식의 그런 해악을 告知해 가지고 안낼 수 없도록 강요할 수 있는 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모든 것들을 저는 구분해서 강제나 非強制나 하는 것보다는 自發的이나 非自發的의나 하는 문제로 저는 국한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 自發的이나 非自發的의나로 제가 분리하고 싶은 문제에 관해서 鄭周永證人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지금 張慶宇委員 말씀대로 個個人的의 형편이 다른지 안 다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證人席에 나와서 과거나 오늘 계속해서 證言하는 것은 내 심정을 證言하는 것입니다.

○張慶宇委員 알겠습니다. 張世東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張世東 내는 본들의 입장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張慶宇委員 自發的의나 非自發的의나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까?

○證人 張世東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내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

○張慶宇委員 이제는 내는 입장이 아니고 거두는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두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모든 것을 항상 좋게 보는 관행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행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事件 募金에 어떤 신념과 자신을 갖고 참여한 張世東證人이나 또는

鄭壽昌會長의 경우는 이 件 募金에 관련해서 강제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지금껏 변명과 소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本 聽聞會나 事件調查에서 나타난 여러 證人들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 募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非自發的인 양상을 本委員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張世東證人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거두는 입장에서 볼 때 非自發性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證人 張世東 이번 기회에 여기 옆에 계신 經濟元老이신 鄭周永會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警護室長의 입장은 直接的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또 鄭壽昌會長님은 商工會議 議長이기 때문에 直接的으로 내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鄭周永會長님은 經濟人聯合會 議長 입장으로서 企業을 直接的으로 가지고 계시고 또 거느리는 본들하고 상의하시는 입장이라고 해서 각각의 뜻이... 또 여기 梁正模會長님이 계십니다마는 梁正模會長의 個別的인 入場 이런 등등이 각각 따로따로 自發的이나 非自發的의나 의미로서 생각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느끼는 감정과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이 판단은 여기에 계신 委員님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張慶宇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은 이제 내는 입장에서와 거두는 입에서의 自發的의나 非自發的의나 하는 문제를 관해서 두 분 證人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國民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本委員의 訊問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사실은 民主黨에 지금 할당된 시간이 한 8·9分 있습니다.

그리고 金東周委員이 짧게 對質訊問을 할려고 합니다.

○崔洛道委員 아니 民主黨 幹事가 5分이라고 그러는데 왜 委員長은 8分이라고 그래요?

○委員長 李基澤 그러니까 좋습니다. 8·9分도 좋고 5分도 좋습니다. 金東周委員이 -꼭

對質訊問을 하시겠습니까?

○金東周委員 간단하게 하지요.

○委員長 李基澤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내에 하세요.

○金東周委員 張世東證人에게 묻겠습니다. 82年度에 靑瓦臺警護室의 經理課長을 한 김종상씨를 아시지요?

○證人 張世東 예.

○金東周委員 그런데 김종상씨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자체방어를 위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새로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本委員이 지난 번의 聽聞會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長期信用銀行에 지금 1,500億에 대한 債權問題... 債權을 全斗煥씨와 李順子씨의 측근이 구입해 갔다 하는 이야기가 제보가 여러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慶尙南道 사람이지요? 맞습니까?

○證人 張世東 예. 慶尙道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혹시 同名異人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盧泰愚司官할 때 經理將校를 했다는데 그 사람 맞습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證人 張世東 기억이 안 납니다.

○金東周委員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금 民正黨의 某委員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드리 해냈는데 지금 證人과 鄭周永證人은 日海財團의 基金이 598億5,000萬원이다 하니까... 聽聞會 보니까 우리 鄭周永證人같은 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현재 理事長입니다 理事이고 張世東證人也 그렇고 두 분이 다 日海財團의 基金이라는 것은 寄附金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왜 그렇느냐 지난 번에도 35億 全斗煥씨에게 즉 말하자면 나쁜 얘기로 하면 뇌물이고 자기들이 大統領 수고한다고 갖다준 이 문제 이것도 그 뒤에 日海財團이라고 하니까 日海財團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全斗煥씨와 李順子씨가 하고 있는 日海財團 그 다음에 새 세대 育英會 새세대心臟財團 이래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000億이 넘습니다.

현재 資產이...

그러면 그 당시에 張世東證人也 이야기가

이것은 돈을 주기 때문에 匿名으로 日海財團에 入金시켰다.

그러면 다른 企業家들이 全斗煥 大統領 日海財團의 總裁를 만나서 얼마를 주었는지 그것은 張世東證人也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張世東 물론 모르지요.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지금 日海財團의 理事長이고 여기 理事를 했고 日海財團을 설립하는데 상당한 공로가 있는 우리 張世東證人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日海財團이라 하는 것은 첫째 經理帳簿가 전부다 83年度 85年度것이 87年度末부터 88年度 3月까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새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理事會會議錄 자체가 조작입니다. 아까 鄭周永證人이 말씀하셨지만 梁正模理事가 해임될 때 鄭周永證人이 참석한 양으로 해서 도장 찍어냈는데 그 도장 자체도 鄭周永證人의 도장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理事會會議錄 자체도 전부다 조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日海財團의 證人 말에 의하면 또 某黨의 주장에 의하면 金麟培事務處長이 지금 현재 10 몇 億을 횡령했는데 그 중에 利子를 얼마를 流用해가지고 빼 먹었다.

그 사람 아직 안 잡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아서 定款대로 움직여 지지를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本委員이 結論의으로는 證人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세 분 다 공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政權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면 지나고 난 후에 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日海財團의 設立者는 全斗煥 大統領입니다. 前 大統領입니다.

그러면 鄭周永證人이나 우리 梁正模證人 다 發起人들입니다.

또 거기에서 職權을 남용해 가면서 우리 張世東證人也 아웅산事件의 하나의 그 장면을 생각해서 積極的으로 도왔다고 시인 했습니다.

이러면 오늘날 이 日海財團이 무엇 때문에

與 野合意로써 이렇게 5共非理 調査에 第1次로 調査對象이 되었겠으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대단히 괴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財團이 出捐者는 全斗煥씨입니다.

아까 鄭周永證人도 잘 모르고 있는데 鄭周永證人은 梁正模證人은 다 寄附者입니다. 寄附者는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財産은 이렇게 國民 전체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設立趣旨에 이 제는 버마遺族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補償을 다했습니다. 그 뒤에 이 財團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쓴 일도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그 遺族의 부인이 떨어져 죽었을 때 弔花 하나 안 보냈습니다. 또 심지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시비도 있습니다. 그 遺族들이 더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은 꼭 日海 財團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하셔야 만이 여러 분들이 참 그 나름대로 그 때 생각에는 이 財團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처분해서 다시 이것을 國民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 財團으로서는 도저히 또 財團責任者 設立者가 全斗煥 大統領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잘 못된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本委員의 생각은 꼭 이 財團은 조속히 처분을 해서 바로 처분을 해서 이것은 國民이 더 어렵고 國民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는데 梁正模證人 어떻게 됩니까?

○證人 梁正模 글썬요. 뭐 國民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예. 우리 張世東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張世東 저는 근본 뜻 殉國의 뜻이 사는 채로 國家와 國民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아니 그 財團을 그런 것이 아니고 처분을 해서라도 國民을 위해 쓰지 누구 개인은 못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證人 張世東 지금 아마 法的으로 문제는 저는 그것이 뭐 國家에 헌납을 한다 어디를 간다 그랬을 때 뭐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할때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차가 필요한 것이니까 아까 會長님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은 본래의 뜻이 유지가 그것이 근본 출발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살리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鄭周永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鄭周永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 財團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둘째 이유는 그 遺族 미망인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金東周委員 遺族만 도와 줄 수 있는 한 100億 정도만 놔두면 나머지 國民을 위해서 써도 좋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鄭周永 그렇게 議論을 하는데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0億을 남겨놓고 그렇게 論議하는데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東周委員 예. 감사합니다.

○證人 鄭周永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鄭周永證人께서나 梁正模證人께서 연세도 많으신데 長時間 동안 對質訊問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日海 財團의 非理調査를 위해서 오늘까지 聽聞會를 거치고 現場調査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밝혀 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이 聽聞會에 나왔던 많은 證人들도 강제성이 있다고 證言을 했고 또 조금전에 民主黨의 張慶宇委員까지도 모금의 自發性과 非自發性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도 非自發性的 면이 보이기도 했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면 제 판단으로는 張世東證人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張世東證人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모금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지금 百潭寺에 가 계시는 全斗煥씨도 日海 財團의 그 設立過程이 잘못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아까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이 聽聞會에 나왔던 많은 證人들 가운데 상당한 數字가 그 모금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張證人의 옆에 앉아 계시는 鄭周永證人께서나 그 다음에 梁正模證人

께서도 기금모금의 강제성을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世人들이 많은 國民들이 이 日海財團의 設立基金은 強制性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張世東證人은 우리 委員會가 판단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日海財團을 設立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張世東證人도 이제에는 이 基金의 強制性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나마 是認을 해 줬으면 하는 司會를 맡아 있는 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個人이나 團體나 國家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목표가 아무리 좋고 2000年代를 위하고 國家安保나 統一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그 過程과 方法이 나쁘면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 過程에서 非理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 國民과 社會에 통하지를 않는다는 이러한 眞理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거의 전부가 基金의 強制性을 주장하는 데 張世東證人 어떻습니까? 끝까지 否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張世東證人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本委員이 司會者이기도 하지만 또 國會議員資格으로 묻고 싶습니다.

○證人 張世東 어떠한 答辯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強制性 自白을 지금 바라시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基澤 自白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證人 張世東 過程上이나 여러가지 全斗煥 前任大統領께서도 이미 國民앞에 사죄할 여러가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상의 사죄를 드리는 머리속에 사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견해는 제가 보는 그 단면은 분명히 強制性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의 판단은 아까 委員會에서 결정 많은 사항을 광범위하게 들으셨으니까 결정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알겠습니다. 對質訊問 申請

者가 없어서 일단 張世東證人 그리고 鄭周永證人 그리고 梁正模證人의 對質訊問을 마치고도 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委員들은 잠시만 앉아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 委員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세분에 대한 對質訊問의 요지를 이미 司會者가 읽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寄附金의 強制性
둘째는 日海財團 敷地 150萬坪에 관해서
셋째가 이 기사사항입니다.

사실 이 司會를 맡아 있는 사람은 이 對質訊問이 자칫 잘못하면 個別訊問과 혼동을 할 수 있어서 사실 걱정이 컸습니다.

처음에 이 會議가 시작될 때 많은 委員들이 그 對質訊問을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또 취소도 하고 또 생략도 되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聽聞會만 열리면 밤 열두時까지 가고 次數를 변경해서 子正을 넘겨야만 되는 그러한 어떤 나쁜 폐단이 이제 聽聞會를 거듭하면서 시정된 아주 자화자찬이 아니라 진일보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읍니다. 아마 여러 委員들께서도 똑 같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委員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45分 散會)

○出席委員

李 基 澤	金 仁 泳	金 重 權
金 顯 煜	朴 道 球	徐 廷 奉
安 秉 珪	李 聖 浩	李 致 浩
張 慶 宇	趙 庚 穆	黃 炳 禹
黃 潤 麒	金 令 培	朴 相 千
梁 性 佑	李 東 根	林 春 元
趙 昇 衡	崔 洛 道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盧 武 鉉
沈 完 求	金 鍾 植	金 炫 炫
鄭 一 永	崔 戊 龍	洪 熙 杓

○委員아닌出席議員

李 光 魯	金 德 圭	金 得 洙
-------	-------	-------

金朴柳李許金朴崔尹	榮鍾寅炯萬正泰正在	度泰鶴培基吉權植基	金宋李趙姜朴鄭崔鄭	元鉉敬洪普寬在炯夢	基燮載奎性用文佑準	盧慎李崔金朴崔金	承順教鳳光載二鎔	煥範成九一圭鎬采
-----------	-----------	-----------	-----------	-----------	-----------	----------	----------	----------

○出席專門委員與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趙 宋 寶 圭